

201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2018~2027



201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2018~2027

201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2018~2027

총괄 | 정문중 추계세제분석실장

기획·조정 | 최미희 조세분석심의관
윤성민 추계세제총괄과장

작성·추계 | 김윤기 거시경제분석과장
심혜정 소득법인세분석과장
이영숙 재산소비세분석과장
양성선 경제비용추계과장
이진우 사회비용추계과장
김태규 행정비용추계과장

박연서, 차병섭, 백경엽, 강민지, 박지원,
장윤정, 김효경, 윤주철, 문지은, 이은미,
김윤희, 유희수, 이미연, 황종률, 오현희
(이상 추계세제분석관 및 경제분석관)

지원 | 장유진 추계세제총괄과 행정실무원
김소정 추계세제총괄과 자료분석지원요원

「201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2018~2027」은 국회의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02) 788-3776 | etcd@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2018~2027

2018. 11.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18.10. 2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지난 9월 3일 정부는 470.5조원 규모의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67개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향후 5개년 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분야별 자원배분 등을 포함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부의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지난해 제출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 추진 방향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은 물론,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의무지출의 증가와 조세수입의 변동폭 확대 등 재정상황의 불확실성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은 자원배분, 소득분배, 경기조절 등 국가경영의 핵심적 수단으로서, 세대를 아울러 국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 시계를 갖고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NABO 재정전망에서는 이전의 재정전망과 달리 전망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으로써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재정 운용의 방향과 지속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2018~2027」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과제들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향후 10년 간의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지표들의 추이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부의 향후 5개년 간 재정운용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거시적이고 총량적인 심사가 이루어 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11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춘순

일러두기

1. GDP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이상 경상GDP를 의미함
2. 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추경 기준임
3. 각 표에서 “ㄴ”은 “0”을 포함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수를 의미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둠
4. 단수 차이로 인해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5. 각 그림의 2017년까지는 실적 기준의 금액 또는 수치임

차 례

요 약

I. 「201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개요 / 1

1. 재정전망의 의의	1
2. 재정전망 방식	3
가. 개 요	3
나. 항목별 전망 방법	3
3. 재정전망을 위한 기본 전제	5
가. 경제변수	5
나. 인구변수	7
다. 주요 정책 변화 및 가정	9

II. 「201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결과 / 15

1. NABO 재정전망 개요	15
가. 재정전망	15
나. 재정전망과 기준선 비교	16
2. 총수입	18
가. 개 관	18
나. 국세수입	20
다. 국세외수입	29
3. 총지출	40
가. 개 관	40
나. 의무지출	43
다. 재량지출	66

4. 재정수지	67
가. 개 관	67
나. 통합재정수지	68
다. 관리재정수지	70
라.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71
5. 국가채무	75
가. 개 관	75
나. 중앙정부 채무	78
다. 지방정부 순채무	79

Ⅲ.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 / 81

1.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81
2. NABO 재정전망과 비교	82
가. 개 관	82
나. 총수입	84
다. 총지출	87
라. 재정수지	102
마. 국가채무	106

부 록 / 109

표 차례

[표 1] 재정전망 개요	2
[표 2]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	4
[표 3] NABO 재정전망을 위한 기본전제: 주요 경제변수	6
[표 4] NABO 재정전망을 위한 기본전제: 주요 인구변수	7
[표 5] 주요 정책변화 및 가정: 총수입 부문	9
[표 6] 주요 정책변화 및 가정: 총지출(의무지출) 부문	11
[표 7] 주요 가정: 총지출(재량지출) 부문	13
[표 8] 주요 가정: 국가채무	14
[표 9] 「NABO 재정전망」: 재정총량표	15
[표 10]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재정총량표	17
[표 11] 「NABO 재정전망」: 총수입	18
[표 1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총수입	19
[표 13] 「NABO 재정전망」: 국세수입	21
[표 14]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세수입	23
[표 1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소득세	24
[표 1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법인세	25
[표 1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부가가치세	27
[표 1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타 국세수입	28
[표 19] 「NABO 재정전망」: 국세외수입(회계별)	30
[표 20] 「NABO 재정전망」: 국세외수입(성질별)	30
[표 21]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세외수입	31
[표 2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사회보장기여금	32
[표 23]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국민연금기여금	33
[표 24]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사학연금기여금	34
[표 2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고용보험기여금	36
[표 26]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산재보험기여금	37
[표 27]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경상이전수입	38
[표 28]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연금기여금	39

[표 29]	「NABO 재정전망」: 총지출	40
[표 30]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총지출	41
[표 31]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의무지출	43
[표 32]	「NABO 재정전망」: 복지분야 의무지출	46
[표 33]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복지분야 의무지출	47
[표 34]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국민연금	48
[표 35]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사학연금	49
[표 36]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공무원연금	50
[표 37]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군인연금	51
[표 3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건강보험	52
[표 39]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고용보험	53
[표 40]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산재보험	55
[표 41]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	56
[표 4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초연금	58
[표 43]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아동수당	59
[표 44]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장애인연금	60
[표 4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보훈	61
[표 4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지방이전채원	63
[표 4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이자지출	64
[표 4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타 의무지출	65
[표 49]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재량지출	66
[표 50]	「NABO 재정전망」: 재정수지	68
[표 51]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통합재정수지	69
[표 5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관리재정수지	70
[표 53]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72
[표 54]	「NABO 재정전망」: 국민연금수지	73
[표 55]	「NABO 재정전망」: 사학연금수지	74
[표 56]	「NABO 재정전망」: 고용보험수지	74
[표 57]	「NABO 재정전망」: 산재보험수지	75
[표 58]	「NABO 재정전망」: 국가채무	75
[표 59]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가채무	77
[표 60]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중앙정부 채무	78
[표 61]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지방정부 순채무	79

[표 62]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표	82
[표 63]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경상GDP성장률	82
[표 64]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재정총량표	84
[표 65]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총수입	86
[표 66]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차이 원인: 총수입	87
[표 67]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총지출	88
[표 68]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의무지출	89
[표 69]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복지분야 의무지출	90
[표 70]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차이 원인: 복지분야 의무지출	95
[표 71]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지방이전재원	97
[표 72]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이자지출	98
[표 73]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기타 의무지출	98
[표 74]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차이 원인: 복지 외 의무지출	99
[표 75]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재량지출	100
[표 76]	「국가재정운용계획」 재량지출 총량(성질별)	101
[표 77]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차이 원인: 재량지출	102
[표 78]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통합재정수지	102
[표 79]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관리재정수지	103
[표 80]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관리재정수지	104
[표 81]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105
[표 82]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국가채무	107

그림 차례

[그림 1] 장래인구추계: 2013~2027년	8
[그림 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총수입	20
[그림 3] 「NABO 재정전망」: 국세수입 주요 세목별 GDP 대비 비율 추이	22
[그림 4]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세수입	23
[그림 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소득세	25
[그림 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법인세	26
[그림 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부가가치세	28
[그림 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타 국세수입	29
[그림 9]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세외수입	31
[그림 10]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국민연금기여금	33
[그림 11]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사학연금기여금	35
[그림 1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고용보험기여금	36
[그림 13]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산재보험기여금	37
[그림 14]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경상이전수입	38
[그림 15]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연금기여금	39
[그림 1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총지출	42
[그림 17] 「NABO 재정전망」: 의무지출 vs. 재량지출	42
[그림 1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의무지출	44
[그림 19] 「NABO 재정전망」: 의무지출 항목별 비중	45
[그림 20] 「NABO 재정전망」: 복지분야 의무지출 항목별 비중	47
[그림 21]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국민연금	48
[그림 22]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사학연금	49
[그림 23]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공무원연금	50
[그림 24]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군인연금	51
[그림 2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건강보험	53
[그림 2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고용보험	54
[그림 27]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산재보험	56
[그림 2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	57

[그림 29]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초연금	58
[그림 30]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아동수당	59
[그림 31]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장애인연금	60
[그림 3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보훈	62
[그림 33]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지방이전채원	63
[그림 34]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이자지출	64
[그림 3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타 의무지출	65
[그림 3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재량지출	67
[그림 3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통합재정수지	69
[그림 3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관리재정수지	71
[그림 39]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72
[그림 40]	「NABO 재정전망」 국가채무 추이: 1973~2027년	76
[그림 41]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가채무	77
[그림 42]	「NABO 재정전망」 지방정부 순채무 추이: 1997~2027년	79
[그림 43]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총수입	86
[그림 44]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총지출	88
[그림 45]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국민연금	91
[그림 46]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공무원연금	92
[그림 47]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	93
[그림 48]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기초연금	94
[그림 49]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고용보험	94
[그림 50]	「국가재정운용계획」 성질별 재량지출 추이: 2013~2022년	101
[그림 51]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104
[그림 52]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106
[그림 53]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국가채무	107

201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2018~2027

「NABO 재정전망」 결과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GDP 대비 비율)	463.5 (25.8)	483.7 (25.8)	505.0 (25.8)	526.5 (25.7)	549.6 (25.7)	574.1 (25.6)	597.1 (25.5)	621.5 (25.4)	645.8 (25.3)	670.7 (25.2)	4.2
·국세수입 (GDP 대비 비율)	289.9 (16.2)	302.6 (16.2)	317.0 (16.2)	331.9 (16.2)	348.3 (16.3)	366.1 (16.3)	382.0 (16.3)	398.8 (16.3)	415.5 (16.3)	432.6 (16.3)	4.5
·국세외수입 (GDP 대비 비율)	173.5 (9.7)	181.1 (9.7)	188.0 (9.6)	194.5 (9.5)	201.3 (9.4)	208.0 (9.3)	215.1 (9.2)	222.7 (9.1)	230.3 (9.0)	238.1 (9.0)	3.6
·세외수입	26.0	26.4	27.0	27.6	28.2	28.7	29.3	29.9	30.5	31.1	2.0
·기금수입	147.6	154.7	161.0	166.9	173.1	179.4	185.8	192.8	199.8	207.0	3.8
총지출 (GDP 대비 비율)	432.7 (24.1)	474.5 (25.3)	518.6 (26.5)	540.0 (26.4)	568.5 (26.5)	591.1 (26.4)	617.4 (26.4)	645.1 (26.4)	672.1 (26.3)	699.5 (26.3)	5.5
·의무지출 (GDP 대비 비율)	217.0 (12.1)	245.7 (13.1)	272.3 (13.9)	279.5 (13.6)	295.5 (13.8)	309.9 (13.8)	327.8 (14.0)	347.2 (14.2)	366.1 (14.3)	385.5 (14.5)	6.6
- 복지분야 의무지출	95.8	110.2	120.6	130.0	138.1	144.6	154.9	166.2	177.1	188.3	7.8
·재량지출 (GDP 대비 비율)	215.7 (12.0)	228.8 (12.2)	246.4 (12.6)	260.5 (12.7)	273.0 (12.7)	281.2 (12.6)	289.6 (12.4)	297.9 (12.2)	306.1 (12.0)	314.1 (11.8)	4.3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 (A)	총수입	463.5	483.7	505.0	526.5	549.6	4.4
	총지출	432.7	474.5	518.6	540.0	568.5	7.1
	통합재정수지	30.8	9.2	-13.7	-13.5	-19.0	
	관리재정수지	-11.8	-33.3	-54.0	-51.5	-54.9	
	국가채무	685.2	723.8	788.2	843.5	897.1	7.0
국가재정 운용계획 (B)	총수입	447.7	481.3	504.1	525.4	547.8	5.2
	총지출	432.7	470.5	504.6	535.9	567.6	7.0
	통합재정수지	15.1	10.8	-0.5	-10.5	-19.8	
	관리재정수지	-31.4	-33.4	-44.5	-54.2	-63.0	
	국가채무	697.3	741.0	790.8	843.0	897.8	6.5
차 이 (A-B)							합계
	총수입	15.7	2.3	0.9	1.1	1.8	21.8
	총지출	0.0	4.0	14.0	4.1	0.9	23.0
	통합재정수지	15.7	-1.6	-13.1	-3.0	0.8	-1.2
	관리재정수지	19.6	0.0	-9.5	2.7	8.1	20.9
국가채무	-12.1	-17.2	-2.6	0.5	-0.7		

주: 2018년은 추경 기준

요 약

I. 「201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개요

1. 재정전망의 의의

- 「2018년 NABO 중기 재정전망」(이하 NABO 재정전망)은 「2019회계연도 예산안」(이하 예산안) 및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포함된 정부의 정책방향을 반영한 전망치
 - 정부 정책은 한 번 채택되면 국가재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현 시점에서 장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필요
 - NABO 재정전망은 정부가 제시한 정책과제들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10년 간의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지표의 변화를 추정
- 2018년 NABO 재정전망 기간은 과거 재정전망의 전망기간 5년보다 5년 더 확대된 10년(2018~2027년)
 - 정책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과거보다 좀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10년 기간에 대한 재정전망을 처음 실시
- NABO 기준선은 2018년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예상되는 향후 10년 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지표의 전망치
 - NABO 기준선은 정책변화로 인한 재정의 영향을 측정하는 비교기준으로서의 역할
- NABO 재정전망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실시
 - (과거 추세와 비교) 장래 예상되는 재정영향을 과거 실적과 비교함으로써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기준선과 비교)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총량 수치들을 현행 정책이 지속될 경우 예상되는 기준선(Baseline)인 NABO 기준선과 비교함으로써 정책변화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영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재정수치들과 비교함으로써 정부의 향후 5개년 간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

재정전망 개요

	NABO 기준선	NABO 재정전망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주체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전망기간	2018~2027년(10년)		2018~2022년(5년)
전망기준	2018년 현재 법·제도 등 정책 유지 가정	2019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한 법·제도 등 정책 변화 반영	
주요 전제 및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수입 및 의무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BO 자체 경제지표 전망치 및 추계모형 사용 ▶ 재량지출 증가율 ▶ 지방이전재원 경산 		-
보고서 목차	Part I. NABO 재정전망 개요		-
	Part II. NABO 재정전망 결과 NABO 재정전망 vs. NABO 기준선 비교(10년)		-
	-	Part III.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NABO 재정전망 vs. 국가재정운용계획비교(5년)	-

2. 재정전망 방식

- 총수입과 총지출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한 후, 전망기간 10년 간 연도별 소요액을 직접 추계하여 합산하는 방식
 -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으로 구분하여 전망
 - 국세수입은 내국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 교육세 등으로 구성되고, 국세외수입은 세외수입(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수입(사회보장기여금) 등으로 구성
 - 각 세목별 전망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 등 경제지표를 이용하고, 세부적으로는 과세대상자 수, 소득신고율, 실효세율 등 세목별 핵심변수에 대해 과거 추이 및 당해연도 세수실적 등을 반영하여 전망
 - 2018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추정하여 반영

-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여 전망
 - 의무지출은 복지분야 의무지출,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기타 의무지출로 구성
 - 주요 의무지출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등의 경제변수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변수 및 각 사업별로 핵심이 되는 변수들로 구성된 자체 추계모형을 이용하여 전망
 - 재량지출은 2018~2022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부계획과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반영하고, 2023~2027년은 증가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관리재정수지로 구분하여 전망
 -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하고,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하여 산출
- 국가채무는 적자성 채무, 금융성 채무, 지방정부 순채무의 합으로 산출
 - 적자성 채무는 전년도의 적자성 채무에 당해 연도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되는 방식으로 전망
 - 다만, 누적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국고채 증가분의 비율을 반영하여 적용

3. 재정전망을 위한 기본 전제

가. 경제 변수

□ 경제변수는 NABO의 2018~2027년 거시경제 전망 사용

「NABO 재정전망」: 주요 경제변수

(단위: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평균
경상GDP성장률	3.7	4.3	4.6	4.6	4.5	4.5	4.5	4.4	4.3	4.2	4.4
실질GDP성장률	2.7	2.7	2.8	2.8	2.7	2.7	2.7	2.6	2.5	2.4	2.7
취업자 수 증가율	0.4	0.8	0.9	0.9	0.8	0.7	0.4	0.2	0.1	0.1	0.5
실업률	3.8	3.8	3.7	3.7	3.8	3.8	3.8	3.8	3.8	3.8	3.8
소비자물가상승률	1.6	1.8	1.9	1.9	1.9	2.0	2.0	2.0	2.0	2.0	1.9
국고채금리(3년만기)	2.2	2.4	2.6	2.6	2.6	2.5	2.5	2.4	2.4	2.4	2.5
GDP디플레이터	1.0	1.6	1.8	1.8	1.8	1.8	1.8	1.8	1.8	1.8	1.7

- 경상GDP성장률은 NABO 재정전망의 전망기간(2018~2027년) 동안 평균 4.4% 전망
 - 실질GDP는 NABO 재정전망의 전망기간 동안 평균 2.7% 성장 전망

-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18~2027년 기간 평균 0.5%(14.7만명)로 지난 2008~2017년 기간 평균 증가율 1.3%(31.6만명)에 비해 둔화 전망
 - 실업률은 2018년 3.8%에서 2020~2021년 3.7%로 하락하고 2022년부터 3.8%로 소폭 상승한 후 그 수준 유지 전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8~2027년 동안 평균 1.9%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물가 기조에서 벗어나 통화당국의 중기물가안정목표치(2%) 근접 전망
 - 다만, 국제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변동성이 높은 공급 측 충격요인은 소비자 물가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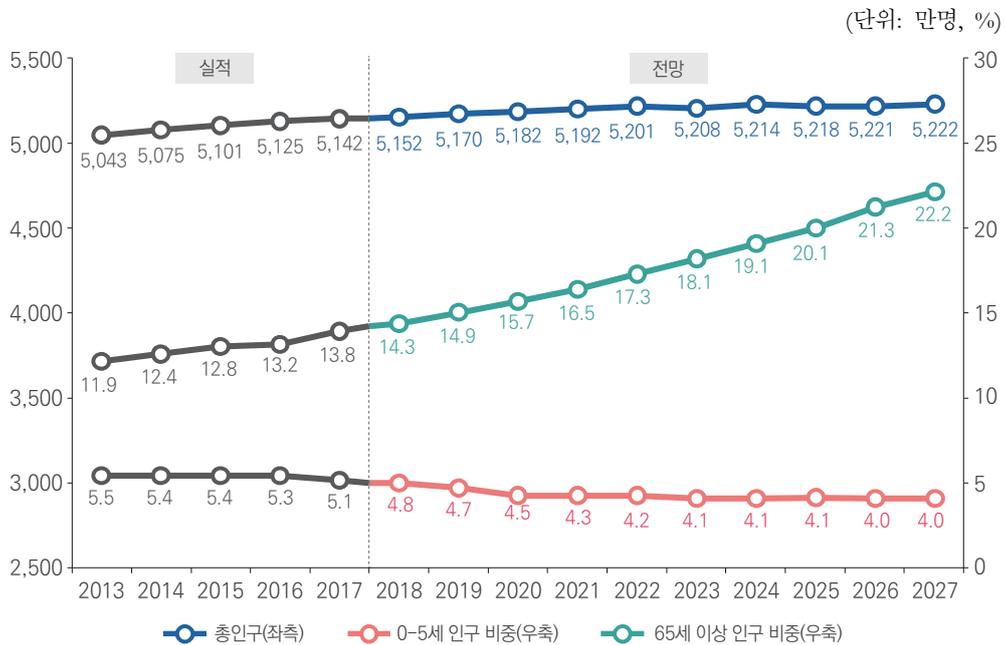
-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2022년까지 상승흐름을 보이고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함으로써 2018~2027년 동안 평균 2.5% 수준 전망
 - 중기적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세계금리 상승에 따라 국내금리도 완만한 오름세 보일 전망
 - 다만, 국내경기와 물가여건 등을 고려할 때 국내금리는 제한적인 상승 전망

나. 인구 변수

-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2015~2065년 장래 인구추계」 중 2018~2027년 자료에 기초하여 전망
 - 2018년은 합계출산율 1.05명을 적용하고 2019~2027년은 합계출산율 저위 가정이 반영된 장래인구추계 전망 자료 사용(단, 기대수명·국제순이동은 중위)
 - 통계청의 2017년 잠정 합계출산율(1.05명) 발표(2018.2.28.)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반영

- 총인구는 2018년 5,152만명에서 2027년 5,222만명으로 평균 0.2%씩 증가 전망
 - 0~5세 인구는 2018~2027년 기간 246만명(총인구 대비 4.8%)에서 209만명(총인구 대비 4.0%)으로 연평균 1.8% 감소 전망
 - 65세 이상 인구는 2018년 738만명(총인구 대비 14.3%)에서 2027년 945만명(총인구 대비 22.2%)으로 연평균 5.1% 증가
 - 2025년 65세 이상 인구는 총인구 대비 20.1%가 되면서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장래인구추계: 2013~2027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다. 주요 정책 변화 및 가정

- 총수입 중 국세수입 전망을 위해 가정한 주요 정책변화는 근로장려금(EITC) 및 자녀장려금(CTC) 지급 확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2018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항목
 - 총수입 중 국세수입에 해당하는 정책변화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요건 완화·지급금액 확대, 자녀세액공제 대상 추가, 고용증대세제 확대, 각종

설비투자세액 공제율 조정, 발전용 유연탄·LNG 개별소비세율 변경, 노후 경유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¹⁾ 체납가산금 세율 인하, 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등

- 총수입 중 국세외수입에 해당하는 정책변화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1.3% → 1.6%) 등

□ 총지출 전망에 포함된 주요 정책변화는 기초생활보장 확대,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인상,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인상 등

- 기초생활보장의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교육급여 급여수준 인상, 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금 증가,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지출 증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인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등
- 재량지출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계획이 정부의 재정정책 추진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수준으로 NABO 재정전망에 반영
 - 다만, 정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종료(2019년) 후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재량지출로 분류하고 있으나, NABO는 이를 지출성격 상 의무지출로 보고, 2020~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에서 동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반영

1) 정부가 2018년 8월 31일 제출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준으로 분석

II. 「201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결과

1. NABO 재정전망 개요

- 전망 결과, 총수입은 2018년 463.5조원에서 2027년 670.7조원으로 연평균 4.2% 증가, 총지출은 2018년 432.7조원에서 2027년 699.5조원으로 연평균 5.5% 증가
 - 의무지출은 2018년 217.0조원에서 2027년 385.5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의 비중은 2018년 50.2%에서 2027년 55.1%로 증가
 - 재량지출은 2018년 215.7조원에서 2027년 314.1조원으로 연평균 4.3% 증가, 총지출에서 재량지출의 비중은 2018년 49.8%에서 44.9%로 감소
-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 -11.8조원에서 2027년 -57.4조원으로 적자폭 증가, 국가채무는 2018년 685.2조원에서 2027년 1,233.7조원으로 증가
 -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18년 38.2%에서 2027년 46.4%로 증가

「NABO 재정전망」: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GDP 대비 비율)	463.5 (25.8)	483.7 (25.8)	505.0 (25.8)	526.5 (25.7)	549.6 (25.7)	574.1 (25.6)	597.1 (25.5)	621.5 (25.4)	645.8 (25.3)	670.7 (25.2)	4.2
국세수입	289.9	302.6	317.0	331.9	348.3	366.1	382.0	398.8	415.5	432.6	4.5
국세외수입	173.5	181.1	188.0	194.5	201.3	208.0	215.1	222.7	230.3	238.1	3.6
총지출 (GDP 대비 비율)	432.7 (24.1)	474.5 (25.3)	518.6 (26.5)	540.0 (26.4)	568.5 (26.5)	591.1 (26.4)	617.4 (26.4)	645.1 (26.4)	672.1 (26.3)	699.5 (26.3)	5.5
의무지출 (총지출 대비 비율)	217.0 (50.2)	245.7 (51.8)	272.3 (52.5)	279.5 (51.8)	295.5 (52.0)	309.9 (52.4)	327.8 (53.1)	347.2 (53.8)	366.1 (54.5)	385.5 (55.1)	6.6
재량지출 (총지출 대비 비율)	215.7 (49.8)	228.8 (48.2)	246.4 (47.5)	260.5 (48.2)	273.0 (48.0)	281.2 (47.6)	289.6 (46.9)	297.9 (46.2)	306.1 (45.5)	314.1 (44.9)	4.3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30.8 (1.7)	9.2 (0.5)	-13.7 (-0.7)	-13.5 (-0.7)	-19.0 (-0.9)	-17.0 (-0.8)	-20.3 (-0.9)	-23.6 (-1.0)	-26.3 (-1.0)	-28.8 (-1.1)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1.8 (-0.7)	-33.3 (-1.8)	-54.0 (-2.8)	-51.5 (-2.5)	-54.9 (-2.6)	-54.3 (-2.4)	-55.6 (-2.4)	-56.3 (-2.3)	-57.0 (-2.2)	-57.4 (-2.2)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685.2 (38.2)	723.8 (38.7)	788.2 (40.2)	843.5 (41.2)	897.1 (41.9)	962.8 (43.0)	1,029.7 (44.0)	1,097.2 (44.9)	1,165.3 (45.7)	1,233.7 (46.4)	6.8

□ 재정전망은 10년(2018~2027년) 간 기준선에 비해 총수입 6.3조원, 총지출 153.3조원 각각 초과

□ 재정전망이 기준선을 초과하는 총지출액(153.3조원)이 총수입액(6.3조원)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국가채무는 재정전망이 기준선에 비해 2027년 129.7조원 초과 발생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 전망 (A)	총수입 (GDP 대비 비율)	463.5 (25.8)	483.7 (25.8)	505.0 (25.8)	526.5 (25.7)	549.6 (25.7)	574.1 (25.6)	597.1 (25.5)	621.5 (25.4)	645.8 (25.3)	670.7 (25.2)	4.2
	총지출 (GDP 대비 비율)	432.7 (24.1)	474.5 (25.3)	518.6 (26.5)	540.0 (26.4)	568.5 (26.5)	591.1 (26.4)	617.4 (26.4)	645.1 (26.4)	672.1 (26.3)	699.5 (26.3)	5.5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30.8 (1.7)	9.2 (0.5)	-13.7 (-0.7)	-13.5 (-0.7)	-19.0 (-0.9)	-17.0 (-0.8)	-20.3 (-0.9)	-23.6 (-1.0)	-26.3 (-1.0)	-28.8 (-1.1)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1.8 (-0.7)	-33.3 (-1.8)	-54.0 (-2.8)	-51.5 (-2.5)	-54.9 (-2.6)	-54.3 (-2.4)	-55.6 (-2.4)	-56.3 (-2.3)	-57.0 (-2.2)	-57.4 (-2.2)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685.2 (38.2)	723.8 (38.7)	788.2 (40.2)	843.5 (41.2)	897.1 (41.9)	962.8 (43.0)	1,029.7 (44.0)	1,097.2 (44.9)	1,165.3 (45.7)	1,233.7 (46.4)	6.8
NABO 기준선 (B)	총수입 (GDP 대비 비율)	463.5 (25.8)	484.9 (25.9)	505.3 (25.8)	526.9 (25.7)	549.1 (25.6)	572.5 (25.6)	596.0 (25.5)	620.1 (25.4)	644.1 (25.2)	668.7 (25.1)	4.2
	총지출 (GDP 대비 비율)	432.7 (24.1)	466.6 (24.9)	500.7 (25.6)	517.5 (25.3)	544.0 (25.4)	568.6 (25.4)	597.8 (25.5)	628.4 (25.7)	659.1 (25.8)	690.9 (26.0)	5.3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30.8 (1.7)	18.3 (1.0)	4.7 (0.2)	9.4 (0.5)	5.1 (0.2)	3.9 (0.2)	-1.8 (-0.1)	-8.3 (-0.3)	-15.0 (-0.6)	-22.2 (-0.8)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1.8 (-0.7)	-23.1 (-1.2)	-35.1 (-1.8)	-28.1 (-1.4)	-30.4 (-1.4)	-33.0 (-1.5)	-36.5 (-1.6)	-40.5 (-1.7)	-45.1 (-1.8)	-50.1 (-1.9)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685.2 (38.2)	716.2 (38.3)	763.7 (39.0)	800.5 (39.1)	836.6 (39.1)	882.8 (39.4)	932.2 (39.8)	985.2 (40.3)	1,042.3 (40.9)	1,104.0 (41.5)	5.4
차 이 (A-B)	총수입	0.0	-1.2	-0.4	-0.4	0.4	1.7	1.1	1.4	1.7	2.0	합계 6.3
	총지출	0.0	7.9	18.0	22.5	24.5	22.5	19.6	16.7	13.0	8.6	153.3
	통합재정수지	0.0	-9.1	-18.3	-23.0	-24.1	-20.9	-18.5	-15.3	-11.3	-6.7	-147.0
	관리재정수지	0.0	-10.2	-19.0	-23.4	-24.5	-21.4	-19.0	-15.9	-12.0	-7.4	-152.7
	국가채무	0.0	7.6	24.5	43.0	60.5	80.1	97.5	112.0	123.0	129.7	

2. 총수입

- 총수입은 2018년 463.5조원에서 2027년 670.7조원으로 연평균 4.2% 증가
 - 국세수입은 2018년 289.9조원에서 2027년 432.6조원으로 연평균 4.5% 증가, 국세외수입은 2018년 173.5조원에서 2027년 238.1조원으로 연평균 3.6% 증가 전망
 -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법인세와 자산관련 세수가 크게 증가하였던 직전 5년(2013~2017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 7.1%와 비교하면 2.6%p 낮지만 경상GDP성장률(2018~2027년 평균 4.4%)과 유사한 수준

「NABO 재정전망」: 총수입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18~'27	'13~'17
총수입 (GDP 대비 비율)	463.5 (25.8)	483.7 (25.8)	505.0 (25.8)	526.5 (25.7)	549.6 (25.7)	574.1 (25.6)	597.1 (25.5)	621.5 (25.4)	645.8 (25.3)	670.7 (25.2)	4.2	4.1
국세수입 (GDP 대비 비율)	289.9 (16.2)	302.6 (16.2)	317.0 (16.2)	331.9 (16.2)	348.3 (16.3)	366.1 (16.3)	382.0 (16.3)	398.8 (16.3)	415.5 (16.3)	432.6 (16.3)	4.5	7.1
국세외수입 (GDP 대비 비율)	173.5 (9.7)	181.1 (9.7)	188.0 (9.6)	194.5 (9.5)	201.3 (9.4)	208.0 (9.3)	215.1 (9.2)	222.7 (9.1)	230.3 (9.0)	238.1 (9.0)	3.6	2.5

- 항목별 GDP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2018년 16.2%에서 2027년 16.3%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국세외수입은 2018년 9.7%에서 2027년 9.0%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 국세수입은 2019년 이후 취업자 증가세 둔화, 부동산 가격안정화, 세법개정안, 수출증가세 둔화 등으로 증가세 둔화 전망
 - 국세외수입은 국민연금 가입자 증가, 임금상승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금의 기여금 수입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를 제외한 세외수입의 낮은 증가율로 인해 전체적으로 국세외수입은 낮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

- 재정전망의 총수입은 기준선 대비 약 6.3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
 - 국세수입은 기준선 대비 11.7조원 세수 감소 예상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급확대, 고용증대세제 확대 등 비과세·감면을 증가시키는 세법개정안의 세수감소효과 영향
 - 국세외수입은 기준선 대비 18.0조원 수입 증가 예상
 -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보험료율 1.3%에서 1.6% 이상 계획 반영 영향

3. 총지출

- 총지출은 2018년 432.7조원에서 2027년 699.5조원으로 연평균 5.5% 증가하여 과거 5년(2013~2017년) 간 연평균 증가율(4.8%)보다 0.7%p 상회 전망
 - 총지출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GDP 대비 총지출 비율도 2018년 24.1%에서 2027년 26.3%로 2.2%p 증가 전망

「NABO 재정전망」: 총지출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18~'27	'13~'17
총지출 (GDP 대비 비율)	432.7 (24.1)	474.5 (25.3)	518.6 (26.5)	540.0 (26.4)	568.5 (26.5)	591.1 (26.4)	617.4 (26.4)	645.1 (26.4)	672.1 (26.3)	699.5 (26.3)	5.5	4.8
의무지출 (GDP 대비 비율)	217.0 (12.1)	245.7 (13.1)	272.3 (13.9)	279.5 (13.6)	295.5 (13.8)	309.9 (13.8)	327.8 (14.0)	347.2 (14.2)	366.1 (14.3)	385.5 (14.5)	6.6	6.2
재량지출 (GDP 대비 비율)	215.7 (12.0)	228.8 (12.2)	246.4 (12.6)	260.5 (12.7)	273.0 (12.7)	281.2 (12.6)	289.6 (12.4)	297.9 (12.2)	306.1 (12.0)	314.1 (11.8)	4.3	3.4
총지출 대비 비중												
의무지출	50.2	51.8	52.5	51.8	52.0	52.4	53.1	53.8	54.5	55.1	-	-
재량지출	49.8	48.2	47.5	48.2	48.0	47.6	46.9	46.2	45.5	44.9	-	-

- 의무지출은 2018년 217.0조원에서 2027년 385.5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하여 2013~2017년 간 의무지출 증가율(6.2%)에 비해 0.4%p 상회 전망
 - 총지출 중 의무지출 비중은 2018년 50.2%에서 2027년에는 55.1%까지 증가
 -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도 2018년 12.1%에서 2027년 14.5%까지 증가 전망
 - 의무지출의 높은 증가율(6.6%)은 특히 사회보장(6.9%), 공적연금(9.4%), 공공부조(7.2%) 등 복지분야 의무지출 증가율(7.8%)이 높게 나타난 결과

- 총지출은 NABO 기준선에 비해 10년(2018~2027년) 간 총 153.3조원의 추가재정소요 증가
 - 항목별로는 의무지출에서 48.3조원, 재량지출에서 105.0조원 발생
 - 의무지출 추가재정소요는 2019년 이후 복지정책 확대 영향
 - 건강보험(12.1조원) 및 고용보험(13.3조원)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5.4조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액 인상(0.5조원) 등
 - 재량지출 추가재정소요는 전망 가정 차이에서 발생
 - 기준선: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11.8%) 유지 가정
 - 재정전망: 2018~2022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반영, 2023년 이후는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 12.7%에서 11.8%까지 점차 감소 가정

4.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30.8조원(GDP 대비 1.7%) 흑자에서 2020년 적자로 전환, 2027년 -28.8조원(GDP 대비 -1.1%)까지 적자폭 확대 전망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의 흑자폭이 전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2018년 42.7조원(GDP 대비 2.4%) → 2027년 28.6조원 (GDP 대비 1.1%)
 - 총지출 증가속도(연평균 증가율 5.5%)가 총수입 증가속도(연평균 증가율 4.2%)보다 높아, 적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NABO 재정전망」: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18~'27	'13~'17
총수입 (GDP 대비 비율)	463.5 (25.8)	483.7 (25.8)	505.0 (25.8)	526.5 (25.7)	549.6 (25.7)	574.1 (25.6)	597.1 (25.5)	621.5 (25.4)	645.8 (25.3)	670.7 (25.2)	4.2	5.2
총지출 (GDP 대비 비율)	432.7 (24.1)	474.5 (25.3)	518.6 (26.5)	540.0 (26.4)	568.5 (26.5)	591.1 (26.4)	617.4 (26.4)	645.1 (26.4)	672.1 (26.3)	699.5 (26.3)	5.5	4.8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30.8 (1.7)	9.2 (0.5)	-13.7 (-0.7)	-13.5 (-0.7)	-19.0 (-0.9)	-17.0 (-0.8)	-20.3 (-0.9)	-23.6 (-1.0)	-26.3 (-1.0)	-28.8 (-1.1)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GDP 대비 비율)	42.7 (2.4)	42.5 (2.3)	40.4 (2.1)	37.9 (1.9)	35.9 (1.7)	37.3 (1.7)	35.2 (1.5)	32.8 (1.3)	30.7 (1.2)	28.6 (1.1)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1.8 (-0.7)	-33.3 (-1.8)	-54.0 (-2.8)	-51.5 (-2.5)	-54.9 (-2.6)	-54.3 (-2.4)	-55.6 (-2.4)	-56.3 (-2.3)	-57.0 (-2.2)	-57.4 (-2.2)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685.2 (38.2)	723.8 (38.7)	788.2 (40.2)	843.5 (41.2)	897.1 (41.9)	962.8 (43.0)	1,029.7 (44.0)	1,097.2 (44.9)	1,165.3 (45.7)	1,233.7 (46.4)	6.8	7.7

- 기준선과 비교하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019년 -0.5%p에서 2022년 -1.1%p로 격차가 커졌다가 이후 2027년 -0.3%p로 격차가 점점 감소
 - 이는 GDP 대비 비율이 재량지출 2018년 12.0%, 2022년 12.7%(최대)에서 2027년 11.8%까지 점차 감소한다는 재정전망의 가정에 따라 총지출 금액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통합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단위: %)



-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 -11.8조원(GDP 대비 -0.7%)에서 2027년 -57.4조원(GDP 대비 -2.2%)으로 적자폭이 점점 확대
 - 이는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4.2%)보다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을 제외한)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5.0%)이 높기 때문
 - NABO 재정전망과 기준선 간 관리재정수지의 차이는 2019년 -10.2조원에서 2022년 -24.5조원까지 확대되었다가 이후 2027년 -7.4조원으로 감소 전망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단위: %)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2018년 42.7조원(GDP 대비 2.4%) 흑자에서 2027년 28.6조원(GDP 대비 1.1%) 흑자로 감소 전망
 -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속도(연평균 증가율 4.1%)보다 지출 증가속도(연평균 증가율 9.2%)가 더 빠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지의 흑자폭 역시 감소 전망
 - 국민연금의 경우, 수지가 2018년 39.8조원(GDP 대비 2.2%) 흑자에서 2027년 27.8조원(GDP 대비 1.0%) 흑자로, 지출이 수입에 비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흑자기조 유지에도 불구하고 흑자폭은 감소 전망
 -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3.8%)에 비해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11.5%)이 7.7%p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것은 수입이 지출보다 약 1.5배 정도 크기 때문

- 고용보험의 경우, 수지가 2018년 0.6조원(GDP 대비 -0.04%) 적자에서 2027년 1.7조원(GDP 대비 -0.05%) 적자로 적자폭 증가 전망
 -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6.1%)보다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6.5%)이 0.4%p 높기 때문

5. 국가채무

-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2018년 685.2조원(GDP 대비 38.2%)에서 2027년 1,233.7조원(GDP 대비 46.4%)으로 연평균 6.8% 증가 전망
 -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은 지난 5년(2013~2017년) 간 국가채무의 연평균 증가율(7.7%)에 비해 0.9%p 감소하여 증가속도가 다소 둔화 전망
 - 국가채무 중 지방정부 순채무²⁾는 2018년 28.9조원에서 2027년 29.7조원으로 연평균 0.3% 증가 전망

「NABO 재정전망」: 국가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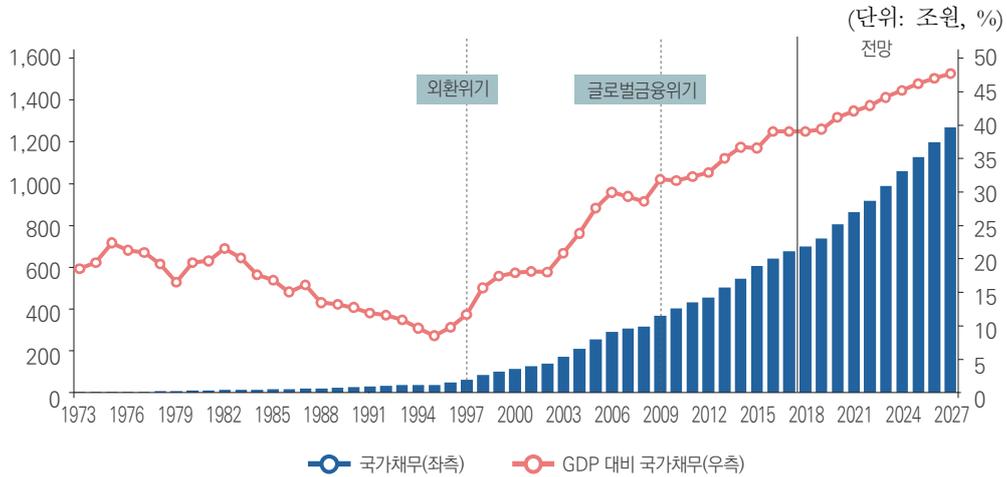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18-'27	'13-'17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685.2 (38.2)	723.8 (38.7)	788.2 (40.2)	843.5 (41.2)	897.1 (41.9)	962.8 (43.0)	1,029.7 (44.0)	1,097.2 (44.9)	1,165.3 (45.7)	1,233.7 (46.4)	6.8	7.7
중앙정부 (GDP 대비 비율)	656.3 (36.6)	694.1 (37.1)	758.5 (38.7)	813.8 (39.7)	867.4 (40.5)	933.1 (41.7)	1,000.0 (42.7)	1,067.5 (43.7)	1,135.6 (44.5)	1,204.0 (45.3)	7.0	7.8
- 적자성 채무 (GDP 대비 비율)	356.1 (19.8)	378.0 (20.2)	428.2 (21.9)	477.2 (23.3)	532.8 (24.9)	557.8 (24.9)	607.7 (26.0)	658.3 (26.9)	709.5 (27.8)	761.1 (28.6)	8.8	10.7
- 금융성 채무 (GDP 대비 비율)	300.2 (16.7)	316.1 (16.9)	330.4 (16.9)	336.6 (16.4)	334.6 (15.6)	375.3 (16.8)	392.4 (16.8)	409.3 (16.7)	426.1 (16.7)	442.9 (16.7)	4.4	4.8
지방정부 순채무 (GDP 대비 비율)	28.9 (1.6)	29.7 (1.6)	29.7 (1.5)	29.7 (1.4)	29.7 (1.4)	29.7 (1.3)	29.7 (1.3)	29.7 (1.2)	29.7 (1.2)	29.7 (1.1)	0.3	6.3

2) 지방정부 순채무는 정부의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준용하여 2018~2019년은 정부안과 동일하지만, 이후는 2019년 기준 지방정부 순채무 규모가 2020~2027년 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 국가채무 규모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다가, 2015년부터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
 - 1994년까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국가채무의 증가(연평균 증가율 18.4%)보다 GDP의 증가(연평균 증가율 22.1%)가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
 - 1994년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GDP의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국가채무 규모는 계속 증가함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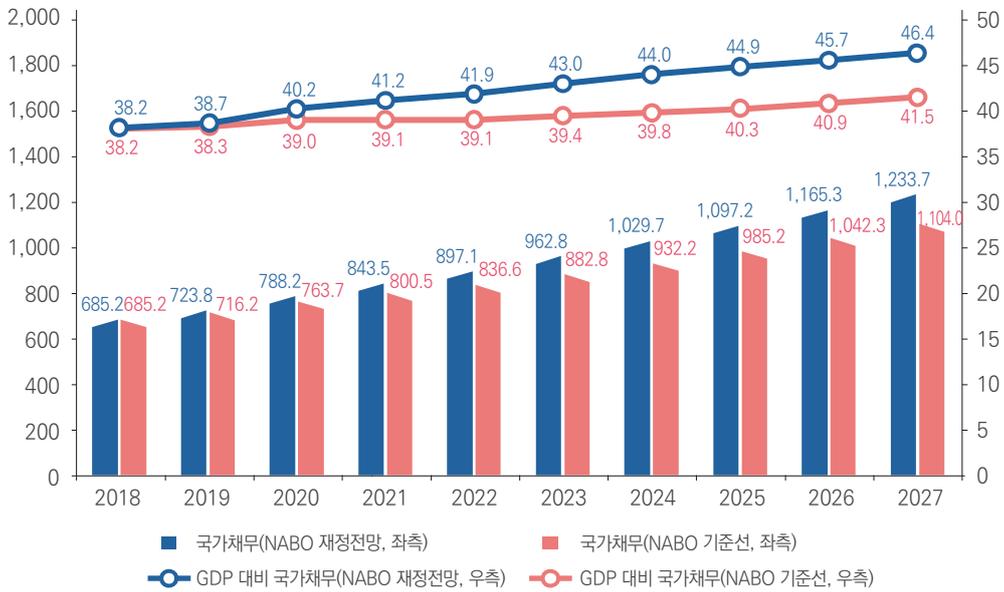
「NABO 재정전망」 국가채무 추이: 1973~2027년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기준선과 비교하면, 2018년은 38.2%로 기준선과 차이가 없으나, 2019년부터 기준선보다 높아져 2027년에는 기준선(41.5%)보다 4.9%p 높은 46.4% 전망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가채무

(단위: 조원, %)



Ⅲ.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

1.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 총수입은 2018~2022년 간 연평균 증가율 5.2% 수준에서 관리
 - 국세수입은 법인 영업실적 개선 및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연평균 6.1% 증가
- 총지출은 2018~2022년 간 연평균 증가율 7.0%로 재정지출 확대
 - 총지출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 확장적 재정운용계획
 - 지난해 제출한 계획(2017~2021년)에서의 총지출 증가율 5.8%(본예산 기준)를 1.2%p 초과
 - 특히, 재량지출의 경우, 향후 5년 간 연평균 6.2% 증가 계획은 지난해 제출한 계획의 4.3%(본예산 기준)를 1.9%p 초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전년대비 증가율)	447.7 (5.8)	481.3 (7.5)	504.1 (4.7)	525.4 (4.2)	547.8 (4.3)	5.2
총지출 (전년대비 증가율)	432.7 (5.5)	470.5 (8.7)	504.6 (7.2)	535.9 (6.2)	567.6 (5.9)	7.0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5.0 (0.8)	10.8 (0.6)	-0.5 (0.0)	-10.5 (-0.5)	-19.8 (-0.9)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31.8 (-1.8)	-33.4 (-1.8)	-44.5 (-2.3)	-54.2 (-2.6)	-63.0 (-2.9)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697.3 (38.9)	741.0 (39.4)	790.8 (40.2)	843.0 (40.9)	897.8 (41.6)	6.5

-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 -31.8조원에서 2022년 -63.0조원까지 적자폭 증가
 -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8년 -1.8%에서 2022년 -2.9% 수준으로, GDP 대비 -3% 내외에서 관리한다는 계획
 -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2018년 0.8%에서 2022년 -0.9%까지 감소
- 국가채무는 확장적 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018년 697.3조원(GDP 대비 38.9%)에서 2022년 897.8조원(GDP 대비 41.6%)으로 증가

2. 「NABO 재정전망」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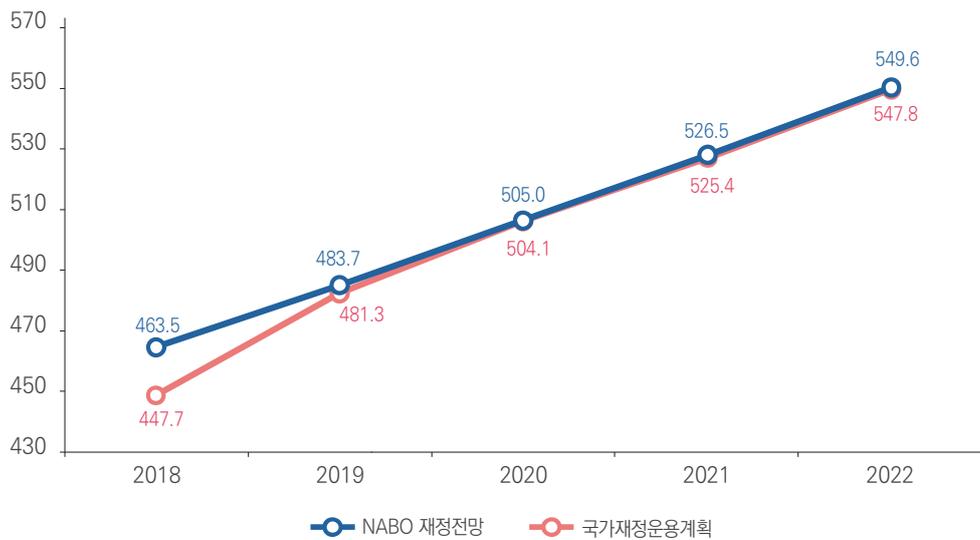
가. 총수입

- NABO 총수입 전망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2018년 15.7조원 높지만, 그 격차가 점차 좁혀지면서 2022년 1.8조원 상회 전망(5년 간 총 21.8조원 상회)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수입은 2018년 447.7조원에서 2022년 547.8조원으로 증가 전망
 - 정부와 NABO 간 차이의 주요 원인은 2018년 국세수입을 NABO가 정부보다 높게 전망한 것과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전망 차이 등에 기인

- 2018년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로 NABO는 2019~2022년 간 누적기준으로 8.6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반면, 정부는 12.3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총수입

(단위: 조원)



- NABO 재정전망과 정부계획 간 국세수입 차이는 2018년 21.8조원에서 2019년 3.3조원으로 그 격차가 감소하다가, 이후 2022년 7.9조원으로 격차가 다시 증가
 - 정부가 전망한 국세수입은 2018년 268.1조원에서 2022년 340.3조원으로 연평균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NABO 전망은 2018년 289.9조원에서 2022년 348.3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 전망
 - NABO의 국세수입 증가율이 정부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 전망액이 정부보다 높은 이유는 2018년 NABO의 국세전망액이 예산 대비 21.8조원 초과하기 때문

- 국세외수입의 차이는 2018년 -6.1조원에서 2019년 -0.9조원으로 그 격차가 감소하다가, 이후 2022년 -6.2조원으로 다시 격차가 증가
 - 이는 주로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의 가입자 수 전망 및 거시경제 변수 전망 차이에 기인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총수입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 (A)	총수입	463.5	483.7	505.0	526.5	549.6	4.4
	국세수입	289.9	302.6	317.0	331.9	348.3	4.7
	국세외수입	173.5	181.1	188.0	194.5	201.3	3.8
	국세탄성치	2.51	1.01	1.03	1.02	1.09	1.33
국가재정 운용계획 (B)	총수입	447.7	481.3	504.1	525.4	547.8	5.2
	국세수입	268.1	299.3	312.7	325.7	340.3	6.1
	국세외수입	179.6	182.0	191.4	199.6	207.4	3.7
	국세탄성치	0.26	2.64	0.95	0.87	0.93	1.13
차 이 (A-B)							합계
	총수입	15.7	2.3	0.9	1.1	1.8	21.8
	국세수입	21.8	3.3	4.3	6.2	7.9	43.5
	국세외수입	-6.1	-0.9	-3.4	-5.1	-6.2	-21.7
	국세탄성치	-0.3	-0.1	-0.1	-0.2	-0.3	

나. 총지출

- NABO 총지출 전망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2020년 14.0조원 초과하다가, 이후 그 격차가 점점 감소하여 2022년 0.9조원 초과 전망(5년 총 23.0조원)
 - 정부가 전망한 총지출은 2018년 432.7조원에서 2022년 567.6조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NABO 전망은 2018년 432.7조원에서 2022년 568.5조원으로 연평균 7.1% 증가 전망
 - 의무지출에서 NABO 재정전망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연평균 증가율(7.8%) 보다 0.2%p 높은 8.0% 증가 전망
 - 특히, 지방이전재원(26.2조원), 복지분야 의무지출(3.4조원)에서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큰 차이 발생

- 그 중 2020년 NABO와 정부 간 차이 14.0조원 중 8.8조원은 2018년 세수 전망 차이에 따른 지방이전재원 정산분 처리 가정에 따른 차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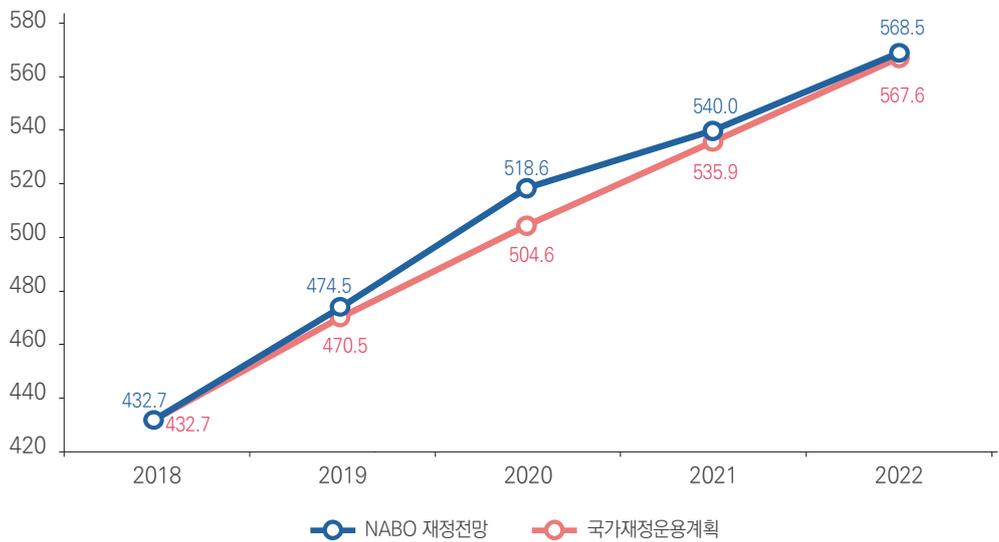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총지출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 (A)	총지출	432.7	474.5	518.6	540.0	568.5	7.1
	의무지출	217.0	245.7	272.3	279.5	295.5	8.0
	재량지출	215.7	228.8	246.4	260.5	273.0	6.1
국가재정 운용계획 (B)	총지출	432.7	470.5	504.6	535.9	567.6	7.0
	의무지출	217.0	241.7	256.4	273.6	292.9	7.8
	재량지출	215.7	228.8	248.3	262.3	274.7	6.2
차 이 (A-B)	총지출	0.0	4.0	14.0	4.1	0.9	23.0
	의무지출	0.0	4.0	15.9	5.9	2.7	28.4
	재량지출	0.0	0.0	-1.9	-1.8	-1.7	-5.4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총지출

(단위: 조원)



- 지방이전재원의 경우,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5년 간 총 26.2조원 상회 전망
 - 지방이전재원 규모를 결정하는 내국세, 담뭏값 개별소비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NABO와 정부 간 전망액 차이에서 지방이전재원 차이 발생
 - 지방이전재원의 정산으로 인한 차이 발생
 - NABO는 2018년 세수 전망액과 예산액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지방이전재원 정산액(8.8조원)을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에 모두 정산한다고 가정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19년에 종료되는 것으로 가정한 반면, NABO 재정전망은 2019년 이후에도 일몰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동 금액만큼 정부 전망을 상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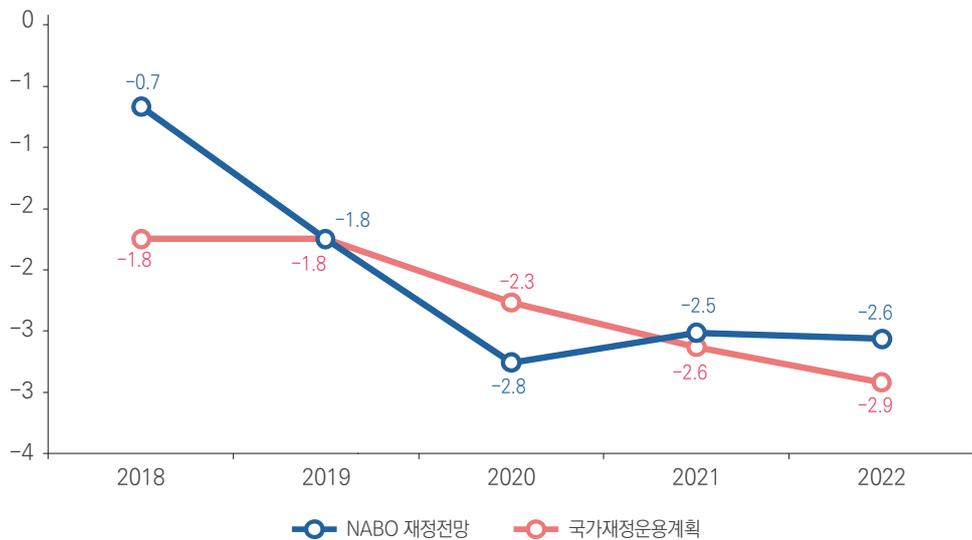
-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경우,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5년 간 총 3.4조원 상회 전망
 - 정부 전망을 상회하는 항목은 국민연금(5년 합계 9.8조원), 공무원연금(5년 합계 2.7조원) 등이며, 거시경제 변수 및 전망 모형 차이가 주요인
 - 정부 전망을 하회하는 항목은 국민기초생활보장(5년 합계 -4.7조원), 기초연금(5년 합계 -2.7조원), 고용보험(5년 합계 -2.4조원) 등이며, 수급자 수, 기준연금액 적용대상자 등 계획 차이 등에 기인

다. 재정수지

-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통합재정수지 차이는 2018년 15.7조원, 2019년 -1.6조원, 2020년 -13.1조원, 2021년 -3.0조원, 2022년 0.8조원으로 나타남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통합재정수지가 2018년 15.1조원(GDP 대비 0.8%) 흑자에서 2022년 19.8조원(GDP 대비 -0.9%) 적자로 전환 전망
 - NABO 재정전망은 통합재정수지가 2018년 30.8조원(GDP 대비 1.7%) 흑자에서 2022년 19.0조원(GDP 대비 -0.9%) 적자로 전환 전망

-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관리재정수지의 차이는 5년 간 총 20.9조원으로, NABO 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적자폭이 낮은 것으로 전망
 - (2018년 지방이전재원 정산분이 반영된) 2020년을 제외하면, NABO가 정부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낮음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NABO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낮은 이유는 NABO의 총지출(사회보장성기금 지출 제외)이 정부보다 5년 간 총 14.6조원 높은데 비해, 총수입(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제외)은 정부보다 5년 간 총 35.5조원 높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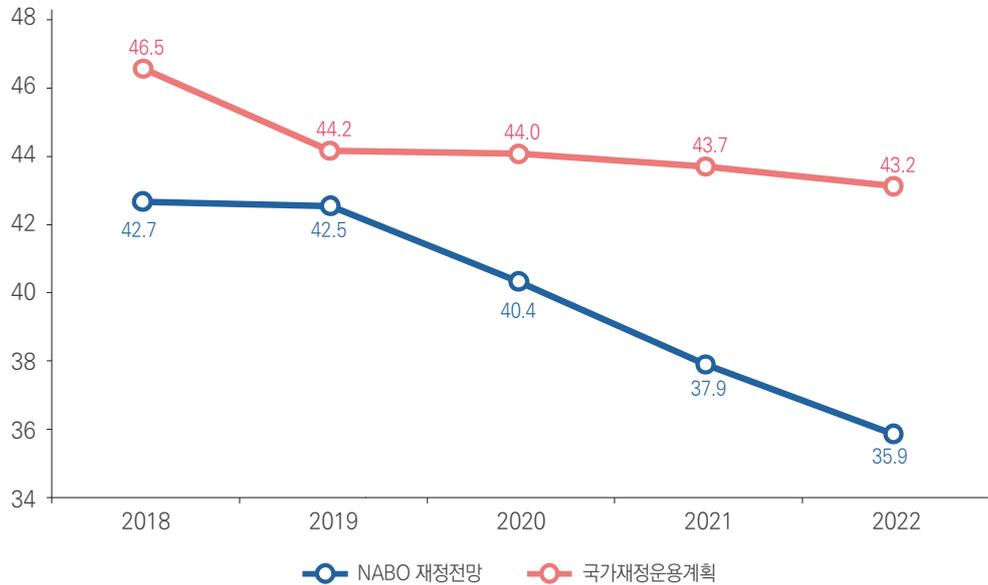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단위: %)



- NABO 재정전망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의 흑자 규모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낮을 것으로 전망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의 흑자 규모를 2018년 46.5조원에서 2022년 43.2조원까지 감소 전망
 - NABO 재정전망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의 흑자 규모를 2018년 42.7조원에서 2022년 35.9조원까지 감소 전망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단위: 조원)



라. 국가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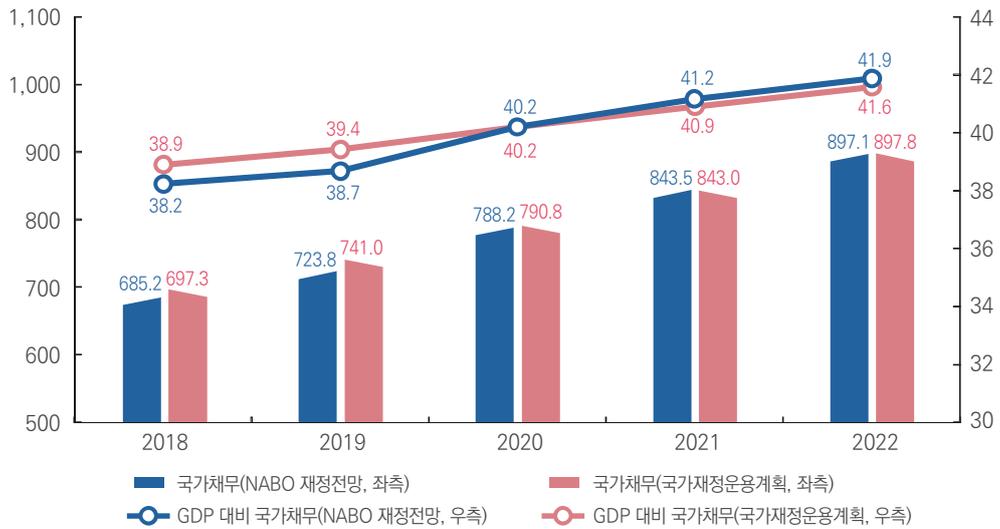
- 국가채무는 (2021년을 제외하고는)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 2022년에는 0.7조원 하회 전망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채무가 2018년 697.3조원에서 2022년 897.8조원으로 연평균 6.5%로 증가 전망한 반면, NABO 재정전망은 국가채무가 2018년 685.2조원에서 2022년 897.1조원으로 연평균 7.0%로 증가 전망
 -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국가채무 차이는 2018년 -12.1조원, 2019년 -17.2조원, 2020년 -2.6조원, 2022년 -0.7조원으로 점차 줄어들

- 국가재정운용계획은 GDP 대비 국가채무가 2022년 41.6%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 반면, NABO 재정전망은 2022년 41.9%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 (정부보다 0.3%p 상회)
 - 2018년 및 2019년에 NABO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정부보다 낮은 것은 주로 정부보다 높은 세수 전망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감소에 기인

- 2020년 이후 NABO가 정부의 국가채무 비율을 상회하는 것은 NABO의 관리 재정수지 적자가 2020년에 크게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그 수준을 유지하고, NABO의 경상GDP 전망액이 정부에 비해 낮은 것에 주로 기인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국가채무

(단위: 조원, %)



I. 「201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개요

1. 재정전망의 의의

지난 9월 3일 정부는 일자리 확충, 혁신성장 투자,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470.5조원 규모의 「2019년도 예산안」(이하 예산안) 및 향후 5년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재원배분계획을 담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의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많은 정책들은 그 집행을 위해 상당한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한 회계연도를 넘어 장래 재정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주요 정책들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변화에 따른 국가재정의 변화를 점검하기 위해 NABO는 매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제시된 정책과제들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의 장래 재정의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2018년 NABO 중기 재정전망」(이하 NABO 재정전망)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된 정책들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장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향후 10년 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지표들의 변화를 전망¹⁾한 것이다. 특히, 이번 NABO 재정전망은 전년도²⁾와 달리 처음으로 전망기간을 10년(2018~2027년)으로 확장하여 전망한다.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기간은 5년이지만, 그 이후에도 새로운 재정정책의 영향이 지속되므로 장래 재정변화를 좀 더 확장된 기간 동안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NABO 재정전망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비교 분석하였다.

- 1) 전망은 장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가정 하에 예상되는 최선의 결과를 추정하는 것으로 현시점에서의 최선의 판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추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향후 경제상황이나 정책변화 등으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 2) 2017~2021년 NABO 재정전망의 전망기간은 5년이었다.

첫째, NABO 재정전망에서는 전망 결과를 과거 실적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재정지표들이 어떻게 변해 왔고, 향후 어떻게 변할지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전망 결과를 2018년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에 발생하는 2018~2027년 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에 대한 전망치의 기준선인 NABO 기준선³⁾과 비교함으로써 현행 정책 유지 시 재정지표들과 향후 정책 변화 시 재정지표들의 움직임을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국가재정운용계획의 5년 간 재원배분계획과 NABO 재정전망의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향후 5개년 계획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 재정전망 개요

	NABO 기준선	NABO 재정전망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주체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전망기간	2018~2027년(10년)		2018~2022년(5년)
전망기준	2018년 현재 법·제도 등 정책 유지 가정	2019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한 법·제도 등 정책 변화 반영 가정	
주요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수입 및 의무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BO 자체 경제지표 전망치 및 추계모형 사용 ▶ 재량지출 증가율 ▶ 지방이전재원 정산 		-
보고서 목차	Part I. NABO 재정전망 개요		-
	Part II. NABO 재정전망 결과 NABO 재정전망 vs. NABO 기준선 비교(10년)		-
	-	Part III.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비교 NABO 재정전망 vs. 국가재정운용계획(5년)	

3) NABO 기준선은 현행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예상되는 미래의 수입과 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에 대한 전망치를 의미한다. NABO 기준선은 정책변화로 인한 재정의 영향을 측정하는 비교기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규모 등 미래의 재정상태를 진단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2. 재정전망 방식

가. 개요

NABO 재정전망은 정부가 추진하는 현행 정책은 물론,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일자리 확충, 혁신성장 투자, 저출산 대응, 소득분배 개선 등 지출 정책과 세계개편안에 따른 수입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를 가정하여 장래 예상되는 재정변화를 전망한다.

구체적으로 2019년도 예산안,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각종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정책들이 그대로 시행될 것을 가정하고, 수입과 지출의 각 항목별로 10년 간의 소요비용을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한 후 그 결과를 합산하여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전망한다. 단,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거시경제 변화가 다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피드백 효과)는 전망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NABO 기준선은 전망 시점인 2018년에 이미 확정되어 시행 중이거나 연내에 시행이 예정된 정책과 제도가 향후 10년 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전망한다. 따라서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은 재정전망에 반영된 새로운 정책과 제도 등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전망방법을 적용하게 된다. 이로써 NABO 기준선은 NABO 재정전망에 반영된 정책 및 세법개정안의 재정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비교 기준이 되고, NABO 재정전망의 결과는 전망에 따른 재정효과를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 NABO 기준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기술한다.

나. 항목별 전망 방법

(1) 총수입

총수입은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전망⁴⁾을 기초로,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별로 추계한 결과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국세수입은 내국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국세외수입은 국민연금기금(이하 국민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이하 사학연금), 고용보험기금(이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산재보험)

4)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및 중기 경제전망」(2018.10.)

등의 사회보장기여금,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용자회수,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전망한다.

각 세목별 전망은 기본적으로 경제성장률과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를 이용하고, 세부적으로는 과세자 수, 소득신고율, 실효세율 등 세목별 핵심변수에 대하여 과거 추이 및 당해연도 세수실적 등을 반영하여 전망한다.

(2) 총지출

총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한다. 의무지출은 법률에서 지출요건 및 규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무지출 항목별 추계를 한 뒤 합산한다. 각 의무지출 항목은 인구변수, 경제변수 및 제도변수 등이 반영된 각각의 추계모형을 통해 전망한다.

재량지출은 의무지출과 달리, 법률에 지출규모를 결정할 수 있는 지출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을 통해 확정되므로 의무지출처럼 각 항목별로 전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전망기간이 동일한 2018~2022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과 재정전망의 재량지출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2023년 이후 기간은 재량지출이 GDP 대비 일정비율을 보인다고 가정하여 전망한다.⁵⁾

[표 2]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구분

	의무지출	재량지출
근거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3
지출 발생요인	정부의 지출의무가 명시된 재정수반법률	사업추진 근거법 등
지출 규모	법령에 의해 결정	국회심의에 의해 결정
예산 변경방법	재정수반법령의 제·개정(입법과정)	예산심의 과정에서 규모 조정
예산안 심사관점	편성규모의 정확성 등	정책(사업)과 규모의 타당성 등

자료: 김춘순,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2018.

5) 구체적인 재량지출 전망 가정은 '3. 재정전망을 위한 기본 전제-다. 주요 정책 변화 및 가정-(2)총지출-(나)재량지출' 부분에서 기술하고 있다.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로 구분된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비율을 통해 균형수지의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때 모수가 되는 경상GDP는 NABO가 전망한 수치를 사용한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의 합으로 산출된다. 중앙정부 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분되는데,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분과 공적자금 국채전환, 지방정부 순채무 등으로 구성되고, 금융성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용과 서민주거 안전용 등으로 구성된다. NABO 재정전망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국가채무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 과거 적자성 채무에 누적하는 방식으로 전망한다.

3. 재정전망을 위한 기본 전제

가. 경제변수

재정전망에 필요한 주요 거시경제변수는 NABO의 2018~2027년 거시경제 전망⁶⁾을 사용한다.

실질GDP는 2018~2027년 기간 중 평균 2.7%, 경상GDP는 같은 기간 평균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GDP의 평균 성장률 2.7%는 이전 5년(2013~2017년)의 3.0%에 비해 0.3%p 낮은 것으로서, 세계경제 성장세로 총수출 및 민간소비는 이전 5년에 비해 높아질 전망이지만,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이전 5년에 비해 하락세로 전망되면서 전반적 투자부진이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6) NABO는 매년 발표하는 5년 전망(「2019년 및 중기 경제전망」)을 10년으로 확장하여 거시경제변수를 전망하였으며, 이를 10년(2018~2027년) 재정전망에 사용하였다.

[표 3] NABO 재정전망을 위한 기본전제: 주요 경제변수

(단위: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평균
실질GDP성장률	2.7	2.7	2.8	2.8	2.7	2.7	2.7	2.6	2.5	2.4	2.7
경상GDP성장률	3.7	4.3	4.6	4.6	4.5	4.5	4.5	4.4	4.3	4.2	4.4
실업률	3.8	3.8	3.7	3.7	3.8	3.8	3.8	3.8	3.8	3.8	3.8
취업자 수 증가율	0.4	0.8	0.9	0.9	0.8	0.7	0.4	0.2	0.1	0.1	0.5
소비자물가상승률	1.6	1.8	1.9	1.9	1.9	2.0	2.0	2.0	2.0	2.0	1.9
국고채금리(3년 만기)	2.2	2.4	2.6	2.6	2.6	2.5	2.5	2.4	2.4	2.4	2.5
GDP디플레이터	1.0	1.6	1.8	1.8	1.8	1.8	1.8	1.8	1.8	1.8	1.7

취업자 수 증가율은 2018~2027년 평균 0.5%(14.7만명)로서, 지난 2008~2017년(31.6만명, 1.3%)에 비해 증가폭이 둔화될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의 둔화와 더불어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과거에 비해 실업률이 완만히 상승(2013~2017년 3.5%)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을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2018년 3.8%에서 2020~2021년 3.7%로 하락하고 2022년 3.8%로 소폭 상승한 후 그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2018~2027년 기간 중 소비자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물가 기조에서 서서히 벗어나 통화당국의 중기물가안정목표치 수준인 2%에 근접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8년 1.6%수준에서 2023년 2.0%에 도달한 후 동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제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변동성이 높은 공급측 충격 요인은 소비자물가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여전히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2027년 기간 중 국고채금리(3년 만기)는 2022년까지 상승흐름을 보이고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며 연평균 2.5%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중기적으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세계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국내금리도 완만한 오름세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국내경기와 물가여건 등을 고려할 때 국내금리는 제한적인 상승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률 둔화추세에 따라 완만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나. 인구변수

NABO 재정전망은 2016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한다. 다만, 통계청은 지난 2월 28일 2017년 잠정 합계출산율이 1.05명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합계출산율 가정 중 저위7)에 해당하는 1.14명(2017년 기준)보다도 0.09명 낮은 수치이다. 이와 같이 낮은 출산율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경우 당장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에 변화를 가져와 정부 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번 NABO 재정전망에서는 출산율 변화에 민감한 재정사업의 경우 저출산 요인이 반영될 수 있도록, 2017년 및 2018년은 합계출산율 1.05명을 반영하고 2019~2027년은 저위 합계출산율을 반영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한다(단, 기대수명·국제순이동은 중위 가정).

[표 4] NABO 재정전망을 위한 기본전제: 주요 인구변수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평균
총인구 증가율(%)	0.2	0.3	0.2	0.2	0.2	0.1	0.1	0.1	0.1	0.0	0.2
합계출산율(명)	1.05	1.11	1.10	1.10	1.09	1.08	1.08	1.07	1.07	1.07	1.08
출생률(인구 천명당 %)	7.3	7.1	7.0	6.9	6.8	6.7	6.7	6.7	6.7	6.6	6.9
사망률(인구 천명당 %)	5.9	6.1	6.2	6.4	6.6	6.8	7.0	7.1	7.3	7.5	6.7
0~5세 인구 비중(%)	4.8	4.7	4.5	4.3	4.2	4.1	4.1	4.1	4.0	4.0	4.3
65세 이상 인구 비중(%)	14.3	14.9	15.7	16.5	17.3	18.1	19.1	20.1	21.3	22.2	17.9

주: 2017년과 2018년은 합계출산율 1.05명, 2019~2027년은 합계출산율 저위가정을 반영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작성한 표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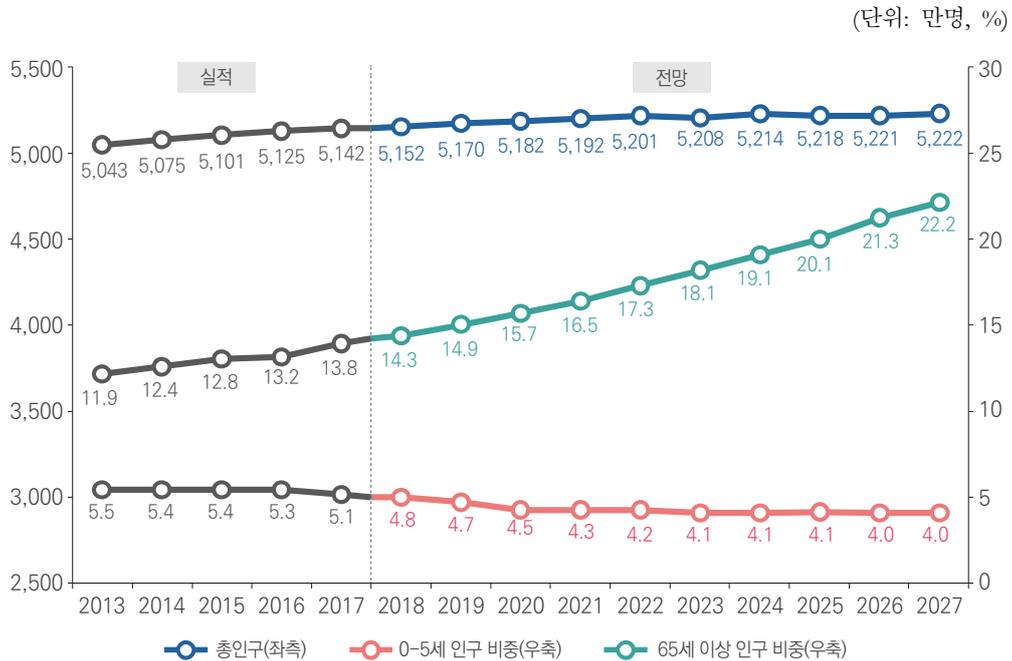
NABO 재정전망에 적용한 2018~2027년 간 총인구 수는 2018년 5,152.3만명에서 2027년 5,222.0만명으로, 평균 0.2%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8~2022년 간 총인구 평균 증가율은 0.2% 수준이지만 2023~2026년 간은 0.1% 수준으로 감소하고 2027은 0.03%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인구 증가세 둔화는 출생아를 포함한 0~5세 영유아 수 감소가 주요인이다.

7)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결과를 발표할 때, 전망에 적용되는 주요 변수인 합계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에 대해 각각 중위, 고위, 저위로 구분한 시나리오별 결과를 함께 발표한다.

출생아 수의 경우 2018년 37.8만명(합계출산률 1.05명)에서 2027년 34.6만명(합계출산률 1.07명)으로 연평균 1.0% 감소하고 0~5세 영유아의 수는 2018년 246.4만명에서 2027년 208.8만명으로 연평균 1.8%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와 같은 감소추세는 2013~2017년 연평균 1.7% 감소하였던 것에 비해 0.1%p 높은 것이다. 0~5세 영유아수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총인구 대비 영유아수 비중도 2018년 4.8%에서 2027년 4.0%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65세 이상 인구는 2018년 738.1만명에서 2027년 944.9만명으로 연평균 5.1%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2013~2017년 연평균 4.1%에 비해 1.0%p 높은 증가율이다. 65세 이상 인구(노인)의 빠른 증가세에 따라 총인구에서 노인인구 비중도 2018년 14.3%에서 2027년 22.2%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에 이르면 노인인구 비중이 20.1%가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⁸⁾에 진입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림 1] 장래인구추계: 2013~2027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8) UN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면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라 한다.

다. 주요 정책 변화 및 가정

NABO 재정전망은 이미 확정되어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정책은 물론, 정부의 2019년도 예산안,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세법개정안 등에 포함된 주요 정책들이 채택되어 시행될 것이라고 가정하여 전망한다.

(1) 총수입

총수입 중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변화로는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확대, 청년고용증대세제 확대, 발전용 유연탄·LNG 세율 조정,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⁹⁾ 등이 있고, 사회보장성기금 등 국세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는 고용보험료율 인상이 있다. 국세수입 중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포함된 일몰기한은 이에 대한 개정안 발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전망한다.

국세외수입의 경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모성보호육아지원 확대에 따른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 계획(1.3% → 1.6%)을 반영하여 전망한다. 그 외 정책변화가 없는 세외수입 항목은 현행 정책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전망한다.

[표 5] 주요 정책변화 및 가정: 총수입 부문

주요 정책변화 및 가정	
국세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제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장려금 연령요건 폐지, 소득요건 완화(85/200/250만원 → 150/260/300만원) 및 지급액 상향 조정 - 자녀장려금 지급액 상향(30~50만원 → 50~70만원) 및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도 자녀장려금 중복 허용 -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대상 소득기준 완화(2,400만원 미만 → 3,000만원 미만)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및 세율인상(정부안 기준) - 발전용유연탄과 LNG의 개별소비세 등 체세부담금 조정 - 노후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70%)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신설 - 신성장 기술관련 세액공제 확대 - 설비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조정 ○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일몰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을 가정하여 산정 - 대표적인 항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서지방 석유류 간접세 감면,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택시용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국세외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모성보호육아지원 확대에 따른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1.3% → 1.6%)

9) 정부가 2018년 8월 31일 제출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2) 총지출

정부는 공공 및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정책 변화를 2019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가) 의무지출

의무지출 중 복지분야에서 2019년도 이후 정책변화가 있는 항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등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소득기준 상향 및 기준임차료 인상 계획이 있다. 고용보험 중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를 연장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등은 월 상한액을 인상하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재원 마련 등을 위해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고 건강보험료율에 연동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인상될 계획이다.¹⁰⁾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 중 저소득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연금은 저소득층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기초급여액을 2018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의무지출 중 지방이전재원은 내국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 전망치에 현행 법률에서 정한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므로 정부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효과에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세수실적에 연동되는 지방이전재원의 특성 상 세수가 확정되면 정산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지방교부세법」¹¹⁾ 및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지방이전재원은 2년 뒤까지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18년 예산의 지방이전재원 규모와 NABO의 국세 전망치에 따른 지방이전재원 규모와의 차이로 인한 정산액은 2년 뒤인 2020년에 일괄 정산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오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면 이에 연동하여 증가하게 된다.

11) 「지방교부세법」 5조(예산 계상) ③ 다음 각 호의 교부세 차액은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국가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1. 내국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2. 종합부동산세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교부세의 차액
3.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예산액과 그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

한편 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¹²⁾ 지방교육재정교부금,¹³⁾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¹⁴⁾로 구성되는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경우 2019년까지 운영되는 한시법이므로 2020년 이후 전망을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번 NABO 재정전망에서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누리과정을 위한 특별회계임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몰이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한다.¹⁵⁾

[표 6] 주요 정책변화 및 가정: 총지출(의무지출) 부문

주요 정책변화 및 가정	
복지분야 의무지출	
국민기초생활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을 2018년 중위소득 43% → 2019년 44%로 상향 - 임차가구 기준임차료 인상(2018년 기준임대료에 급지별로 5.0%~9.4%) - 자가 가구 장애인 보수에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추가설치(380만원 한도) 및 고령자 편의시설 별도지원(50만원 한도)
고용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직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정급여일수 30일 연장(90~240일 → 120~270일) - 65세 이후 근로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된 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 급여일액 인상(평균임금의 50% → 60%) - 최저급여일액 조정(일 최저임금액의 90% → 80%) ○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상한액 인상(160만원 → 180만원) ○ 육아휴직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3개월 이후) 소득대체율 확대(통상임금의 40% → 50%), 월 상·하한액 인상(50~100만원 → 70~120만원) - (육아휴직 특례, “아빠의달”): 월 상한액 인상(200만원 → 250만원)

- 12)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9.24%의 해당하는 금액(보통·특별교부세), 종합부동산액 총액(부동산교부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20%(소방안전교부세)이다.
- 1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2016년까지는 내국세 총액의 20.27%와 교육세 전액으로 하였으나 교육세의 경우 2017년부터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년한시) 전입액(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원으로 한다.
- 14)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는 3년 한시(2019년까지) 특별회계로서, 2017년은 누리과정 예산의 78%를 교육세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2%를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후 2018년부터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은 모두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 15) 반면 정부는 2019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관련예산을 교육교부금 및 일반회계에 각각 분산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주요 정책변화 및 가정

고용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2019년 7월 시행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기간 연장(육아휴직 기간 포함하여 통산 1년 이내 → 통산 2년 이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 - 임금 삭감 없는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일 최소 단축 시간 조정(2시간 → 1시간), 최초 1시간 단축 시간에 대한 소득대체율 확대(통상임금의 80% → 100%) 및 월 상한액 인상(150만원 → 20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2019년 7월 시행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한 남성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에게 5일의 급여 지급(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00만원)
건강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이후 매년 3.49%씩 인상. 단, 건강보험료율 8% 상한 규정 적용 ○ 정부지원(일반회계, 건강증진기금) 13.6%
노인장기요양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인상 ○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기초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하위 70% 노인 중 저소득층 노인 기준연금액 인상(현행 25만원 → 30만원)
장애인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저소득층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소득 하위 30%)에 대한 기초급여액 인상(2018년 25만원 → 2019년 30만원)
복지 외 의무지출	
지방이전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세법개정안」 반영 ○ 전망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정산분(NABO 전망치와 정부와의 차액)은 「지방교부세법」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라 2년 뒤인 2020년에 일괄 정산 가정 - 2019년까지 3년간 한시적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개정안 발의 등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

(나) 재량지출

재량지출의 경우 지출의 성격상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출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아, NABO 재정전망에서는 재량지출의 항목별 추계를 하지 않고 2018~2022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재량지출 배분계획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전망한다.¹⁶⁾ 2023~2027년은 현 시점에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을 예측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2018~2022년의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이 6.7%로 2013~2017년(3.2%)의 두 배를 초과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망의 후반부인 2023년 이후는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즉, 2023~2027년의 재량지출은 2022년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 12.7%가 매년 점진적 감소하여 2018년 수준인 11.8%(2018년 본예산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로 수렴한다고 가정하여 전망한다.

한편, NABO 기준선에서는 2018년 본예산 기준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11.8%)이 2019~2027년 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한다.

[표 7] 주요 가정: 총지출(재량지출) 부문

항 목	주요 가정
재량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BO 재정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 금액과 동일하다고 가정 ※ 다만, 정부가 재량지출로 분류하고 있는 2020년 이후 일반회계 누리과정 예산은 동 금액만큼 차감 반영 - 2023~2027년: GDP 대비 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량지출 금액의 비율 12.7%에서 매년 비율이 감소(0.2%p)하여 2027년 11.8%로 수렴 가정 ○ NABO 기준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DP 대비 2018년 본예산 기준 재량지출 금액의 비율 11.8%가 2019~2027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

16) 다만,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9년 종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중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2020년 이후 일반회계에 재량지출로 분류하고 있으나, NABO 재정전망은 누리과정 예산은 지출성격상 의무지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량지출에서 동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반영하였다.

(3) 국가채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일반회계 적자보전분)는 해당연도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증가분을 의미하는데, NABO 재정전망은 국가재정운용 계획 상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채 증가분의 관계가 재정전망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적자성 채무를 전망한다. 2023~2027년도 적자성 채무는 2013~2017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채 증가분의 관계(결산 기준)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전망한다.

[표 8] 주요 가정: 국가채무

항 목	주요 가정
국가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202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산출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국채 증가분의 비율(국채 증가분/관리재정수지 적자) 적용 - 2018년 97.1%, 2019년 74.2%, 2020년 89.2%, 2021년 79.0%, 2022년 71.5% ○ 2023~202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2017년 결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에 대한 국채 증가분의 비율(국채 증가분/관리재정수지 적자) 91.6% 적용

II. 「201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결과

1. NABO 재정전망 개요

가. 재정전망

NABO 재정전망은 2019년도 예산안,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각종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정책이 그대로 시행될 것을 가정하여 향후 10년(2018~2027년) 간 재정변화를 전망하는 것이다.

이번 NABO 재정전망의 결과를 보여주는 재정총량표에 따르면, 총수입은 2018년 463.5조원에서 2027년 670.7조원으로 연평균 4.2% 증가하며, 총지출은 2018년 432.7조원에서 2027년 699.5조원으로 연평균 5.5%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총지출 중 의무지출은 2018년 217.0조원에서 2027년 385.5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하고,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의 비중은 50.2%(2018년)에서 55.1%(2027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표 9] 「NABO 재정전망」: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GDP 대비 비율)	463.5 (25.8)	483.7 (25.8)	505.0 (25.8)	526.5 (25.7)	549.6 (25.7)	574.1 (25.6)	597.1 (25.5)	621.5 (25.4)	645.8 (25.3)	670.7 (25.2)	4.2
국세수입	289.9	302.6	317.0	331.9	348.3	366.1	382.0	398.8	415.5	432.6	4.5
국세외수입	173.5	181.1	188.0	194.5	201.3	208.0	215.1	222.7	230.3	238.1	3.6
총지출 (GDP 대비 비율)	432.7 (24.1)	474.5 (25.3)	518.6 (26.5)	540.0 (26.4)	568.5 (26.5)	591.1 (26.4)	617.4 (26.4)	645.1 (26.4)	672.1 (26.3)	699.5 (26.3)	5.5
의무지출 (총지출 대비 비율)	217.0 (50.2)	245.7 (51.8)	272.3 (52.5)	279.5 (51.8)	295.5 (52.0)	309.9 (52.4)	327.8 (53.1)	347.2 (53.8)	366.1 (54.5)	385.5 (55.1)	6.6
재량지출 (총지출 대비 비율)	215.7 (49.8)	228.8 (48.2)	246.4 (47.5)	260.5 (48.2)	273.0 (48.0)	281.2 (47.6)	289.6 (46.9)	297.9 (46.2)	306.1 (45.5)	314.1 (44.9)	4.3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30.8 (1.7)	9.2 (0.5)	-13.7 (-0.7)	-13.5 (-0.7)	-19.0 (-0.9)	-17.0 (-0.8)	-20.3 (-0.9)	-23.6 (-1.0)	-26.3 (-1.0)	-28.8 (-1.1)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1.8 (-0.7)	-33.3 (-1.8)	-54.0 (-2.8)	-51.5 (-2.5)	-54.9 (-2.6)	-54.3 (-2.4)	-55.6 (-2.4)	-56.3 (-2.3)	-57.0 (-2.2)	-57.4 (-2.2)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685.2 (38.2)	723.8 (38.7)	788.2 (40.2)	843.5 (41.2)	897.1 (41.9)	962.8 (43.0)	1,029.7 (44.0)	1,097.2 (44.9)	1,165.3 (45.7)	1,233.7 (46.4)	6.8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 -11.8조원에서 2027년 -57.4조원으로 적자폭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채무는 2018년 685.2조원에서 2027년 1,233.7조원으로 증가하며, GDP 대비 비율은 38.2%(2018년)에서 46.4%(2027년)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나. 재정전망과 기준선 비교

NABO 재정전망 결과는 현행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재정소요액인 NABO 기준선과 비교한다. NABO 기준선은 전망 시점인 2018년에 이미 확정되어 시행 중이거나 연내에 시행이 예정된 정책과 제도가 향후 10년 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전망하는 것이다. 기준선은 미래의 정책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현행 정책이 유지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재정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경우 그 변화로 인한 재정소요액을 추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따라서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의 차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정책변화로 인한 재정전망액과 2018년도의 정책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의 재정전망액과의 차이를 의미한다. 즉, 그 차이는 예산안 등에 반영된 정책변화로 인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소요액인 것이다.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을 비교한 결과, 총수입은 재정전망이 기준선에 비해 2021년까지는 하회하지만 이후 상회하면서 2018~2027년 간 총 6.3조원 초과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총지출은 재정전망이 기준선에 비해 향후 10년 간 153.3조원 초과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선을 초과하는 재정전망 지출액의 규모가 수입액 초과 규모를 크게 상회함에 따라, 국가채무는 2027년 129.7조원 초과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표 10]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 (A)	총수입 (GDP 대비 비율)	463.5 (25.8)	483.7 (25.8)	505.0 (25.8)	526.5 (25.7)	549.6 (25.7)	574.1 (25.6)	597.1 (25.5)	621.5 (25.4)	645.8 (25.3)	670.7 (25.2)	4.2
	총지출 (GDP 대비 비율)	432.7 (24.1)	474.5 (25.3)	518.6 (26.5)	540.0 (26.4)	568.5 (26.5)	591.1 (26.4)	617.4 (26.4)	645.1 (26.4)	672.1 (26.3)	699.5 (26.3)	5.5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30.8 (1.7)	9.2 (0.5)	-13.7 (-0.7)	-13.5 (-0.7)	-19.0 (-0.9)	-17.0 (-0.8)	-20.3 (-0.9)	-23.6 (-1.0)	-26.3 (-1.0)	-28.8 (-1.1)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1.8 (-0.7)	-33.3 (-1.8)	-54.0 (-2.8)	-51.5 (-2.5)	-54.9 (-2.6)	-54.3 (-2.4)	-55.6 (-2.4)	-56.3 (-2.3)	-57.0 (-2.2)	-57.4 (-2.2)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685.2 (38.2)	723.8 (38.7)	788.2 (40.2)	843.5 (41.2)	897.1 (41.9)	962.8 (43.0)	1,029.7 (44.0)	1,097.2 (44.9)	1,165.3 (45.7)	1,233.7 (46.4)	6.8
NABO 기준선 (B)	총수입 (GDP 대비 비율)	463.5 (25.8)	484.9 (25.9)	505.3 (25.8)	526.9 (25.7)	549.1 (25.6)	572.5 (25.6)	596.0 (25.5)	620.1 (25.4)	644.1 (25.2)	668.7 (25.1)	4.2
	총지출 (GDP 대비 비율)	432.7 (24.1)	466.6 (24.9)	500.7 (25.6)	517.5 (25.3)	544.0 (25.4)	568.6 (25.4)	597.8 (25.5)	628.4 (25.7)	659.1 (25.8)	690.9 (26.0)	5.3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30.8 (1.7)	18.3 (1.0)	4.7 (0.2)	9.4 (0.5)	5.1 (0.2)	3.9 (0.2)	-1.8 (-0.1)	-8.3 (-0.3)	-15.0 (-0.6)	-22.2 (-0.8)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1.8 (-0.7)	-23.1 (-1.2)	-35.1 (-1.8)	-28.1 (-1.4)	-30.4 (-1.4)	-33.0 (-1.5)	-36.5 (-1.6)	-40.5 (-1.7)	-45.1 (-1.8)	-50.1 (-1.9)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685.2 (38.2)	716.2 (38.3)	763.7 (39.0)	800.5 (39.1)	836.6 (39.1)	882.8 (39.4)	932.2 (39.8)	985.2 (40.3)	1,042.3 (40.9)	1,104.0 (41.5)	5.4
차 이 (A-B)	총수입	0.0	-1.2	-0.4	-0.4	0.4	1.7	1.1	1.4	1.7	2.0	합계 6.3
	총지출	0.0	7.9	18.0	22.5	24.5	22.5	19.6	16.7	13.0	8.6	153.3
	통합재정수지	0.0	-9.1	-18.3	-23.0	-24.1	-20.9	-18.5	-15.3	-11.3	-6.7	-147.0
	관리재정수지	0.0	-10.2	-19.0	-23.4	-24.5	-21.4	-19.0	-15.9	-12.0	-7.4	-152.7
	국가채무	0.0	7.6	24.5	43.0	60.5	80.1	97.5	112.0	123.0	129.7	

NABO 재정전망의 항목별 결과 및 기준선과의 비교는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의 순서로 설명한다.

2. 총수입

가. 개 관

NABO 재정전망에 따른 총수입은 2018년 463.5조원에서 2027년 670.7조원으로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2027년 간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4.2%)은 과거 5년(2013~2017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4.1%)과 비교하면 0.1%p 높은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연평균 4.5% 증가하여 총수입의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세외수입은 국세수입보다는 낮은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1] 「NABO 재정전망」: 총수입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18~'27	'13~'17
총수입 (GDP 대비 비율)	463.5 (25.8)	483.7 (25.8)	505.0 (25.8)	526.5 (25.7)	549.6 (25.7)	574.1 (25.6)	597.1 (25.5)	621.5 (25.4)	645.8 (25.3)	670.7 (25.2)	4.2	4.1
국세수입 (GDP 대비 비율)	289.9 (16.2)	302.6 (16.2)	317.0 (16.2)	331.9 (16.2)	348.3 (16.3)	366.1 (16.3)	382.0 (16.3)	398.8 (16.3)	415.5 (16.3)	432.6 (16.3)	4.5	7.1
국세외수입 (GDP 대비 비율)	173.5 (9.7)	181.1 (9.7)	188.0 (9.6)	194.5 (9.5)	201.3 (9.4)	208.0 (9.3)	215.1 (9.2)	222.7 (9.1)	230.3 (9.0)	238.1 (9.0)	3.6	2.5

총수입의 GDP 대비 비율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는 25.8%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부터 국세외수입의 증가세 둔화로 25.7%로 하락한 후 2027년에는 25.2%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항목별로 GDP 대비 비율을 분석하면, 국세수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6.2%를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 16.3%로 소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 반면, 국세외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국세외수입의 증가세 둔화로 2018년 9.7%에서 2027년 9.0%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세제 등이 유지될 경우를 가정한 NABO 기준선의 경우 2018년 463.5조원에서 2027년 668.7조원으로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로 2019~2021년까지는 NABO 재정전망의 총수입이 NABO 기준선의 총수입보다 0.4~1.2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세법개정안에 따른 국세수입의 세수감소가 국세외수입의 세수 증가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 것에 기인한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국세외수입의 정책변화로 인한 수입

증가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NABO 재정전망의 총수입이 NABO 기준선의 총수입보다 0.4~2.0조원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는 NABO 재정전망의 총수입이 NABO 기준선 대비 10년(2018~2027년) 간 총 6.3조원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항목별로 NABO 기준선의 국세수입은 2018~2027년 연평균 4.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법개정안의 정책변화를 반영할 경우 0.1%p 낮은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선 대비로는 10년(2018~2027년) 간 총 11.7조원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세법개정안¹⁷⁾에 포함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급확대, 고용중대세제 확대 등에 기인한다.

NABO 기준선의 국세외수입은 2018~2027년 연평균 3.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책변화를 반영할 경우 0.1%p가 높은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선 대비로는 10년(2018~2027년) 간 총 18.0조원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 상향조정(1.3% → 1.6%) 등 사회보장기여금의 요율 인상에 기인한다.

[표 1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총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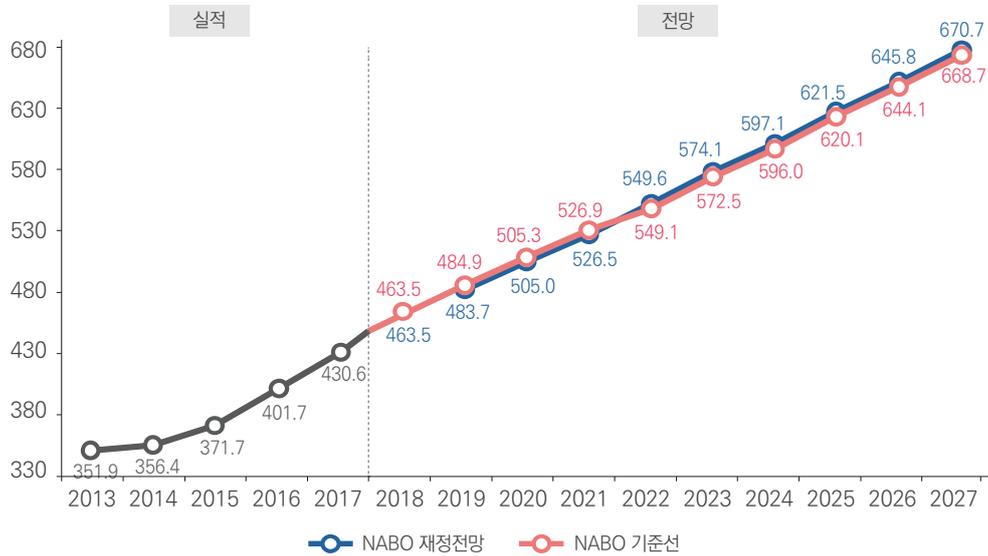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 전망 (A)	총수입 (GDP 대비 비율)	463.5 (25.8)	483.7 (25.8)	505.0 (25.8)	526.5 (25.7)	549.6 (25.7)	574.1 (25.6)	597.1 (25.5)	621.5 (25.4)	645.8 (25.3)	670.7 (25.2)	4.2
	국세수입	289.9	302.6	317.0	331.9	348.3	366.1	382.0	398.8	415.5	432.6	4.5
	국세외수입	173.5	181.1	188.0	194.5	201.3	208.0	215.1	222.7	230.3	238.1	3.6
NABO 기준선 (B)	총수입 (GDP 대비 비율)	463.5 (25.8)	484.9 (25.9)	505.3 (25.8)	526.9 (25.7)	549.1 (25.6)	572.5 (25.6)	596.0 (25.5)	620.1 (25.4)	644.1 (25.2)	668.7 (25.1)	4.2
	국세수입	289.9	305.4	319.1	334.2	349.8	366.4	383.0	399.6	416.1	433.0	4.6
	국세외수입	173.5	179.4	186.3	192.7	199.4	206.0	213.0	220.5	228.0	235.7	3.5
차 이 (A-B)	총수입	0.0	-1.2	-0.4	-0.4	0.4	1.7	1.1	1.4	1.7	2.0	합계 6.3
	국세수입	0.0	-2.8	-2.1	-2.2	-1.5	-0.3	-1.0	-0.8	-0.6	-0.4	-11.7
	국세외수입	0.0	1.6	1.7	1.8	1.9	2.0	2.1	2.2	2.3	2.4	18.0

17) 정부가 2018년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총수입

(단위: 조원)



나. 국세수입

(1) 총괄

국세수입은 2018년 289.9조원에서 2027년 432.6조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의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법인세와 자산관련 세수가 크게 증가¹⁸⁾하였던 직전 5년(2013~2017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 7.1%와 비교하면 2.6%p 낮지만 경상GDP성장률(2018~2027년 연평균 4.4%)과 유사한 수준이다.

주요 세목별로 소득세는 명목임금 상승 전망에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¹⁹⁾ 등으로 인해 직전 5년(2013~2017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 11.9%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급 확대가 소득세수 감소로 작용한 점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18) 2014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자산관련 세수가 급증하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직전 5년(2013~2017년)동안 연평균 22.8%, 증여세의 경우 연평균 13.2% 증가하였다. 또한 법인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2016년과 2017년 전년대비 각각 15.7%, 13.5% 증가하였다.

19) 그동안 세수 호조를 견인하던 부동산 가격은 금리인상의 가능성, 가계부채 부실 위험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점차 안정화 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법인세의 경우 2018년 법인실적 개선에 따라 2019년 전년 대비 11.9%의 증가율을 기록한 후 수출 증가세 둔화와 금리 상승 등 법인의 영업 실적 증가를 제약하는 거시경제변수의 영향으로 2020년 4.9%로 증가세가 둔화되지만 2021~2027년까지는 경상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연평균 4.8% 증가가 예상된다.

반면,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수 증감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경상 민간소비가 2019년부터 2027년까지 4.4~4.6% 수준의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외 거래 중 통관수입 증가율이 2019년 3.1%에서 2027년 1.7%로 지속적인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경상GDP성장률을 하회하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표 13] 「NABO 재정전망」: 국세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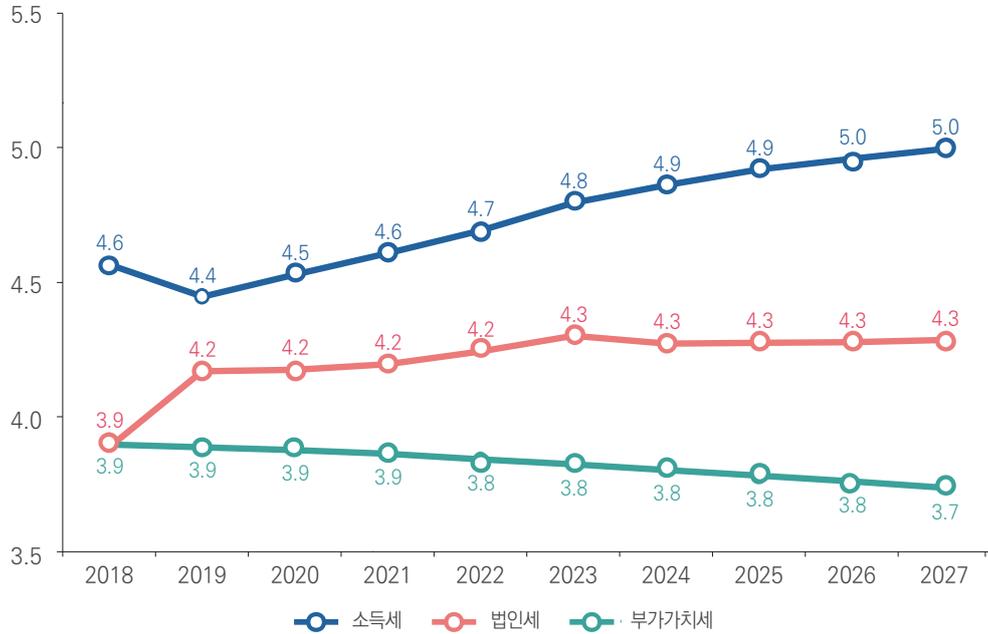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18~'27	'13~'17
국세수입 (GDP 대비 비율)	289.9 (16.2)	302.6 (16.2)	317.0 (16.2)	331.9 (16.2)	348.3 (16.3)	366.1 (16.3)	382.0 (16.3)	398.8 (16.3)	415.5 (16.3)	432.6 (16.3)	4.5	7.1
소득세 (GDP 대비 비율)	81.8 (4.6)	83.1 (4.4)	88.6 (4.5)	94.3 (4.6)	100.4 (4.7)	107.2 (4.8)	113.6 (4.9)	120.1 (4.9)	126.3 (5.0)	132.7 (5.0)	5.5	11.9
법인세 (GDP 대비 비율)	69.6 (3.9)	77.9 (4.2)	81.7 (4.2)	85.9 (4.2)	90.8 (4.2)	96.2 (4.3)	99.9 (4.3)	104.4 (4.3)	109.0 (4.3)	113.8 (4.3)	5.6	7.8
부가가치세 (GDP 대비 비율)	70.0 (3.9)	72.9 (3.9)	76.1 (3.9)	79.3 (3.9)	82.5 (3.8)	85.8 (3.8)	89.2 (3.8)	92.6 (3.8)	96.1 (3.8)	99.5 (3.7)	4.0	4.6
기 타 (GDP 대비 비율)	68.5 (3.8)	68.7 (3.7)	70.7 (3.6)	72.5 (3.5)	74.7 (3.5)	76.9 (3.4)	79.3 (3.4)	81.7 (3.3)	84.1 (3.3)	86.6 (3.3)	2.6	4.2

GDP 대비 국세수입 비율은 2018~2021년까지는 연평균 16.2%를 유지하다가 2022년 이후 16.3%로 소폭 증가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수입의 주요 세목별 GDP 대비 비율을 보면, 소득세가 2018년 4.6%에서 2027년 5.0%로 0.4%p 높아질 전망이며, 법인세 역시 2018년 3.9%에서 2027년 4.3%로 0.4%p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통관수입액 감소 등으로 인해 2018년 3.9%에서 2027년 3.7%로 0.2%p 낮아질 전망이다.

[그림 3] 「NABO 재정전망」: 국세수입 주요 세목별 GDP 대비 비율 추이

(단위: %)



세법개정 등 정책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NABO 기준선과 비교할 경우, 재정전망에 따른 국세수입은 10년(2018~2027년) 간 총 11.7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강화, 발전용 유연탄·LNG 세율 조정 등 세수를 증가시키는 개정안의 세수효과보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지급확대, 고용증대세제 확대 등 비과세·감면을 증가시키는 개정안의 세수감소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전망된 것에 기인한다. 다만, 세수감소 규모가 크게 나타나는 2019~2021년은 NABO 기준선 전망의 GDP 대비 국세수입 비율은 16.3%로 NABO 재정전망의 GDP 대비 비율(16.2%)에 비해 0.1%p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후 기간 동안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의 GDP 대비 국세수입 비율은 유사한 수준으로 전망된다.²⁰⁾

20) 2023~2024년 NABO 재정전망의 GDP 대비 비율은 16.3%이고, NABO 기준선의 GDP 대비 비율은 16.4%로 수치상 0.1%p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단수 조정에 따른 차이로 실제로 2023년은 0.02%p, 2024년은 0.04%p 차이에 불과하다.

[표 14]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세수입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 전망 ¹⁾ (A)	국세수입 (GDP 대비 비율)	289.9 (16.2)	302.6 (16.2)	317.0 (16.2)	331.9 (16.2)	348.3 (16.3)	366.1 (16.3)	382.0 (16.3)	398.8 (16.3)	415.5 (16.3)	432.6 (16.3)	4.5
	소득세	81.8	83.1	88.6	94.3	100.4	107.2	113.6	120.1	126.3	132.7	5.5
	법인세	69.6	77.9	81.7	85.9	90.8	96.2	99.9	104.4	109.0	113.8	5.6
	부가가치세	70.0	72.9	76.1	79.3	82.5	85.8	89.2	92.6	96.1	99.5	4.0
	기타	68.5	68.7	70.7	72.5	74.7	76.9	79.3	81.7	84.1	86.6	2.6
NABO 기준선 (B)	국세수입 (GDP 대비 비율)	289.9 (16.2)	305.4 (16.3)	319.1 (16.3)	334.2 (16.3)	349.8 (16.3)	366.4 (16.4)	383.0 (16.4)	399.6 (16.3)	416.1 (16.3)	433.0 (16.3)	4.6
	소득세	81.8	86.4	91.2	96.8	102.7	109.3	115.6	122.0	128.1	134.4	5.7
	법인세	69.6	78.1	82.2	86.7	91.3	95.9	100.4	104.9	109.5	114.3	5.7
	부가가치세	70.0	73.0	76.2	79.4	82.6	85.9	89.4	92.8	96.3	99.7	4.0
	기타	68.5	67.8	69.5	71.2	73.2	75.3	77.6	79.9	82.2	84.6	2.4
차 이 (A-B)	국세수입	0.0	-2.8	-2.1	-2.2	-1.5	-0.3	-1.0	-0.8	-0.6	-0.4	-11.7
	소득세	0.0	-3.3	-2.6	-2.5	-2.3	-2.1	-2.0	-1.9	-1.8	-1.7	-20.2
	법인세	0.0	-0.2	-0.5	-0.8	-0.5	0.3	-0.5	-0.5	-0.5	-0.5	-3.6
	부가가치세	0.0	-0.2	-0.2	-0.2	-0.2	-0.2	-0.2	-0.2	-0.2	-0.2	-1.6
	기타	0.0	0.9	1.2	1.3	1.5	1.6	1.7	1.8	1.9	2.0	13.7

주: 1) 2018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으로 인한 세수변화를 반영하여 전망

[그림 4]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세수입

(단위: 조원)



(2) 소득세

재정전망에 따르면, 소득세는 임금상승 및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2018년 81.8조원에서 2027년 132.7조원으로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10년 간 소득세 증가율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세 둔화 등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증가율 하락 등으로 지난 5년 간(2013~2017년) 연평균 증가율(11.9%)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인해 양도소득세 증가율도 과거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소득세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81.8	83.1	88.6	94.3	100.4	107.2	113.6	120.1	126.3	132.7	5.5
NABO 기준선(B)	81.8	86.4	91.2	96.8	102.7	109.3	115.6	122.0	128.1	134.4	5.7
차 이(A-B)	0.0	-3.3	-2.6	-2.5	-2.3	-2.1	-2.0	-1.9	-1.8	-1.7	합계 -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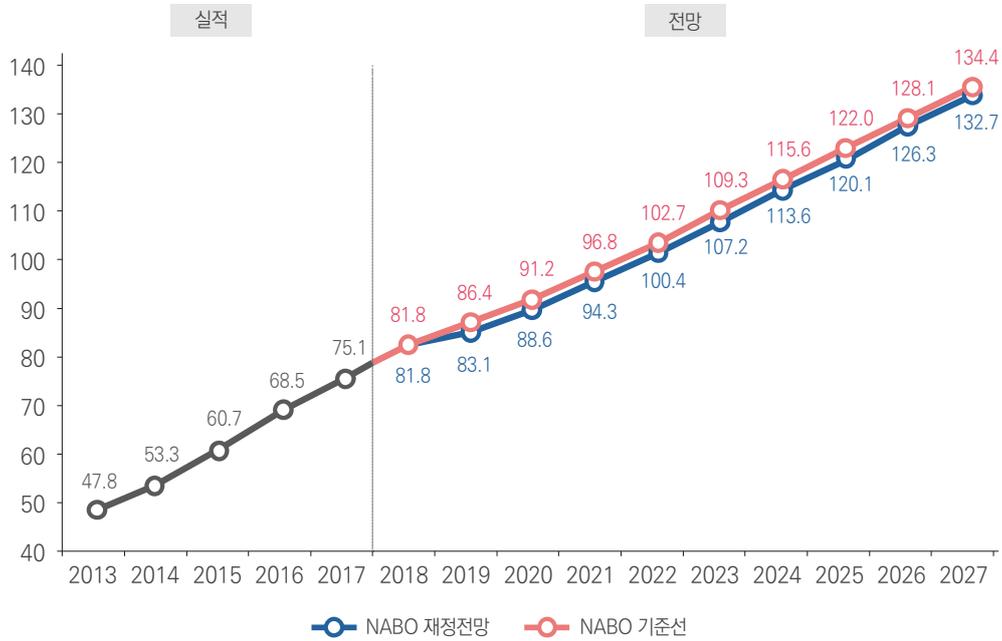
현행 조세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는 NABO 기준선에 따르면, 소득세는 2018년 81.8조원에서 2027년 134.4조원으로 연평균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법개정안의 정책효과가 반영되는 NABO 재정전망의 소득세는 기준선과 비교해 2019~2027년 동안 연간 1.7~3.3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10년(2018~2027년) 간 총 20.2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재정전망에 반영된 2018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근로·자녀장려금(EITC·CTC) 확대 등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 때문이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일자리·소득 지원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²¹⁾ 및 자녀장려금²²⁾의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도 인상될 예정이다.

21) 30세 이상 연령요건 폐지, 소득요건 완화(가구유형별 1,300~2,500만원 → 2,000~3,600만원), 재산요건 완화(가구원 합계 1.4억원 미만 → 2억원 미만), 지급액 인상(단독/홀벌이/맞벌이 85/200/250만원 → 150/260/300만원), 지급시기 변경

22)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그림 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소득세

(단위: 조원)



주: 2017년까지는 실적이며, 2018년부터는 전망치임

(3)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 영업실적 증가에 따라 2018년 69.6조원에서 2027년 113.8조원으로 연평균 5.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2027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은 5.6%로 법인실적 호조로 높은 증가세가 이어졌던 기간²³⁾이 포함된 과거 5년(2013~2017년) 간 연평균 증가율 7.8%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된 수준이다.

[표 1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법인세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69.6	77.9	81.7	85.9	90.8	96.2	99.9	104.4	109.0	113.8	5.6
NABO 기준선(B)	69.6	78.1	82.2	86.7	91.3	95.9	100.4	104.9	109.5	114.3	5.7
차 이(A-B)	0.0	-0.2	-0.5	-0.8	-0.5	0.3	-0.5	-0.5	-0.5	-0.5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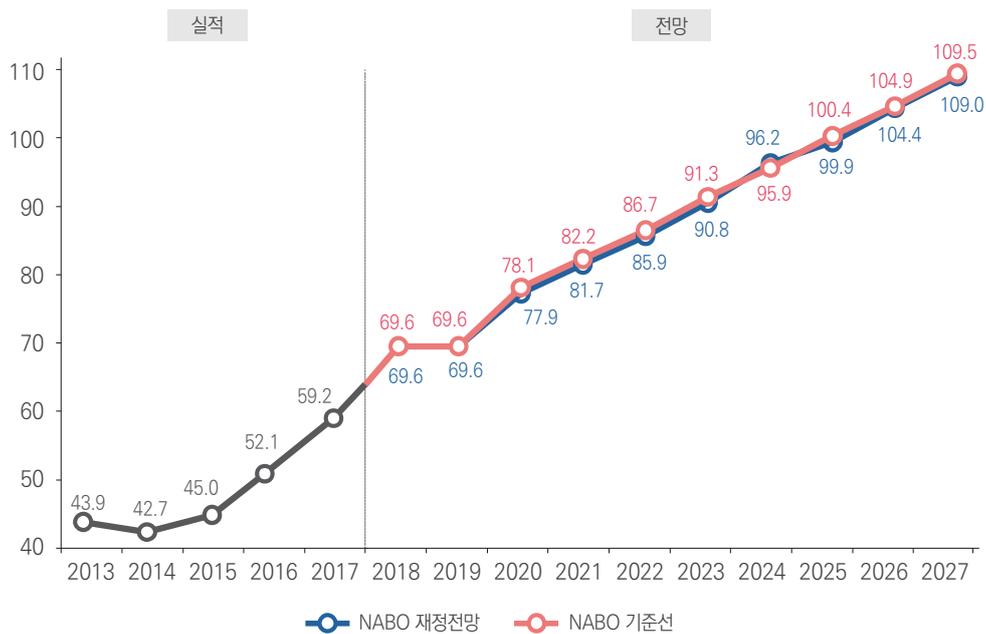
23) 2016~2017년은 법인실적 호조로 연평균 14.6% 증가하였다.

2018~2019년의 법인세는 2017~2018년의 법인실적 호조로 각각 17.6%, 11.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²⁴⁾ 이후 법인세 증가율은 2020년 5.8%에서 2023년 5.9%로 경상성장률 증가 등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 기간에는 경상성장률 둔화와 통관수출 증가율 둔화(2022년 2.0% → 2027년 1.4%) 등으로 2023년 5.9%에서 2027년 4.4%까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선과 비교해 보면, 재정전망의 법인세는 2018~2027년 동안 총 3.6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청년고용 증가를 위한 고용증대세제의 확대,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 등 세법개정안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로 인해 NABO 기준선과 재정전망의 차이는 연간 -0.8~0.3조원으로 전망된다.

[그림 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법인세

(단위: 조원)



24) 법인세는 기준연도(t년)의 법인 영업실적에 대한 신고납부가 다음연도(t+1년)에 이루어짐에 따라 시차가 존재한다.

(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2018년 70.0조원에서 2027년 99.5조원으로 연평균 4.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 증가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명목 민간소비 증가율이 2018년 4.5%에서 2027년 4.4%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통관수입 증가율이 2018년 11.1%에서 점차 하락해 2027년 1.7%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도별 부가가치세 증가율은 2019년 4.0%에서 2020년 4.4%로 증가한 후 2021년 4.2%에서 2027년 3.6%까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수 증감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경상 민간소비가 2019년부터 2027년까지 4.4~4.6% 수준의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외거래 중 통관수입 증가율이 2019년 3.1%에서 2027년 1.7%로 지속적인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경상성장률을 하회하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NABO 기준선과 비교하면, NABO 재정전망이 기준선보다 2018~2027년 간 총 1.6조원(연평균 0.2조원) 낮게 전망되었다. 이러한 전망 차이는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인상(500만원 → 700만원), 부가가치세 납부·환급불성실 및 원천징수납부 등과 관련한 가산세율의 인하(1일 0.03% → 0.025%), 간이과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의 상향(2,400만원 → 3,000만원) 등의 제도변화에 기인한다.

[표 1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부가가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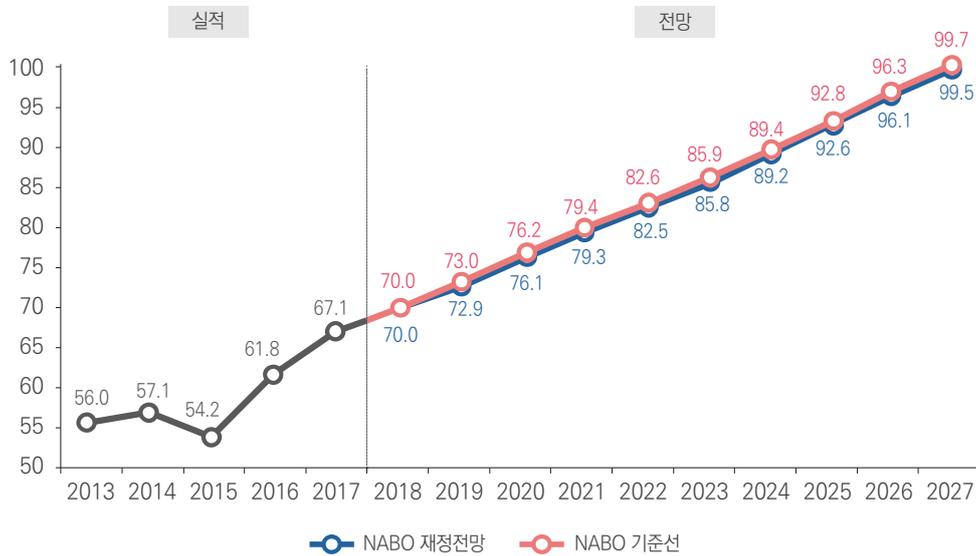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70.0	72.9	76.1	79.3	82.5	85.8	89.2	92.6	96.1	99.5	4.0
NABO 기준선(B)	70.0	73.0	76.2	79.4	82.6	85.9	89.4	92.8	96.3	99.7	4.0
차 이(A-B)	0.0	-0.2	-0.2	-0.2	-0.2	-0.2	-0.2	-0.2	-0.2	-0.2	합계 -1.6

주: 2017년까지는 결산기준이며, 2018년부터는 전망치임

[그림 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부가가치세

(단위: 조원)



(5) 기 타

기타 세목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상속세 및 증여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종합부동산세, 관세 등 11개 세목으로 구성된다.

전망 결과, 기타 세목은 2018년 68.5조원에서 2027년 86.6조원으로 연평균 2.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입의 증가속도(연평균 증가율 4.2%)에 비해 낮은 기타 세목의 증가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에도 불구하고, 기타세목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류소비량 정체 및 수입증가율 둔화 등의 전망에 따른 것이다.

[표 1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타 국세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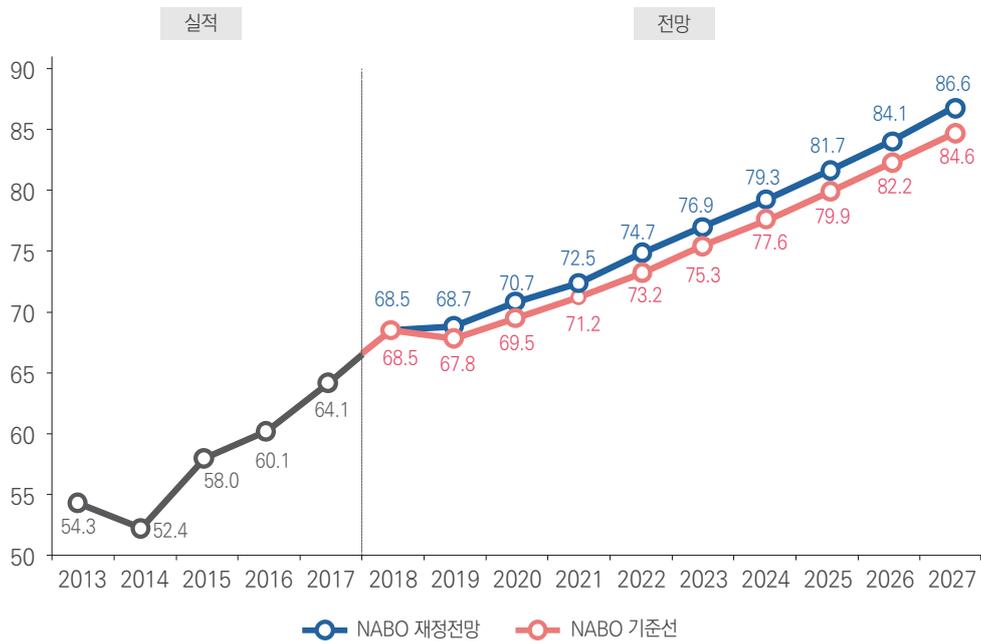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68.5	68.7	70.7	72.5	74.7	76.9	79.3	81.7	84.1	86.6	2.6
NABO 기준선(B)	68.5	67.8	69.5	71.2	73.2	75.3	77.6	79.9	82.2	84.6	2.4
차 이(A-B)	0.0	0.9	1.2	1.3	1.5	1.6	1.7	1.8	1.9	2.0	합계 13.7

기타 세목의 기준선과 비교하면, 2019~2027년 간 0.9~2.0조원, 10년(2018~2027년) 간 총 13.7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강화에 기인하는데, 이는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로 연간 0.9~2.0조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림 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타 국세수입

(단위: 조원)



주: 2017년까지는 결산기준이며, 2018년부터는 전망치임

다. 국세외수입

(1) 총괄

국세외수입은 2018년 173.5조원에서 2027년 238.1조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과거 5년(2013~2017년) 간 연평균 증가율 2.4%에 비해 1.2%p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세외수입 증가율 상승은 국세외수입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기금수입 증가율에 기인하는데, 기금수입 증가율은 사회보장기여금의 연평균 증가율(4.4%)에 힘입어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9] 「NABO 재정전망」: 국세외수입(회계별)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국세외수입(I+II) (GDP 대비 비율)	173.5 (9.7)	181.1 (9.7)	188.0 (9.6)	194.5 (9.5)	201.3 (9.4)	208.0 (9.3)	215.1 (9.2)	222.7 (9.1)	230.3 (9.0)	238.1 (9.0)	3.6
세외수입(I) (GDP 대비 비율)	26.0 (1.4)	26.4 (1.4)	27.0 (1.4)	27.6 (1.3)	28.2 (1.3)	28.7 (1.3)	29.3 (1.3)	29.9 (1.2)	30.5 (1.2)	31.1 (1.2)	2.0
일반회계	11.5	11.2	11.6	11.9	12.3	12.7	13.0	13.4	13.8	14.2	2.4
특별회계	14.5	15.1	15.5	15.7	15.9	16.0	16.3	16.4	16.6	16.9	1.7
기금수입(II) (GDP 대비 비율)	147.6 (8.2)	154.7 (8.3)	161.0 (8.2)	166.9 (8.1)	173.1 (8.1)	179.4 (8.0)	185.8 (7.9)	192.8 (7.9)	199.8 (7.8)	207.0 (7.8)	3.8
- 사회보장기여금 (GDP 대비 비율)	65.2 (3.6)	69.8 (3.7)	72.9 (3.7)	76.0 (3.7)	79.1 (3.7)	82.2 (3.7)	85.3 (3.6)	88.9 (3.6)	92.5 (3.6)	96.1 (3.6)	4.4

국세외수입을 성질별로 보면,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명목임금상승, 보험료율 인상(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4.4% 증가하고, 재산수입은 국민연금기금 규모 확대에 따른 이자수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1.8%), 재화및용역판매수입(1.6%), 관유물매각대(1.6%),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2.2%) 등은 낮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낮은 증가율은 지속적인 저금리 전망 등의 영향으로 금융사업수입(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증가세 둔화 및 주택도시기금 회수액(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증가세 둔화 등에 주로 기인한다.

[표 20] 「NABO 재정전망」: 국세외수입(성질별)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국세외수입	173.5	181.1	188.0	194.5	201.3	208.0	215.1	222.7	230.3	238.1	3.6
사회보장기여금	65.2	69.8	72.9	76.0	79.1	82.2	85.3	88.9	92.5	96.1	4.4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5.6	6.1	6.3	6.4	6.4	6.4	6.5	6.5	6.6	6.6	1.8
재산수입	29.2	29.8	31.0	32.3	33.7	35.1	36.5	38.0	39.6	41.2	3.9
경상이전수입	36.6	37.9	39.7	41.1	42.6	44.0	45.5	47.1	48.6	50.2	3.6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6	8.7	8.9	9.0	9.2	9.3	9.5	9.6	9.8	9.9	1.6
관유물매각대	3.4	3.4	3.5	3.6	3.6	3.7	3.7	3.8	3.8	3.9	1.6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4.4	24.7	25.2	25.7	26.2	26.8	27.4	28.1	28.9	29.7	2.2
기 타	0.5	0.5	0.5	0.5	0.5	0.5	0.5	0.5	0.5	0.6	1.6

주: 기타는 수입대체경비수입과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의 합

국세외수입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10년(2018~2027년) 간 총 18조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1.3% → 1.6%)으로 인해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이 기준선에 비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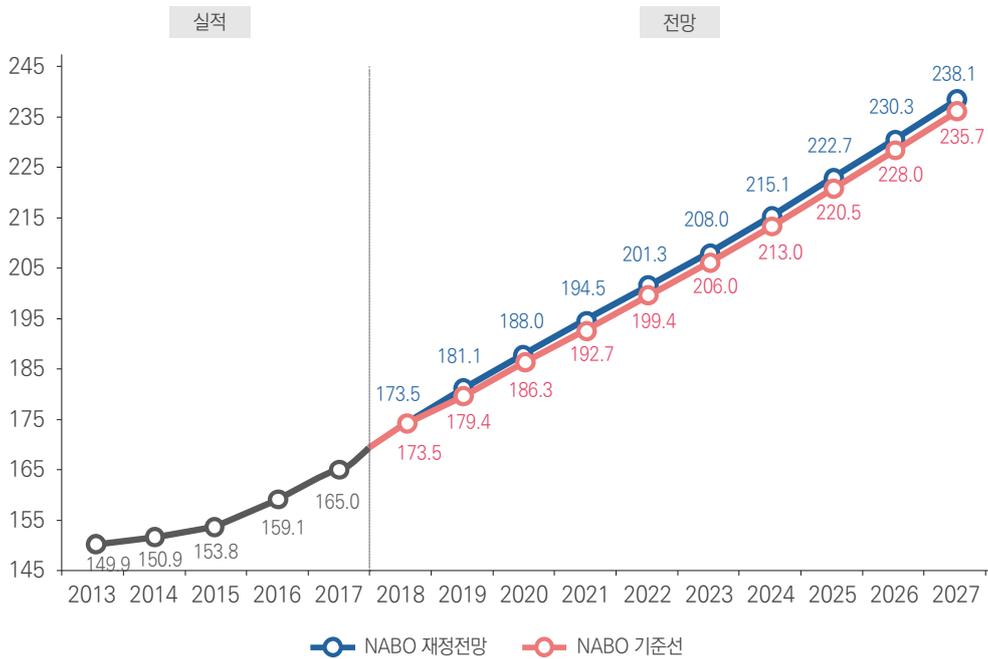
[표 21]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세외수입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173.5	181.1	188.0	194.5	201.3	208.0	215.1	222.7	230.3	238.1	3.6
NABO 기준선(B)	173.5	179.4	186.3	192.7	199.4	206.0	213.0	220.5	228.0	235.7	3.5
차 이(A-B)	0.0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합계 18.0

[그림 9]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세외수입

(단위: 조원)



(2) 사회보장기여금

사회보장기여금은 2018년 65.2조원에서 2027년 96.1조원으로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5년(2013~2017년) 동안의 증가율(7.0%)에 비해 2.6%p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국민연금 및 사학연금 각각의 과거 5년 증가율인 7.0%, 10.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연평균 3.8%,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2020년 이후 가입자 수 증가세가 감소세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율이 과거에 비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사학연금의 경우 2016년 법 개정(기여금부담률 상승 및 국립대병원 편입 등)으로 인해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과거 기간에 비해, 법 개정이 반영된 이후부터는 안정적 증가 추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사회보장기여금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향후 10년(2018~2027년) 간 총 18조원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1.3% → 1.6%)으로 고용보험 기여금이 기준선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표 2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사회보장기여금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65.2	69.8	72.9	76.0	79.1	82.2	85.3	88.9	92.5	96.1	4.4
NABO 기준선(B)	65.2	68.2	71.2	74.1	77.2	80.2	83.2	86.7	90.2	93.7	4.1
차 이(A-B)	0.0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합계 18.0

(가) 국민연금

국민연금기여금 수입은 고용주부담금과 피고용자분담금으로 구성된다. 고용주부담금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수입(보험료율 9.0%)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보험료율 4.5%)이고, 피고용자분담금은 사업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수입 중 가입자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보험료율 4.5%)과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가 납부하는 금액(보험료율 9.0%)이다.

국민연금기여금은 2018년 44.8조원에서 2027년 62.8조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민연금기여금(결산 기준)의 2013~2017년 평균 증가율

(7.0%)에 비해 3.2%p 낮은 것으로서, 명목임금상승률의 영향으로 기준소득월액은 증가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2020년 이후 완만하게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가폭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것이 주요 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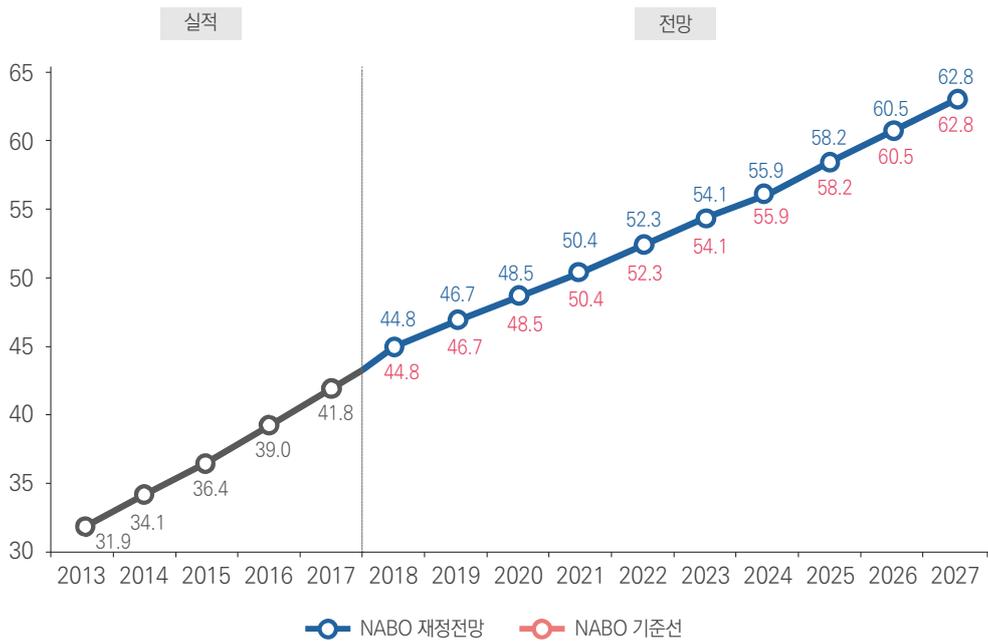
[표 23]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국민연금기여금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국민연금기여금 (GDP 대비 비율)	44.8 (2.5)	46.7 (2.5)	48.5 (2.5)	50.4 (2.5)	52.3 (2.4)	54.1 (2.4)	55.9 (2.4)	58.2 (2.4)	60.5 (2.4)	62.8 (2.4)	3.8

[그림 10]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국민연금기여금

(단위: 조원)



(나) 사학연금

사학연금기여금 수입은 피고용자분담금과 고용주부담금으로 구성된다. 피고용자분담금은 연금부담금 중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²⁵⁾이고, 고용주부담금은 사학연금 가입자의 고용주인 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서, 연금부담금²⁶⁾, 재해보상부담금²⁷⁾, 퇴직수당부담금²⁸⁾이 해당된다.

사학연금기여금은 2018년 3.0조원에서 2027년 4.6조원으로 연평균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사학연금기여금(결산 기준)의 2013~2017년 평균증가율(10.6%)에 비해 5.6%p 낮은 수준이다. 2013~2017년 기간 기여금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2016년 법 개정으로 인한 기여금 부담률 상승²⁹⁾ 및 국립대병원의 신규 편입에 따른 기여금 부담 대상자 수(약 3만명)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이에 반해 2018년 이후 낮은 기여금 수입 증가율은 2020년 기여금 부담률이 18%에 도달한 이후 고정되고 가입자 수도 교원의 감소 추세 등으로 인해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것이다.

[표 24]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사학연금기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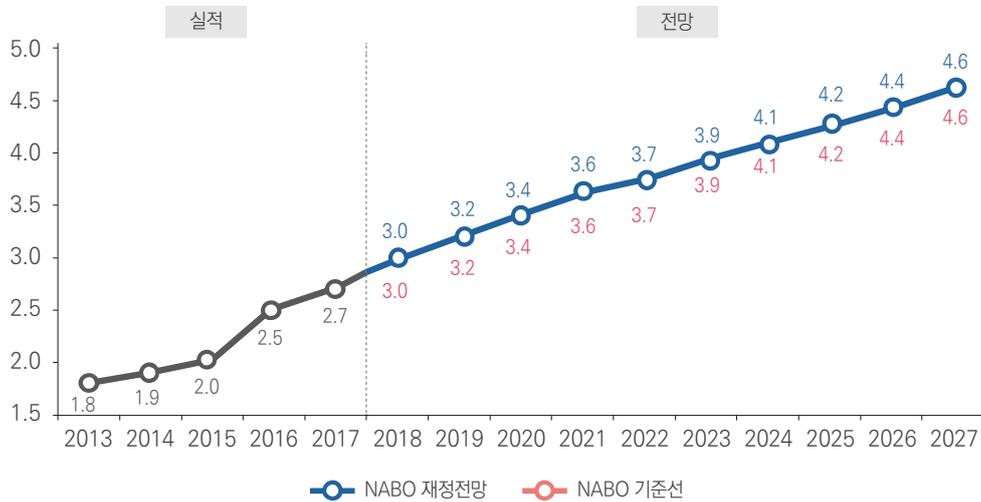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사학연금기여금 (GDP 대비 비율)	3.0 (0.2)	3.2 (0.2)	3.4 (0.2)	3.6 (0.2)	3.7 (0.2)	3.9 (0.2)	4.1 (0.2)	4.2 (0.2)	4.4 (0.2)	4.6 (0.2)	5.0

- 25) 개인의 기여금부담률은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이후 9%가 적용된다.
- 26) 법인의 연금부담금은 직원에 대해서는 개인과 동일한 부담률을 적용하고 교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분담하므로 직원보다 낮은 부담률인 2018년 5.0%, 2019년 5.147%, 2020년 이후 5.294%를 적용한다.
- 27) 재해보상부담금은 법인이 부담하는데 개인이 납부하는 연금부담금의 4.54%를 적용한다.
- 28) 퇴직수당부담금은 예상퇴직인원에 퇴직수당 급여산식을 적용하여 구한 금액에 법인 부담률(대학 소요액의 40%)을 곱하여 산출한다.
- 29) 기여금 부담률 상승: ~2015년 14%(개인 7%, 법인 및 국가 7%) → 2016년 16%(개인 8%, 법인 및 국가 8%) → 2017년 16.5%(개인 8.25%, 법인 및 국가 8.25%) → 2018년 17%(개인 8.5%, 법인 및 국가 8.5%) → 2019년 17.5%(개인 8.75%, 법인 및 국가 8.75%) → 2020년 18%(개인 9%, 법인 및 국가 9%)

[그림 11]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사학연금기여금

(단위: 조원)



(다) 고용보험

고용보험기여금 수입은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 수입으로,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실업급여 보험료로 구분된다. 임금근로자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0.25~0.85%이고,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3%이다.³⁰⁾ 이러한 보험료는 고용주부담금과 피고용자부담금 항목으로 수납되는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고용주부담금),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부담한다(고용주부담금 및 피고용자부담금).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주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기준선의 경우 현행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NABO 재정전망은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모성보호육아지원 확대 등을 고려하여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0.3%p 인상할 계획이므로 이를 반영한 것이다.

전망 결과, 고용보험기여금은 2018년 10.0조원에서 2027년 17.8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증가율은 고용보험기여금 수입의 2013~2017년 연평균 증가율(8.1%)보다 1.5%p 낮은 수준인데, 이는 고용보험의 성숙에 따른 피보험자 수 증가율 둔화에 기인한 것이다.

30)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율은 각각 0.25%, 2.0%이다.

[표 2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고용보험기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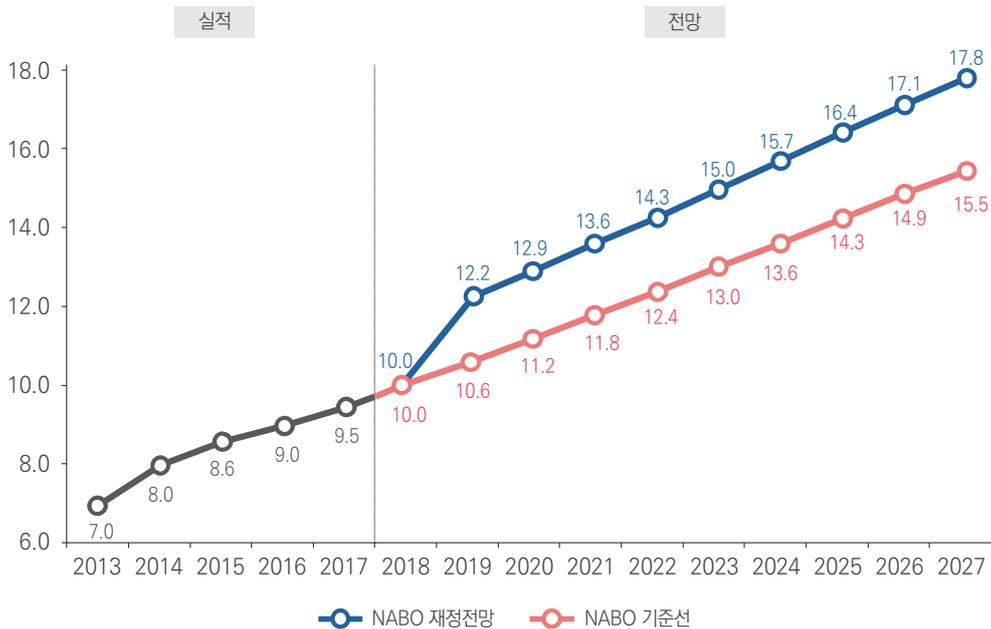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10.0	12.2	12.9	13.6	14.3	15.0	15.7	16.4	17.1	17.8	6.6
NABO 기준선(B)	10.0	10.6	11.2	11.8	12.4	13.0	13.6	14.3	14.9	15.5	4.9
차 이(A-B)	0.0	1.6	1.7	1.8	1.9	2.0	2.1	2.2	2.3	2.4	18.0

고용보험기여금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10년(2018~2027년) 간 총 18.0조원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고용보험기여금의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모성보호육아지원 확대 등을 고려하여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인상하는 계획을 재정전망에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1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고용보험기여금

(단위: 조원)



(라) 산재보험

산재보험기여금 수입은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 수입으로, 산재보험료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0.85(금융 및 보험업)~28.25%(석탄광업 및 채석업)이며, 2018년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5/1,000)이 포함되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고용주부담금)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등)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피고용자부담금)가 함께 부담한다.

전망 결과, 산재보험기여금은 2018년 7.3조원에서 2027년 10.8조원으로 연평균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증가율은 산재보험기여금 수입의 2013~2017년 연평균 증가율(4.3%)보다 0.1%p 높은 수준으로 과거와 비슷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산재보험기여금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산재보험기여금 (GDP 대비 비율)	7.3 (0.4)	7.7 (0.4)	8.0 (0.4)	8.4 (0.4)	8.8 (0.4)	9.2 (0.4)	9.6 (0.4)	10.0 (0.4)	10.4 (0.4)	10.8 (0.4)	4.4

[그림 13]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산재보험기여금

(단위: 조원)



(3) 경상이전수입

경상이전수입은 2018년 36.6조원에서 2027년 50.2조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이전수입의 경우 2019년 이후 주요 정책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준선과 NABO 재정전망은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전망된다.

[표 27]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경상이전수입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경상이전수입 (GPD 대비 비율)	36.6 (2.0)	37.9 (2.0)	39.7 (2.0)	41.1 (2.0)	42.6 (2.0)	44.0 (2.0)	45.5 (1.9)	47.1 (1.9)	48.6 (1.9)	50.2 (1.9)	3.6

[그림 14]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경상이전수입

(단위: 조원)



(가) 연금기여금

경상이전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으로 연금기여금이 있다. 연금기여금은 연금에 가입한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액으로서 공무원연금기금의 연금기여금과 군인연금기금의 연금기여금이 있다. 공무원연금은 2015년 연금개혁에 따라 개인의 기여금 부담률을 2018년 8.5%에서 2020년 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지만 군인연금의 기여금 부담률은 2013년 이후 7%를 유지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연금기여금은 2018년부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계획(2022년까지 17만 4,000명 증원)을 반영하여 전망한다. 군인연금의 연금기여금은 현재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한다.

전망결과, 연금기여금은 2018년 13.5조원(GDP 대비 0.8%)에서 2027년 22.8조원(GDP 대비 0.9%)으로 연평균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여금 부담률 인상과 공무원 증원에 따른 기여금 납부인원의 증가에 기인한다. 특히, 2018~2022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6.8%로 전망기간(2018~2027년) 동안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0.8%p 높은데, 이는 공무원연금의 기여금부담률이 2020년 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공무원 증원이 2022년까지 완료되는 계획이 반영된 결과이다. 2023~2027년 간 공무원연금기여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5.4%로 2018~2027년 간 증가율(6.0%)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공무원연금의 기여금 부담률이 2021년 이후 9%로 유지되고, 공무원 증원이 2022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표 28]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연금기여금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연금기여금 (GDP 대비 비율)	13.5 (0.8)	14.3 (0.8)	15.6 (0.8)	16.6 (0.8)	17.6 (0.8)	18.5 (0.8)	19.6 (0.8)	20.7 (0.8)	21.6 (0.8)	22.8 (0.9)	6.0

[그림 15]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연금기여금

(단위: 조원)



3. 총지출

가. 개 관

총지출은 2018년 432.7조원에서 2027년 699.5조원으로 연평균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5년(2013~2017년) 간 연평균 증가율(4.8%)³¹⁾과 비교하면 0.7%p 높은 수준이고, 경상GDP성장률(4.4%)보다도 1.1%p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총지출 증가율이 높아지면서 GDP 대비 총지출의 비율도 2018년 24.1%에서 2027년 26.3%로 2.2%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은 2018년 217.0조원에서 2027년 385.5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5년(2013~2017년) 간 연평균 증가율 6.2%에 비해 0.4%p 높은 것으로서, 복지지출 급여단가 인상, 대상자 확대 등으로 인해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의무지출의 증가추세는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의 비중이 2018년 50.2%에서 2027년은 55.1%까지 상승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³²⁾

[표 29] 「NABO 재정전망」: 총지출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18~'27	'13~'17
총지출 (GDP 대비 비율)	432.7 (24.1)	474.5 (25.3)	518.6 (26.5)	540.0 (26.4)	568.5 (26.5)	591.1 (26.4)	617.4 (26.4)	645.1 (26.4)	672.1 (26.3)	699.5 (26.3)	5.5	4.8
의무지출 (총지출 대비 비율)	217.0 (50.2)	245.7 (51.8)	272.3 (52.5)	279.5 (51.8)	295.5 (52.0)	309.9 (52.4)	327.8 (53.1)	347.2 (53.8)	366.1 (54.5)	385.5 (55.1)	6.6	6.2
재량지출 (총지출 대비 비율)	215.7 (49.8)	228.8 (48.2)	246.4 (47.5)	260.5 (48.2)	273.0 (48.0)	281.2 (47.6)	289.6 (46.9)	297.9 (46.2)	306.1 (45.5)	314.1 (44.9)	4.3	3.4

31) 2013~2017년 연평균 증가율을 위해 적용한 총지출 및 의무지출, 재량지출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무지출 산정기준에 따른 결산금액이며, 이 중 2017년 결산액은 각 부처로부터 결산액을 단순 합계하여 산출하였다(국회예산정책처,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I, p.133).

32) 2020년에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이 52.5%로 2019년과 2021년에 비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지방이전재원에 대한 2018년 정산분(8.8조원)이 관련법 등에 따라 2020년에 모두 정산된다고 가정함에 따른 것이다.

총지출의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10년(2018~2027년) 간 총 153.3조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재정소요 153.3조원은 의무지출 48.3조원, 재량지출 105.0조원으로 구성된다. 의무지출의 추가 재정소요는 복지분야 의무지출에서의 재정정책 변화에 기인한다. 재량지출 차이는 전망에 사용한 가정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기준선은 2018년 GDP 대비 재량지출(본예산 기준) 비율(11.8%)이 전망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 반면, 재정전망은 2018~2022년은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그대로 반영하고 2023~2027년은 2022년 기준 GDP 대비 비율(12.7%)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27년에 11.8%(2018년 GDP 대비 재량지출(본예산) 비율)로 수렴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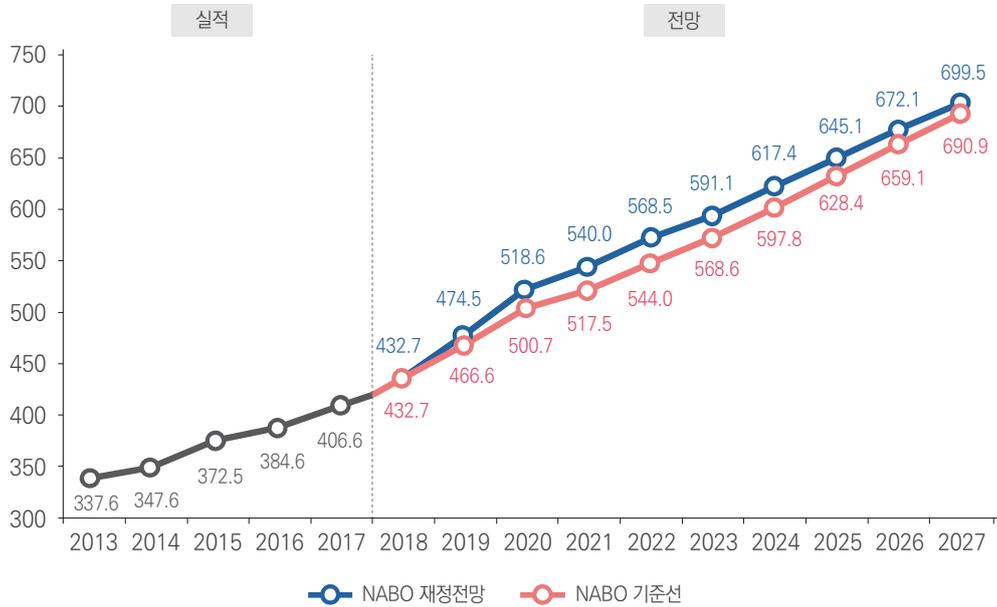
[표 30]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총지출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 전망 (A)	총지출 (GDP 대비 비율)	432.7 (24.1)	474.5 (25.3)	518.6 (26.5)	540.0 (26.4)	568.5 (26.5)	591.1 (26.4)	617.4 (26.4)	645.1 (26.4)	672.1 (26.3)	699.5 (26.3)	5.5
	의무지출 (GDP 대비 비율)	217.0 (50.2)	245.7 (51.8)	272.3 (52.5)	279.5 (51.8)	295.5 (52.0)	309.9 (52.4)	327.8 (53.1)	347.2 (53.8)	366.1 (54.5)	385.5 (55.1)	6.6
	재량지출 (GDP 대비 비율)	215.7 (49.8)	228.8 (48.2)	246.4 (47.5)	260.5 (48.2)	273.0 (48.0)	281.2 (47.6)	289.6 (46.9)	297.9 (46.2)	306.1 (45.5)	314.1 (44.9)	4.3
NABO 기준선 (B)	총지출 (GDP 대비 비율)	432.7 (24.1)	466.6 (24.9)	500.7 (25.6)	517.5 (25.3)	544.0 (25.4)	568.6 (25.4)	597.8 (25.5)	628.4 (25.7)	659.1 (25.8)	690.9 (26.0)	5.3
	의무지출 (GDP 대비 비율)	217.0 (50.2)	245.6 (52.6)	269.4 (53.8)	275.5 (53.2)	291.0 (53.5)	304.1 (53.5)	321.3 (53.8)	339.6 (54.0)	357.8 (54.3)	376.8 (54.5)	6.3
	재량지출 (GDP 대비 비율)	215.7 (49.8)	221.0 (47.4)	231.3 (46.2)	242.0 (46.8)	253.0 (46.5)	264.5 (46.5)	276.5 (46.2)	288.8 (46.0)	301.3 (45.7)	314.1 (45.5)	4.3
차 이 (A-B)												합계
	총지출	0.0	7.9	18.0	22.5	24.5	22.5	19.6	16.7	13.0	8.6	153.3
	의무지출	0.0	0.2	2.9	4.1	4.5	5.8	6.5	7.6	8.3	8.6	48.3
	재량지출	0.0	7.7	15.1	18.5	20.0	16.7	13.1	9.1	4.8	0.0	1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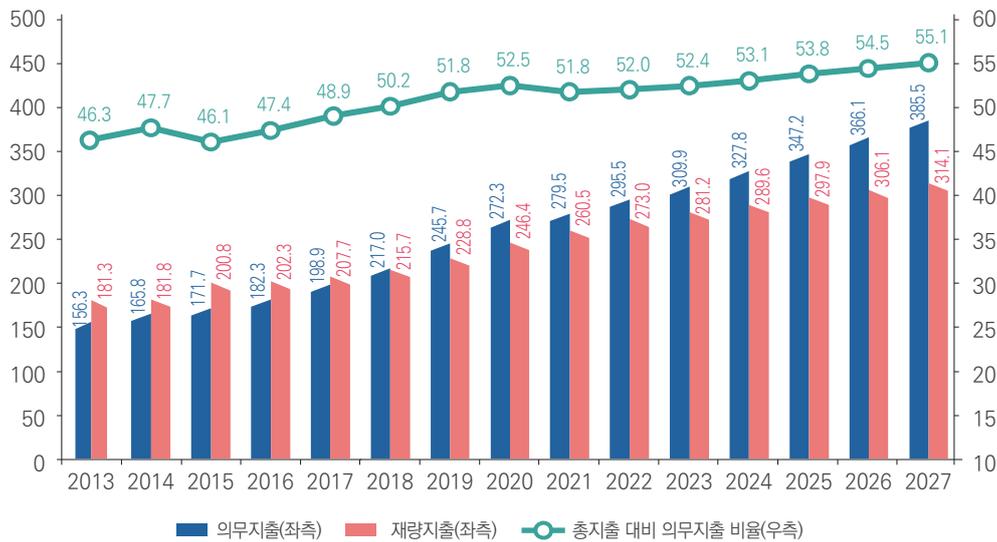
[그림 1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총지출

(단위: 조원)



[그림 17] 「NABO 재정전망」: 의무지출 vs. 재량지출

(단위: 조원, %)



나. 의무지출

의무지출은 2018년 217.0조원(GDP 대비 12.1%)에서 2027년 385.5조원(GDP 대비 14.5%)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5년(2013~2017년) 간 연평균 증가율(6.2%)과 비교하면 0.4%p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인한 가입자 지원금 증가,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연금수급자 수 증가로 인한 연금급여액 증가,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인상 등으로 인해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빠르게 증가(연평균 증가율 7.8%)함에 기인한다.

〔표 31〕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의무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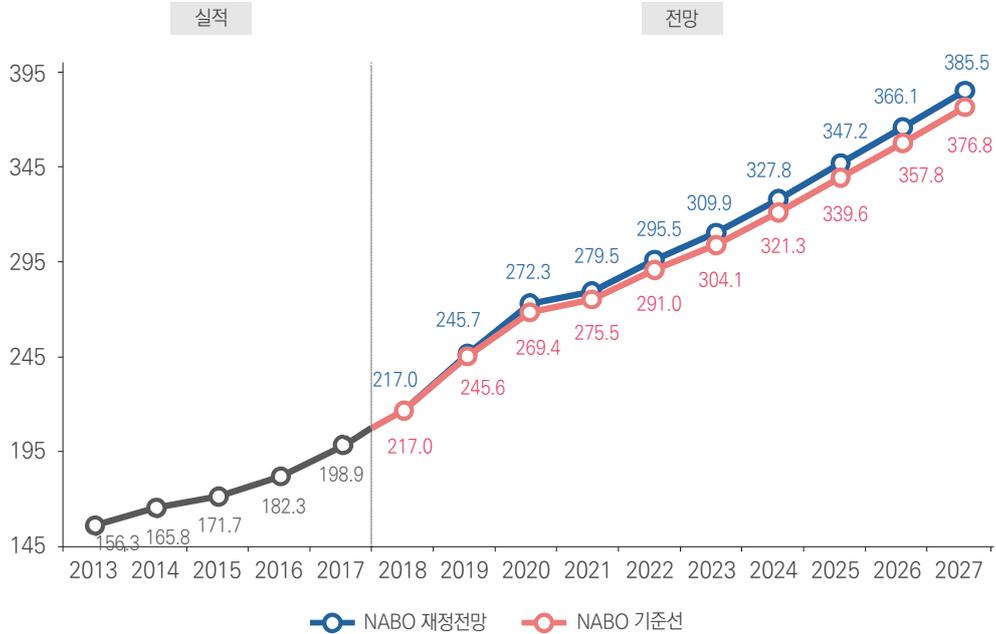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 전망 (A)	의무지출 (GDP 대비 비율)	217.0 (12.1)	245.7 (13.1)	272.3 (13.9)	279.5 (13.6)	295.5 (13.8)	309.9 (13.8)	327.8 (14.0)	347.2 (14.2)	366.1 (14.3)	385.5 (14.5)	6.6
	복지분야 의무지출	95.8	110.2	120.6	130.0	138.1	144.6	154.9	166.2	177.1	188.3	7.8
	지방이전재원	99.4	113.8	128.4	125.4	131.6	138.6	144.8	151.5	158.1	164.9	5.8
	이자지출	16.0	16.3	17.7	18.7	20.0	21.1	22.4	23.8	25.2	26.6	5.8
	기타 의무지출	5.8	5.4	5.6	5.5	5.7	5.7	5.7	5.7	5.6	5.6	-0.4
NABO 기준선 (B)	의무지출 (GDP 대비 비율)	217.0 (12.1)	245.6 (13.1)	269.4 (13.8)	275.5 (13.4)	291.0 (13.6)	304.1 (13.6)	321.3 (13.7)	339.6 (13.9)	357.8 (14.0)	376.8 (14.2)	6.3
	복지분야 의무지출	95.8	108.9	117.2	125.5	134.0	139.9	149.5	160.1	170.6	181.6	7.4
	지방이전재원	99.4	114.5	128.7	125.7	131.6	138.1	144.5	151.1	157.6	164.3	5.7
	이자지출	16.0	16.3	17.5	18.2	19.1	19.8	20.8	21.8	22.9	24.0	4.6
	기타 의무지출	5.8	5.9	6.0	6.1	6.2	6.4	6.5	6.6	6.8	6.9	1.9
차 이 (A-B)	의무지출	0.0	0.2	2.9	4.1	4.5	5.8	6.5	7.6	8.2	8.6	48.3
	복지분야 의무지출	0.0	1.4	3.5	4.5	4.1	4.7	5.4	6.1	6.5	6.7	42.9
	지방이전재원	0.0	-0.7	-0.3	-0.3	0.0	0.5	0.3	0.4	0.5	0.6	1.0
	이자지출	0.0	0.0	0.2	0.5	0.9	1.3	1.7	2.0	2.3	2.5	11.4
	기타 의무지출	0.0	-0.5	-0.4	-0.7	-0.5	-0.7	-0.8	-1.0	-1.1	-1.3	-7.0

의무지출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10년(2018~2027년) 간 총 48.3조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복지분야 의무지출(42.9조원)과 이자지출(11.4조원)에서 발생한다.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주요 정책변화는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연금의 소득하위 대상자에 대한 기준연금액 인상 등이 있다. 이자지출은 재정전망과 기준선의 국가채무 차이에서 발생하는 추가 이자발생 금액에 따른 것이다.

[그림 1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의무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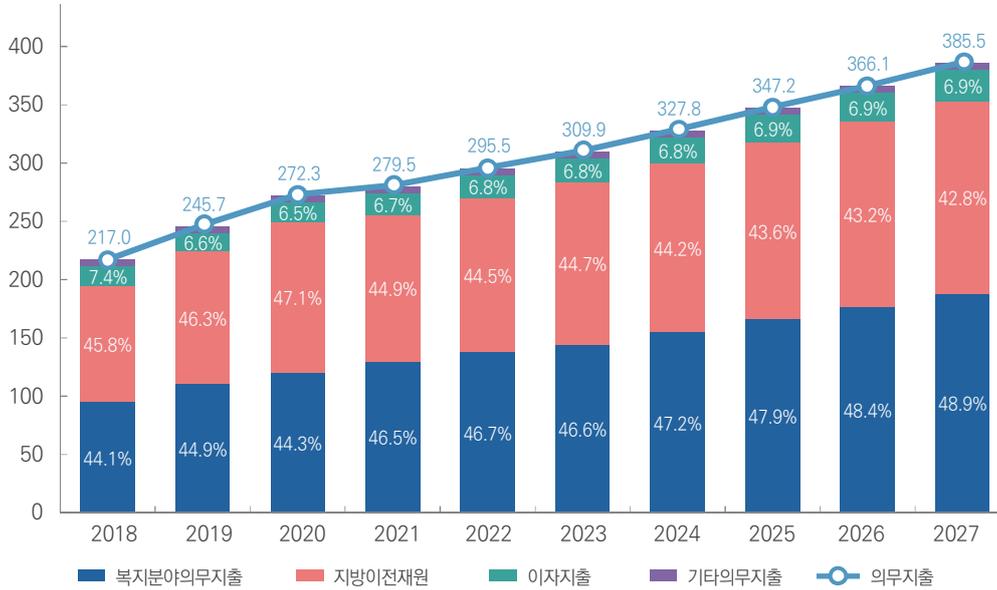
(단위: 조원)



의무지출의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수급 대상자 수 및 지원금 등의 확대에 의해 2018년 44.1%에서 2027년 48.9%로 4.8%p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18년 의무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45.8%)을 차지하였던 지방이전 재원은 2027년 42.8%로 3.0%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이전재원은 국세수입에 연동되므로 수입증가율에 영향을 받는데,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4.2%)에 비해 복지분야 의무지출이 7.8%로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의무지출 중 이가지출 비중은 2018년 7.4%에서 6.9%로 0.5%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의무지출의 경우는 2018년 5.8조원에서 2027년 5.6조원으로 연평균 -0.4%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의무지출 중 비중도 2018년 2.7%에서 2027년 1.5%로 1.2%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9] 「NABO 재정전망」: 의무지출 항목별 비중

(단위: 조원)



(1) 복지분야 의무지출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2018년 95.8조원(GDP 대비 5.3%)에서 2027년 188.3조원(GDP 대비 7.1%)으로 연평균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5.5%)과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6.6%)보다 각각 2.3%p와 1.2%p 상회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높은 증가율은 공적연금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9.4%)에 주로 기인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첫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의 연금수급자 수 증가로 연금 급여액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2018년 44.1조원(GDP 대비 2.5%)에서 98.8조원(GDP 대비 3.7%)으로 연평균 9.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사회보장은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인해 가입자 지원금이 증가함에 따라 동 기간 21.3조원(GDP 대비 1.2%)에서 38.7조원(GDP 대비 1.5%)으로 연평균 6.9%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공공부조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등으로 인해 동 기간 24.1조원(GDP 대비 1.3%)에서 45.0조원(GDP 대비 1.7%)으로 연평균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기타 복지분야는 보훈대상자인 고령자들의 높은 사망률 등으로 인해 보훈이 2018~2027년 간 연평균 3.4%로 빠르게 감소하는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2] 「NABO 재정전망」: 복지분야 의무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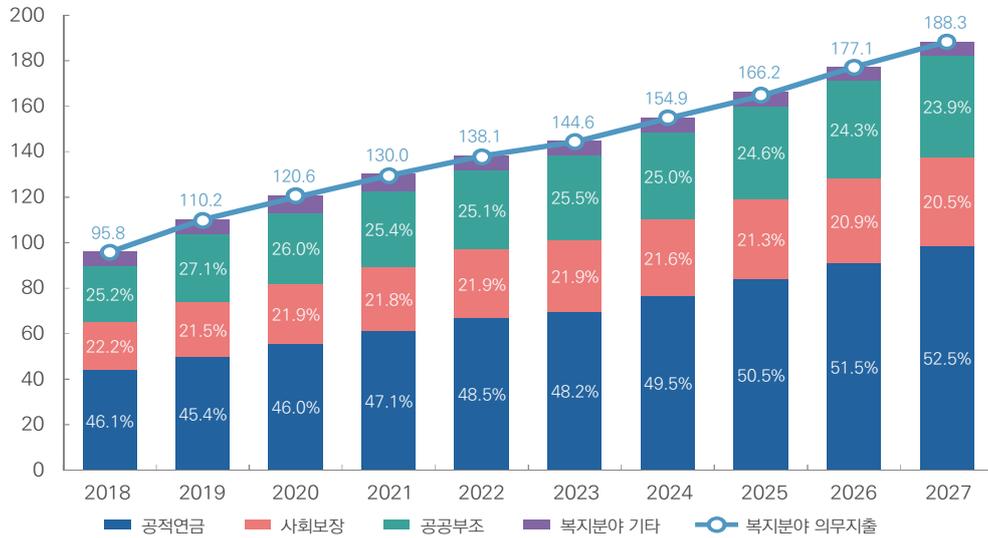
(단위: 조원, %)

항목	세부내역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복지분야 의무지출 (GDP 대비 비율)		95.8 (5.3)	110.2 (5.9)	120.6 (6.2)	130.0 (6.3)	138.1 (6.4)	144.6 (6.5)	154.9 (6.6)	166.2 (6.8)	177.1 (6.9)	188.3 (7.1)	7.8
공적연금	국민연금	21.2	24.5	28.2	32.2	36.3	37.4	42.0	47.2	52.2	57.2	11.7
	사학연금	3.0	3.6	3.9	4.2	4.6	5.0	5.4	5.8	6.1	6.4	8.6
	공무원연금	16.7	18.5	19.6	21.0	22.0	23.1	24.8	26.3	28.0	30.1	6.8
	군인연금	3.2	3.5	3.7	3.8	4.0	4.2	4.4	4.6	4.9	5.1	5.2
	소 계	44.1	50.1	55.5	61.2	67.0	69.7	76.7	83.9	91.2	98.8	9.4
사회보장	건강보험	7.9	8.7	9.9	10.7	11.4	12.1	13.0	13.9	14.6	15.2	7.5
	노인장기요양보험	0.7	1.0	1.3	1.4	1.6	1.8	1.9	2.1	2.3	2.5	15.1
	고용보험	7.6	8.9	9.9	10.6	11.4	11.8	12.1	12.6	13.1	13.6	6.7
	산재보험	5.0	5.1	5.3	5.6	5.8	6.1	6.4	6.7	7.0	7.4	4.3
	소 계	21.3	23.7	26.4	28.3	30.2	31.7	33.4	35.4	37.0	38.7	6.9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10.4	12.5	13.1	13.9	14.7	15.9	16.6	17.3	18.0	18.8	6.8
	기초연금	9.1	11.6	12.4	13.3	14.2	15.2	16.3	17.6	19.0	20.2	9.2
	영유아보육	3.3	3.1	3.1	3.1	3.1	3.1	3.1	3.2	3.2	3.3	0.1
	아동수당	0.7	2.0	1.9	1.9	1.8	1.8	1.8	1.8	1.7	1.7	10.4
	장애수당(기초)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1.6
	장애인연금	0.6	0.7	0.8	0.8	0.8	0.8	0.8	0.9	0.9	0.9	4.2
	소 계	24.1	29.9	31.4	33.0	34.6	36.9	38.7	40.9	42.9	45.0	7.2
복지분야 기타	보훈	4.6	4.5	4.4	4.2	4.0	3.9	3.7	3.6	3.5	3.4	-3.4
	기타 복지	1.6	2.0	3.0	3.3	2.3	2.3	2.4	2.4	2.5	2.5	5.4
	소 계	6.2	6.5	7.3	7.5	6.3	6.2	6.1	6.0	5.9	5.9	-0.5

복지분야 의무지출 중 각 항목의 비중을 살펴보면, 공적연금은 2018년 46.1%에서 2025년에 50%를 넘어 2027년 52.5%로 6.4%p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사회보장과 공공부조, 복지분야 기타는 동 기간 각각 22.2%에서 20.5%로, 25.2%에서 23.9%로, 6.5%에서 3.1%로 각각 1.7%p, 1.3%p, 3.4%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0] 「NABO 재정전망」: 복지분야 의무지출 항목별 비중

(단위: 조원)



복지분야 의무지출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10년(2018~2027년) 간 총 42.9조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추가 재정소요(42.9조원)는 사회보장 29.3조원, 공공부조 6.0조원, 복지분야 기타 7.6조원으로 구성된다.

[표 33]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복지분야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 전망 (A)	복지분야 의무지출	95.8	110.2	120.6	130.0	138.1	144.6	154.9	166.2	177.1	188.3	7.8
	공적연금	44.1	50.1	55.5	61.2	67.0	69.7	76.7	83.9	91.2	98.8	9.4
	사회보장	21.3	23.7	26.4	28.3	30.2	31.7	33.4	35.4	37.0	38.7	6.9
	공공부조	24.1	29.9	31.4	33.0	34.6	36.9	38.7	40.9	42.9	45.0	7.2
	복지분야 기타	6.2	6.5	7.3	7.5	6.3	6.2	6.1	6.0	5.9	5.9	-0.5
NABO 기준선 (B)	복지분야 의무지출	95.8	108.9	117.2	125.5	134.0	139.9	149.5	160.1	170.6	181.6	7.4
	공적연금	44.1	50.1	55.5	61.2	67.0	69.7	76.7	83.9	91.2	98.8	9.4
	사회보장	21.3	23.3	24.9	26.0	27.3	28.3	29.4	30.7	32.0	33.5	5.2
	공공부조	24.1	29.4	30.9	32.5	34.0	36.3	38.0	40.1	42.1	44.1	6.9
	복지분야 기타	6.2	6.1	5.9	5.8	5.7	5.5	5.4	5.3	5.2	5.2	-2.0
차 이 (A-B)	복지분야 의무지출	0.0	1.4	3.5	4.5	4.1	4.7	5.4	6.1	6.5	6.7	42.9
	공적연금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사회보장	0.0	0.5	1.6	2.3	2.8	3.4	4.0	4.7	5.0	5.1	29.3
	공공부조	0.0	0.5	0.5	0.6	0.6	0.7	0.7	0.7	0.8	0.8	6.0
	복지분야 기타	0.0	0.5	1.4	1.7	0.7	0.7	0.7	0.7	0.7	0.7	7.6

복지분야 의무지출 항목 중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항목 또는 정책변화로 인해 NABO 재정전망과의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해 재정전망 결과 및 기준선과의 차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공적연금

□ 국민연금

국민연금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출로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금액은 수급자수에 급여 유형별 1인당 연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급여는 2018년 21.2조원에서 2027년 57.2조원으로 연평균 1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증가율은 지난 5년(2013~2017년) 간 연평균 증가율 9.8%에 비해 1.9%p 높은 것으로서, 지속적인 연금수급자 수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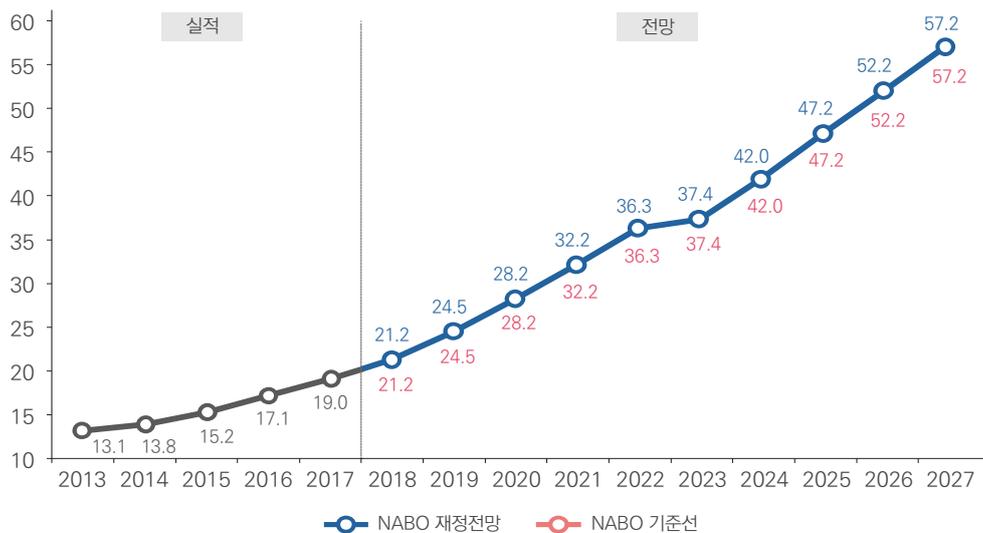
[표 34]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국민연금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국민연금 (GDP 대비 비율)	21.2 (1.2)	24.5 (1.3)	28.2 (1.4)	32.2 (1.6)	36.3 (1.7)	37.4 (1.7)	42.0 (1.8)	47.2 (1.9)	52.2 (2.0)	57.2 (2.2)	11.7

[그림 21]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국민연금

(단위: 조원)



□ 사학연금

사학연금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출로서 퇴직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로 구성된다. 각각의 금액은 수급자수에 급여 유형별 1인당 연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급여는 2018년 3.0조원에서 2027년 6.4조원으로 연평균 8.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연금수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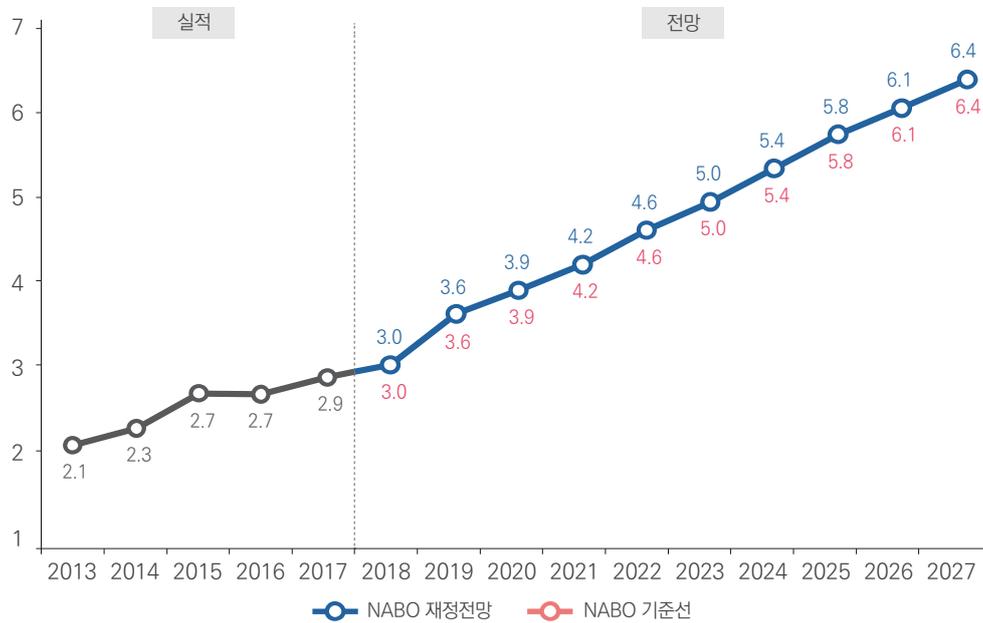
[표 35]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사학연금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사학연금 (GDP 대비 비율)	3.0 (0.2)	3.6 (0.2)	3.9 (0.2)	4.2 (0.2)	4.6 (0.2)	5.0 (0.2)	5.4 (0.2)	5.8 (0.2)	6.1 (0.2)	6.4 (0.2)	8.6

[그림 22]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사학연금

(단위: 조원)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급여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출로서 퇴직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로 구성된다.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급여는 2018년 16.7조원에서 2027년 30.1조원으로 연평균 6.8% 증가할 전망이다. 전망기간 중 전기 5년(2018~2022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7.1%로 전망기간 전체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0.3%p 높은데, 이는 2020년까지 동결되었던 퇴직연금이 2021년부터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는 계획이 반영된 결과이다.

공무원 수의 지속적인 증가, 평균수명 연장 및 노령화에 따라 연금수급자 수도 증가하여 공무원연금 지출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6]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공무원연금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공무원연금 (GDP 대비 비율)	16.7 (0.9)	18.5 (1.0)	19.6 (1.0)	21.0 (1.0)	22.0 (1.0)	23.1 (1.0)	24.8 (1.1)	26.3 (1.1)	28.0 (1.1)	30.1 (1.1)	6.8

[그림 23]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공무원연금

(단위: 조원)



□ 군인연금

군인연금급여는 2018년 3.2조원에서 2027년 5.1조원으로 연평균 5.2%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인상과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 수 증가에 기인한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기수급자의 연금액이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고 평균수명 증가 및 노령화에 따라 연금수급자 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군인연금 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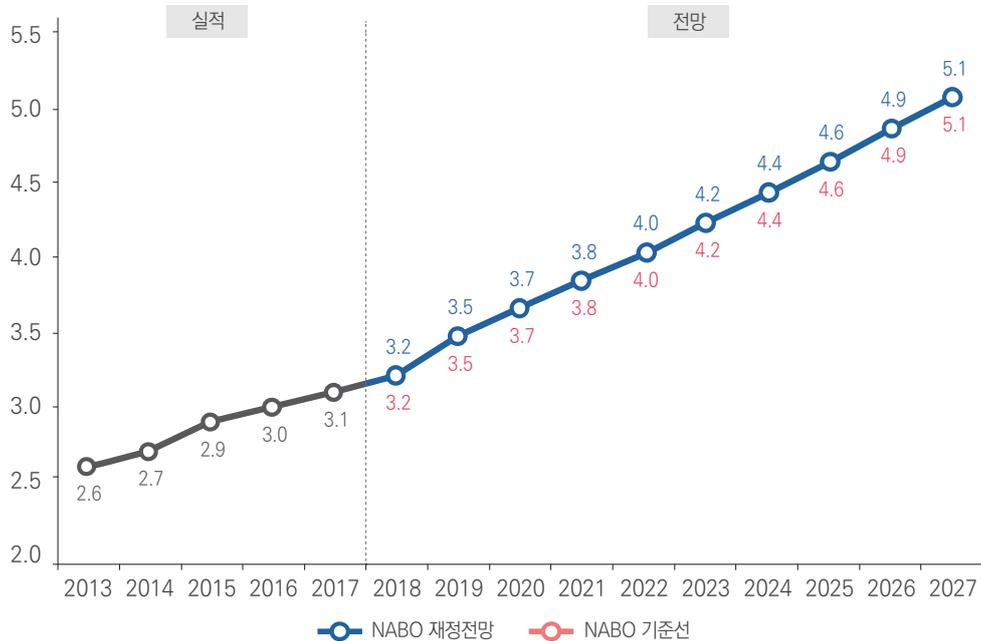
[표 37]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군인연금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군인연금 (GDP 대비 비율)	3.2 (0.2)	3.5 (0.2)	3.7 (0.2)	3.8 (0.2)	4.0 (0.2)	4.2 (0.2)	4.4 (0.2)	4.6 (0.2)	4.9 (0.2)	5.1 (0.2)	5.2

[그림 24]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군인연금

(단위: 조원)



(나) 사회보장

□ 건강보험

건강보험 의무지출은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과 공무원교원 건강보험부담금으로 나누어 전망한 후 합산한다.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의무지출은 2018년 7.9조원에서 2027년 15.2조원으로 연평균 7.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및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건강보험 인상률(매년 3.49%씩 인상)을 반영하여 전망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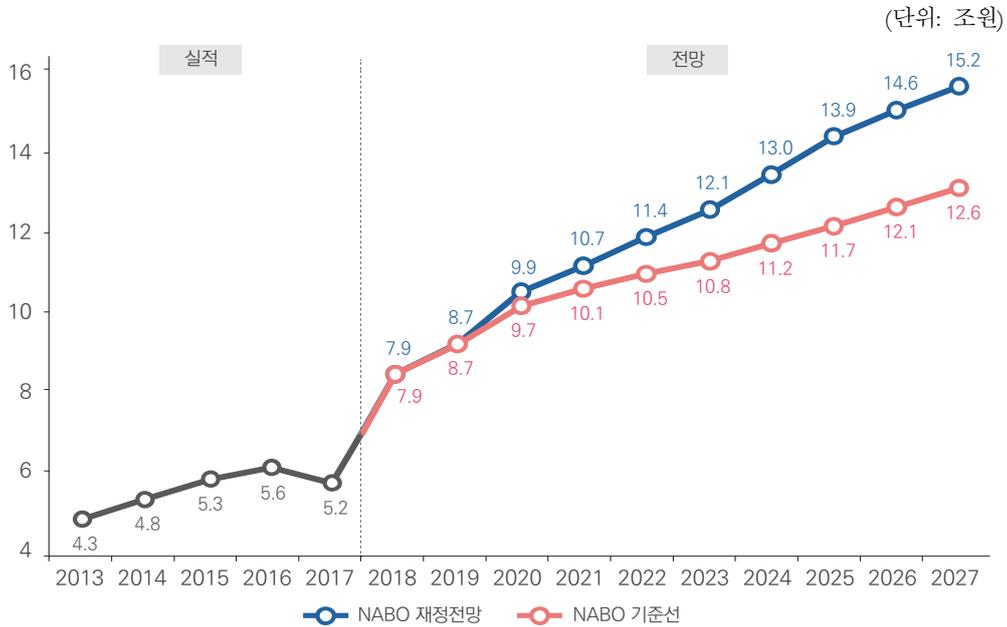
[표 3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건강보험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7.9	8.7	9.9	10.7	11.4	12.1	13.0	13.9	14.6	15.2	7.5
NABO 기준선(B)	7.9	8.7	9.7	10.1	10.5	10.8	11.2	11.7	12.1	12.6	5.3
차 이(A-B)	0.0	0.0	0.3	0.6	0.9	1.3	1.7	2.2	2.4	2.6	12.1

건강보험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10년(2018~2027년) 간 총 12.1조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차이는 NABO 기준선은 2019년 기결정된 건강보험료율 6.46%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그림 2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건강보험



□ 고용보험

고용보험기금의 의무지출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모성보호육아지원, 자영업자 실업급여로 구성된다. 구직급여는 다시 구직급여(순수),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로 구성되며, 모성보호육아지원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로 구성된다.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고용보험 의무지출은 2018년 7.6조원에서 2027년 13.6조원으로 연평균 6.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과거 5년(2013~2017년) 간 연평균 증가율(8.0%)보다 1.3%p 낮은 수준이다.

[표 39]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고용보험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7.6	8.9	9.9	10.6	11.4	11.8	12.1	12.6	13.1	13.6	6.7
NABO 기준선(B)	7.6	8.4	8.8	9.2	9.8	10.1	10.4	10.9	11.3	11.7	4.9
차 이(A-B)	0.0	0.5	1.1	1.5	1.6	1.6	1.7	1.7	1.8	1.9	합계 13.3

고용보험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10년(2018~2027년) 간 총 13.3조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차이는 2019년 이후 정책변화 효과에 의한 것으로, NABO 재정전망에 반영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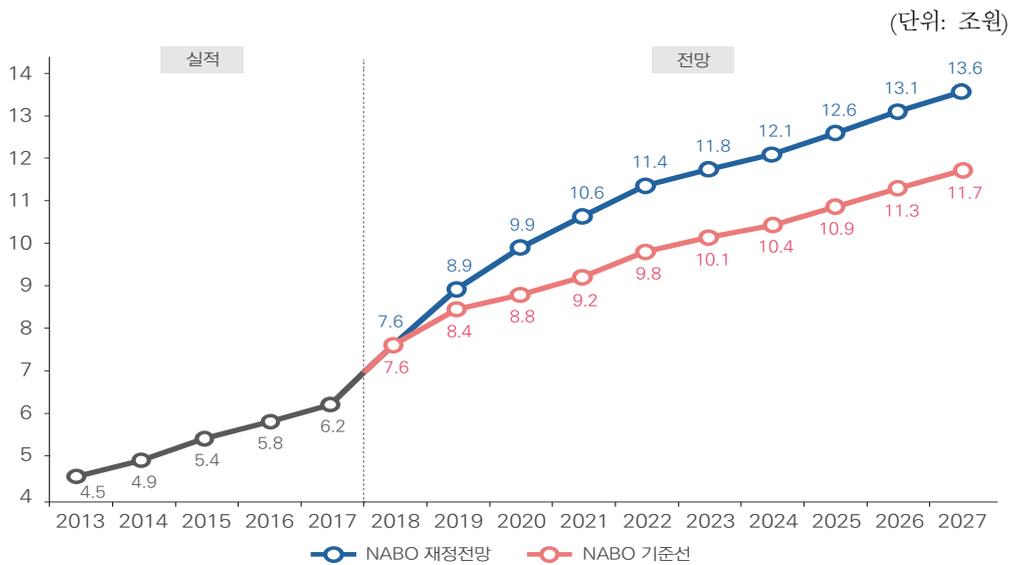
첫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연장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 포함)의 월 상한액을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둘째,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3개월 이후의 소득대체율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월 상·하한액을 50~100만원에서 70~120만원으로 인상하며, 육아휴직 특례(“아빠의달”)의 월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셋째,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는 사용기간을 현행 육아휴직 기간 포함하여 통산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할 계획이다. 임금 삭감 없는 1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획과 관련하여 일 최소 단축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조정하고, 최초 1시간 단축 시간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을 현행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확대하며, 월 상한액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넷째,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한 남성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에게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200만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림 2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고용보험



□ 산재보험

산재보험기금의 의무지출 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산재보험급여이며, 다시 세분화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급여로 구성된다.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산재보험급여는 2018년 5.0조원에서 2027년 7.4조원으로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과거 5년(2013~2017) 간 연평균 증가율(4.0%)에 비해 0.3%p 상회하는 수준이다.

[표 40]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산재보험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산재보험 (GDP 대비 비율)	5.0 (0.3)	5.1 (0.3)	5.3 (0.3)	5.6 (0.3)	5.8 (0.3)	6.1 (0.3)	6.4 (0.3)	6.7 (0.3)	7.0 (0.3)	7.4 (0.3)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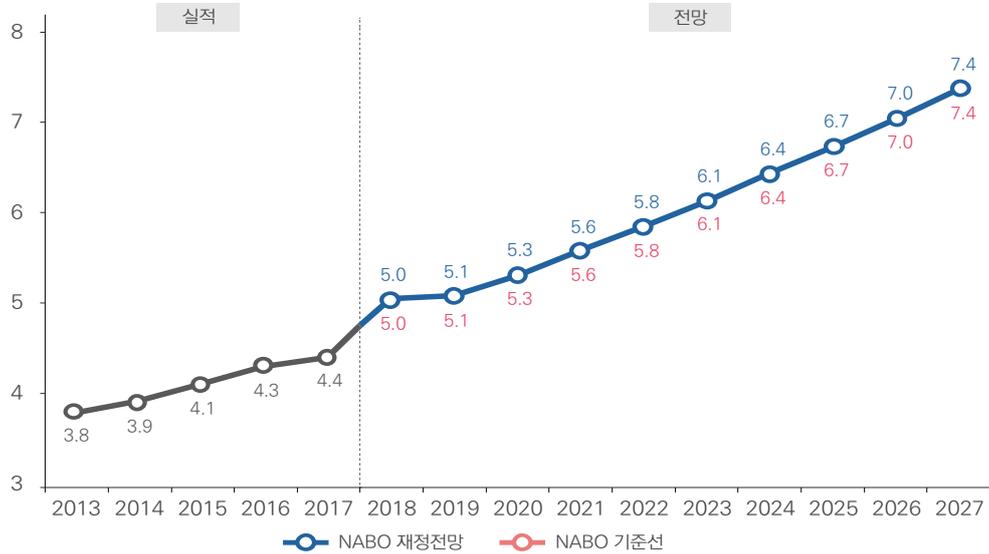
산재보험은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6월에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요 내용이 2018년에 시행되어 관련 재정소요를 NABO 기준선에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8년에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급여의 최저보상기준 금액(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의 2분의 1)이 일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명시되었다. 둘째, 유족보상연금의 수급 대상인 자녀의 범위가 19세 미만인 자녀에서 25세 미만인 자녀로 확대되었다.

[그림 27]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산재보험

(단위: 조원)



(다)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의무지출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문 중 보건복지부 소관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의료급여경상보조와 국토교통부 소관 주거급여, 교육부 소관 교육급여 등 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무지출은 2018년 10.4조원에서 2027년 18.8조원으로 연평균 6.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과거 5년(2013~2017년) 동안의 증가율(6.5%)에 비해 0.3%p 상회하는 수준이다.

[표 41]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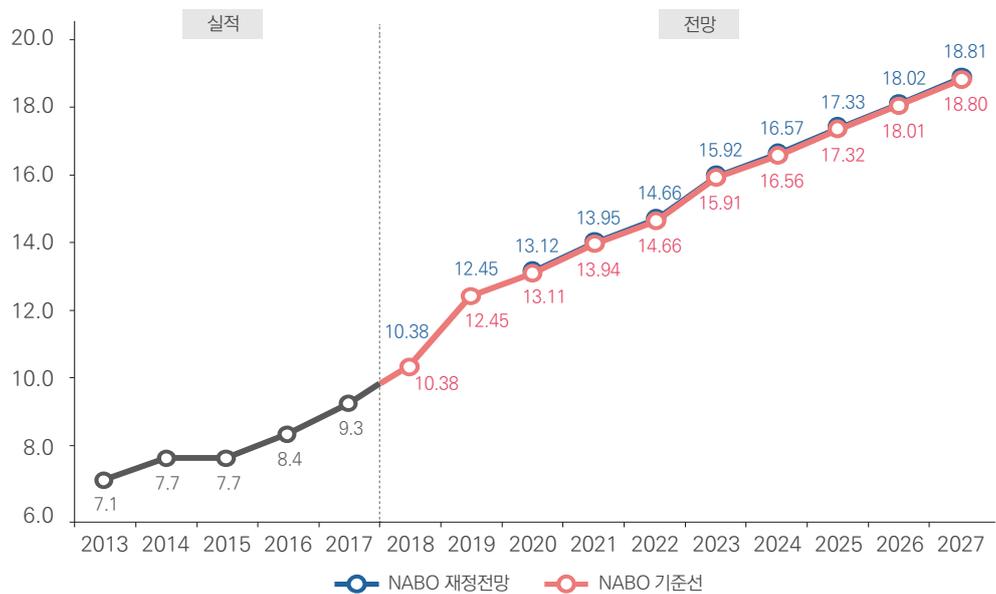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10.38	12.45	13.12	13.95	14.66	15.92	16.57	17.33	18.02	18.81	6.83
NABO 기준선(B)	10.38	12.45	13.11	13.94	14.66	15.91	16.56	17.32	18.01	18.80	6.82
차 이(A-B)	0.00	0.00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1	0.07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기준선에 대비해 10년(2018~2027년) 간 총 0.07조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NABO 재정전망과 기준선에 반영된 정책 변화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NABO 재정전망에 반영된 정책변화는 주거급여 임차료 인상 등이다.

[그림 2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

(단위: 조원)



□ 기초연금

정부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 지원을 위하여 국가재원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데,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자이며, 기초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2018년 10월 현재 월 25만원이다.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액은 2018년 9.1조원에서 2027년 20.2조원으로 연평균 9.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과거(2015~2017년)³³⁾ 기초연금 지급액의 연평균 증가율(4.6%)보다 4.6%p 상회하는 수준이다.

33) 기초연금은 201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과거 실적과의 비교에 있어 기간을 2015~2017년으로 하였다.

[표 4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초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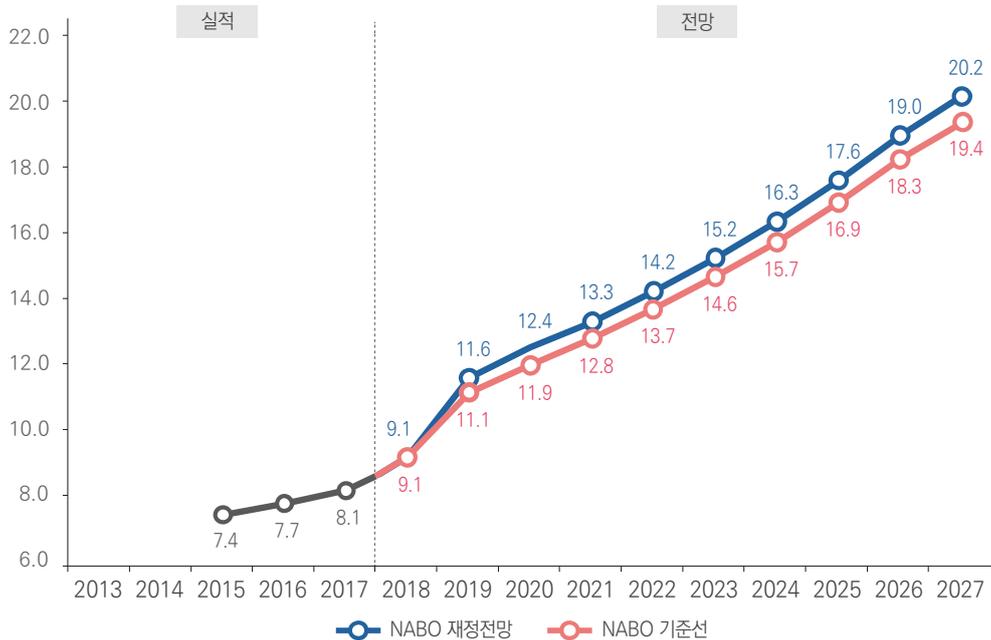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9.1	11.6	12.4	13.3	14.2	15.2	16.3	17.6	19.0	20.2	9.2
NABO 기준선(B)	9.1	11.1	11.9	12.8	13.7	14.6	15.7	16.9	18.3	19.4	8.7
차 이(A-B)	0.0	0.4	0.5	0.5	0.5	0.6	0.6	0.7	0.7	0.8	합계 5.4

기초연금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10년(2018~2027년) 간 총 5.4조원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NABO 재정전망과 기준선에 반영된 정책변화의 차이에 따른 것인데, NABO 재정전망에서는 소득하위 70% 노인 중 저소득층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현행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가정하여 전망하였다.

[그림 29]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초연금

(단위: 조원)



□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2018.3.27. 공포)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³⁴⁾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2018년 0.7조원에서 2027년 1.7조원으로 연평균 10.4% 증가하여 2018~2027년 간 총 17.1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된다.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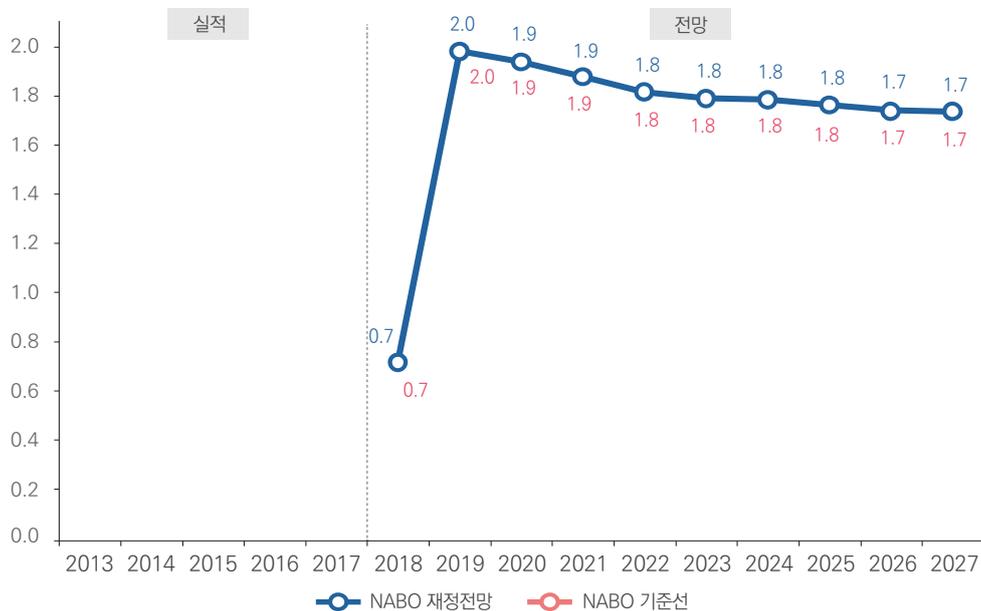
[표 43]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아동수당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아동수당 (GDP 대비 비율)	0.7 (0.04)	2.0 (0.11)	1.9 (0.10)	1.9 (0.09)	1.8 (0.08)	1.8 (0.08)	1.8 (0.08)	1.8 (0.07)	1.7 (0.07)	1.7 (0.07)	10.4

[그림 30]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아동수당

(단위: 조원)



34)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지출로 분류하였다.

35) 아동수당 제도는 신규 도입되는 제도이므로 NABO 기준선과의 차이는 없다.

□ 장애인연금

정부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은 2018년 0.6조원에서 2027년 0.9조원으로 연평균 4.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연금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10년(2018~2027년) 간 총 0.5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망 기간 동안 기초연금법의 기준연금액 인상³⁶⁾에 연동하여, 소득하위 30%(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19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는 계획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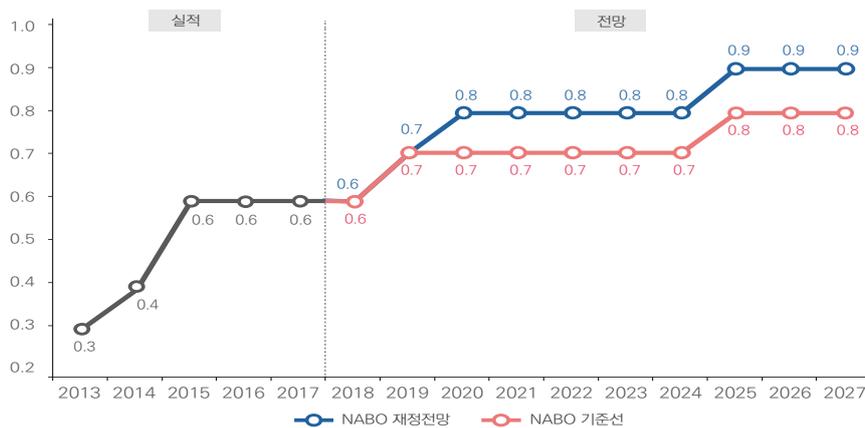
[표 44]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장애인연금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0.6	0.7	0.8	0.8	0.8	0.8	0.8	0.9	0.9	0.9	4.2
NABO 기준선(B)	0.6	0.7	0.7	0.7	0.7	0.7	0.7	0.8	0.8	0.8	3.4
차 이(A-B)	0.0	0.0	0.0	0.1	0.1	0.1	0.1	0.1	0.1	0.1	0.5

[그림 31]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장애인연금

(단위: 조원)



- 36) 「장애인연금법」 제6조(기초급여액) ① 기초급여의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법」 9조제3항에 따라 기준연금액을 고시한 경우 그 기준연금액을 기초급여액으로 한다.

(라) 복지분야 기타

□ 보훈

보훈분야의 의무지출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간호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6.25자녀수당·무공영예수당·사망일시금 및 보철구지급 등이 해당된다.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보훈분야 의무지출은 2018년 4.6조원에서 2027년 3.4조원으로 연평균 3.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보상금 등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지만, 그 외 기타 수당 등은 현행 수준으로 동결인 상황에서 지원 대상자의 고령화로 인한 지급대상자 수 감소에 기인한다.

[표 4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보훈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4.6	4.5	4.4	4.2	4.0	3.9	3.7	3.6	3.5	3.4	-3.4
NABO 기준선(B)	4.6	4.5	4.3	4.1	4.0	3.8	3.7	3.5	3.4	3.3	-3.6
차 이(A-B)	0.0	0.1	0.1	0.1	0.1	0.1	0.1	0.1	0.1	0.1	합계 0.5

보훈분야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10년(2018~2027년) 간 총 0.5조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준선과의 차이는 정책변화의 효과에 기인하는데 NABO 재정전망에서 가정한 보훈분야의 주요 정책 변화는 정부 계획을 수용한 것으로 다음과 같다.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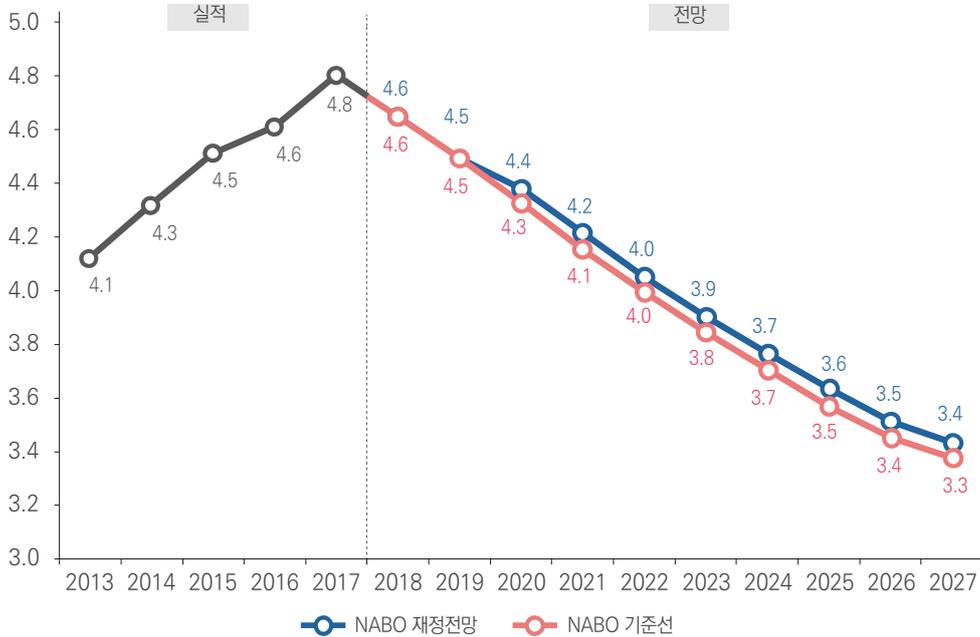
첫째, 국가유공자(간호수당, 4.19, 고엽제 포함) 및 애국지사·독립유공자³⁸⁾ 등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매년 3.5%씩 인상되는 것으로 하였다. 둘째, 전문순직군경 유족 및 자녀에 대한 보상금은 매년 5.5%씩 인상되는 것으로 하였다. 셋째, 그 외 모든 단가들은 2018년 기준으로 동결인 것으로 하였다.

37) 보훈은 기준선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전망한다.

38) 독립유공자 중 대통령표창을 받은 이들의 경우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2019년은 3.5% 인상하고 추가로 10만원을 더 인상하는 계획을 반영하였고 이후인 2020~2027년은 매년 3.5%씩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전망한다.

[그림 3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보훈

(단위: 조원)



(2) 지방이전재원

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³⁹⁾로 구성된다. 지방이전재원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수입 중 일반회계인 내국세와 담배분 개별소비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지방이전재원은 2018년 99.4조원에서 2027년 164.9조원으로 연평균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NABO 재정전망은 2018년 지방이전재원 전망치와 2018년 예산 간의 차액(2018년 정산분)이 「지방교부세법」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라 2년 뒤인 2020년에 모두 정산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로 인해 2020년 지방이전재원은 128.4조원(GDP 대비 6.6%)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9)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른 3년(2017~2019년) 한시(동 법 부칙 제2조) 특별회계이다.

[표 4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지방이전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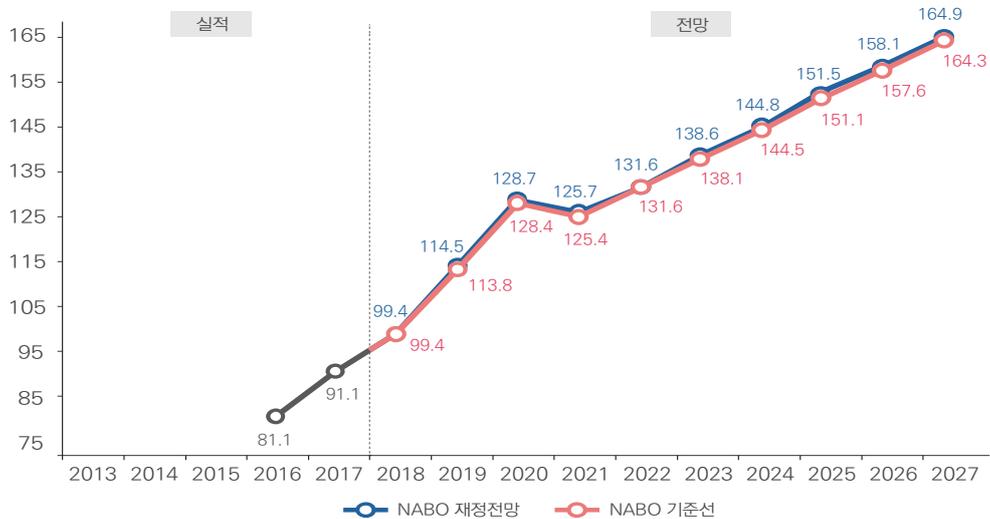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99.4	113.8	128.4	125.4	131.6	138.6	144.8	151.5	158.1	164.9	5.8
NABO 기준선(B)	99.4	114.5	128.7	125.7	131.6	138.1	144.5	151.1	157.6	164.3	5.7
차 이(A-B)	0.0	-0.7	-0.3	-0.3	0.0	0.5	0.3	0.4	0.5	0.6	1.0

지방이전재원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10년(2018~2027년) 간 총 1.0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9년부터 적용되는 정부의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가 반영됨에 따른 결과이다. 세부적으로 NABO 재정전망과 기준선 간의 차이가 2018년 -0.7조원에서 2022년 0.0조원으로 줄어들었다가 이후 2023년부터 다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지방이전재원

(단위: 조원)



(3) 이자지출

이자지출은 공공자금관리기금 부담으로 발행한 국고채권 이자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주택도시기금에서 발행한 국공채 이자, 기타 이자지출 등으로 구성된다.

전망 결과에 따르면, 이자지출은 2018년 16.0조원에서 2027년 26.6조원으로 연평균 5.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지출 증가는 재정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국고채 발행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의 이자지출이 증가한 것에 대부분 기인한다.

[표 4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이자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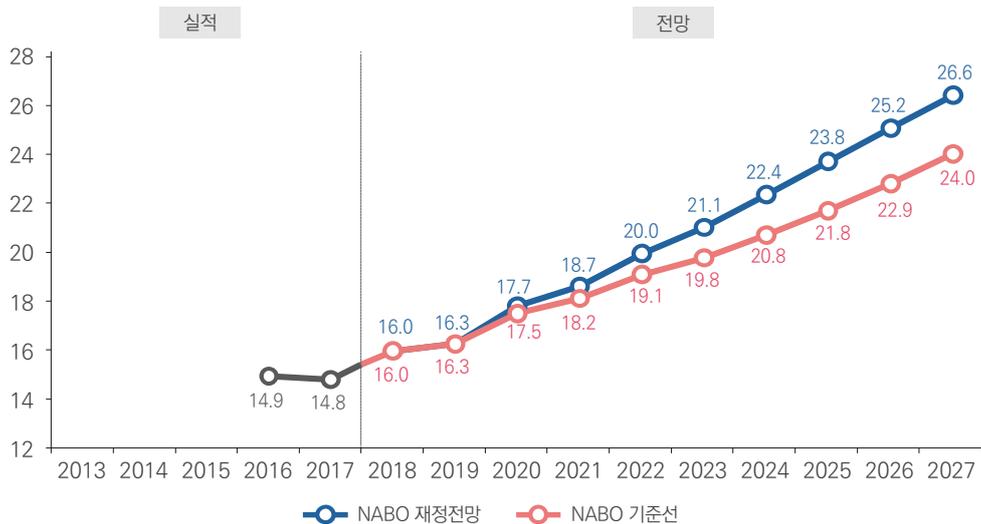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16.0	16.3	17.7	18.7	20.0	21.1	22.4	23.8	25.2	26.6	5.8
NABO 기준선(B)	16.0	16.3	17.5	18.2	19.1	19.8	20.8	21.8	22.9	24.0	4.6
차 이(A-B)	0.0	0.0	0.2	0.5	0.9	1.3	1.7	2.0	2.3	2.5	11.4

이자지출의 기준선 대비 추가재정소요는 10년(2018~2027년) 간 총 11.4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지출에서 기준선과의 차이는 관리재정수지 전망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재정전망의 관리재정수지가 기준선에 비해 적자폭이 큼에 따라 국채발행이 증가하고 이자지출도 증가하기 때문이다.⁴⁰⁾

[그림 34]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이자지출

(단위: 조원)



40) 2018년부터 발생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당해 연도 국가채무에 반영되고 이듬해 2019년부터 이자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4) 기타 의무지출

기타 의무지출은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등이 해당되는데, 전망결과 2018년 5.8조원에서 2027년 5.6조원으로 연평균 0.4%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무지출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10년(2018~2027년) 간 총 7.0조원의 재정소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망에 적용한 증가율 가정 차이로 인한 것으로, NABO 기준선 전망은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한다고 가정한 반면, NABO 재정전망에서는 정부 예산안의 상승률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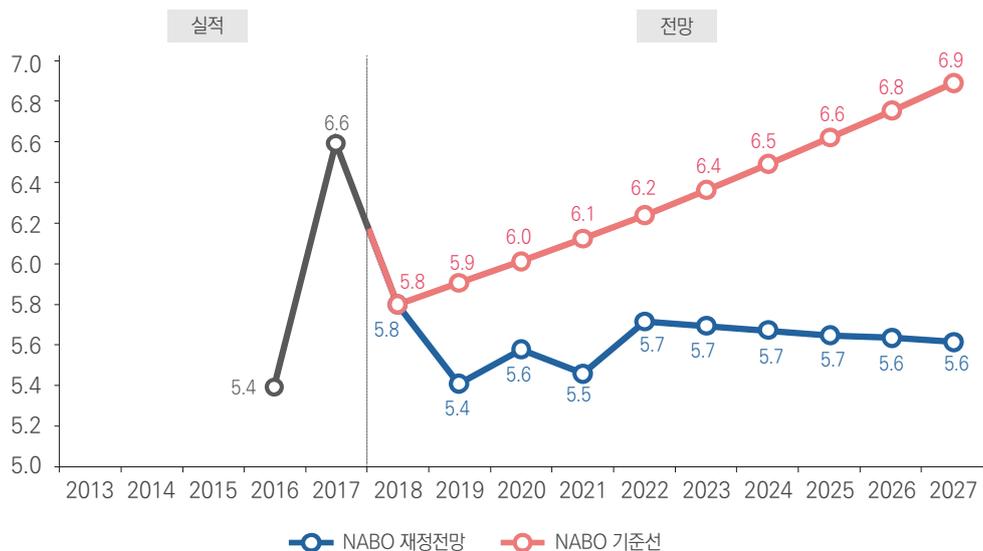
[표 4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타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5.8	5.4	5.6	5.5	5.7	5.7	5.7	5.7	5.6	5.6	-0.4
NABO 기준선(B)	5.8	5.9	6.0	6.1	6.2	6.4	6.5	6.6	6.8	6.9	1.9
차 이(A-B)	0.0	-0.5	-0.4	-0.7	-0.5	-0.7	-0.8	-1.0	-1.1	-1.3	합계 -7.0

[그림 35]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기타 의무지출

(단위: 조원)



다. 재량지출

재량지출은 2018년 215.7조원(GDP 대비 12.0%)에서 2027년 314.1조원(GDP 대비 11.8%)으로 연평균 4.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5년(2013~2017년) 간 연평균 증가율(3.2%)에 비해 1.1%p 상회하는 수준이다.

[표 49]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재량지출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GDP 대비 비율)	215.7 (12.0)	228.8 (12.2)	246.4 (12.6)	260.5 (12.7)	273.0 (12.7)	281.2 (12.6)	289.6 (12.4)	297.9 (12.2)	306.1 (12.0)	314.1 (11.8)	4.3
NABO 기준선(B) (GDP 대비 비율)	215.7 (12.0)	221.0 (11.8)	231.3 (11.8)	242.0 (11.8)	253.0 (11.8)	264.5 (11.8)	276.5 (11.8)	288.8 (11.8)	301.3 (11.8)	314.1 (11.8)	4.3
차 이(A-B)	0.0	7.7	15.1	18.5	20.0	16.7	13.1	9.1	4.8	0.0	합계 1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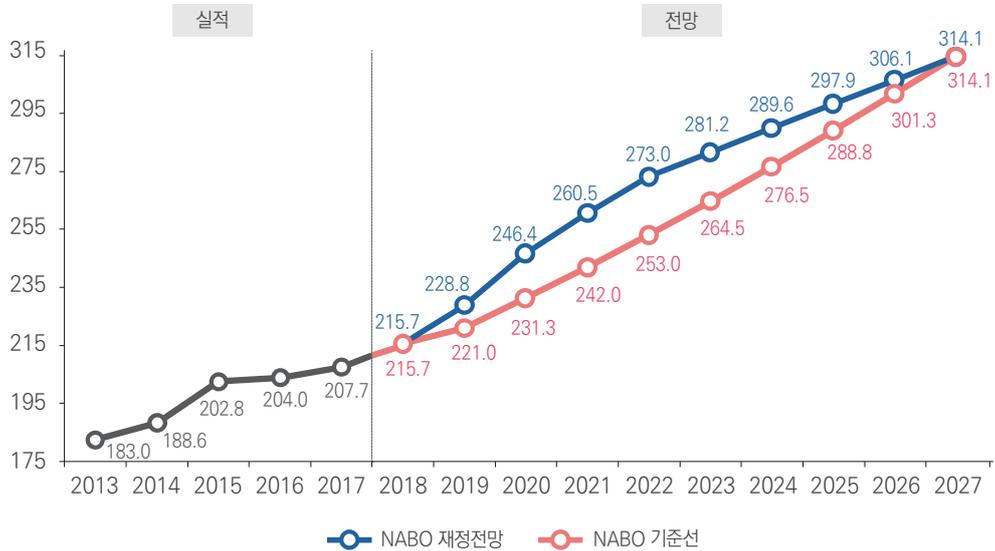
재량지출의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10년(2018~2027년) 간 총 105.0조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전망과 기준선 차이는 전망방법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재정전망은 2022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재량지출이 동일하다고 가정함에 따라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2018년 12.0%에서 2022년 12.7%까지 점차 상승한다. 2023년 이후는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2022년 12.7%에서 11.8%(2027년)까지 매년 점점 하락하는 것으로 가정함에 따라 재량지출 증가가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기준선의 재량지출은 2019년부터 매년 동일하게 2018년 본예산 기준 재량지출의 GDP 대비 비율 11.8%⁴¹⁾가 유지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재정전망의 재량지출이 GDP 대비 비율 11.8%(2027년)에 수렴할 때까지는 기준선이 항상 재정전망을 하회하게 된다.

41) [표 49]에서 2018년의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이 12.0%인 이유는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추경에서 증액분(재량지출에서 전액 증액)을 차감할 경우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은 11.8%가 된다.

[그림 36]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재량지출

(단위: 조원)



주: 2016년까지는 본예산 및 추경예산 기준이고 2017년은 결산 기준이며, 2018년부터는 전망치임

4. 재정수지

가. 개 관

재정수지 전망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30.8조원 흑자에서 2020년 13.7조원 적자로 전환된 후 2027년 28.8조원 적자로 적자폭이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비율도 2018년 1.7%에서 2027년 -1.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 11.8조원 적자에서 2027년 57.4조원 적자로 적자폭이 계속 커지며, 그에 따라 GDP 대비 비율도 2018년 -0.7%에서 2027년 -2.2%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표 50] 「NABO 재정전망」: 재정수지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GDP 대비 비율)	463.5 (25.8)	483.7 (25.8)	505.0 (25.8)	526.5 (25.7)	549.6 (25.7)	574.1 (25.6)	597.1 (25.5)	621.5 (25.4)	645.8 (25.3)	670.7 (25.2)	4.2
총지출 (GDP 대비 비율)	432.7 (24.1)	474.5 (25.3)	518.6 (26.5)	540.0 (26.4)	568.5 (26.5)	591.1 (26.4)	617.4 (26.4)	645.1 (26.4)	672.1 (26.3)	699.5 (26.3)	5.5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30.8 (1.7)	9.2 (0.5)	-13.7 (-0.7)	-13.5 (-0.7)	-19.0 (-0.9)	-17.0 (-0.8)	-20.3 (-0.9)	-23.6 (-1.0)	-26.3 (-1.0)	-28.8 (-1.1)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GDP 대비 비율)	42.7 (2.4)	42.5 (2.3)	40.4 (2.1)	37.9 (1.9)	35.9 (1.7)	37.3 (1.7)	35.2 (1.5)	32.8 (1.3)	30.7 (1.2)	28.6 (1.1)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1.8 (-0.7)	-33.3 (-1.8)	-54.0 (-2.8)	-51.5 (-2.5)	-54.9 (-2.6)	-54.3 (-2.4)	-55.6 (-2.4)	-56.3 (-2.3)	-57.0 (-2.2)	-57.4 (-2.2)	

나. 통합재정수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전망기간(2018~2027년) 동안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폭이 감소(2018년 42.7조원에서 2027년 28.6조원)함에 따라 2020년 적자로 전환되며 그 이후 적자폭이 점점 커질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의 증가는 총수입이 2018년 463.5조원에서 2027년 670.7조원으로 증가(연평균 4.2%)하는 것에 비해 동 기간 총지출이 432.7조원에서 2027년 699.5조원으로 더 빠르게 증가(연평균 5.5%)함에 기인한다.

통합재정수지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10년(2018~2027년) 간 총 147.0조원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NABO 재정전망과 기준선 간 통합재정수지의 격차는 2019년 -9.1조원에서 2022년 -24.1조원으로 증가하였다가 이후 2027년 -6.7조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2018년을 제외하고 2019~2027년 간 기준선보다 NABO 재정전망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기준선과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전망기간 동안 총수입은 기준선 대비 총 6.3조원 증가한데 비해, 총지출은 기준선 대비 총 153.3조원 증가함으로써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빠르게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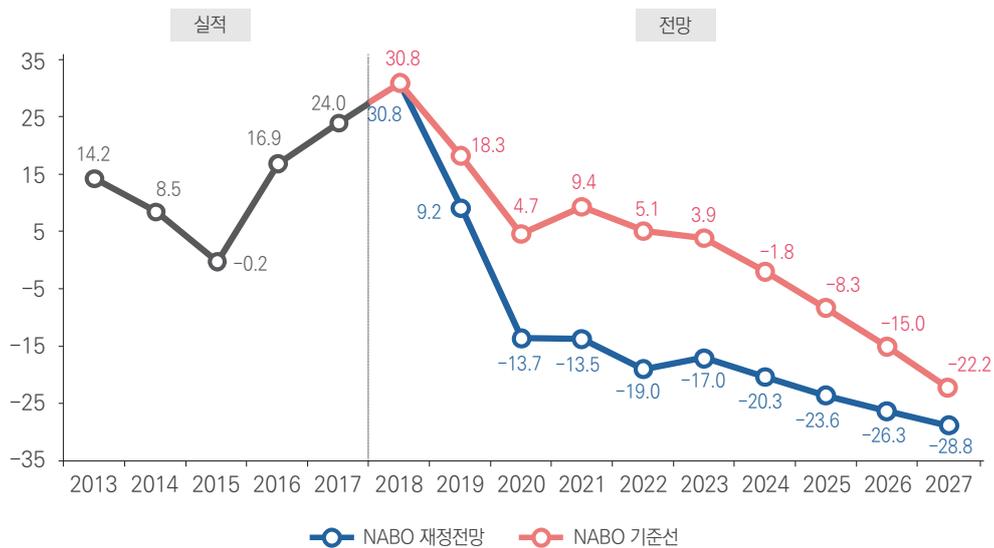
[표 51]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통합재정수지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 전망 (A)	총수입 (GDP 대비 비율)	463.5 (25.8)	483.7 (25.8)	505.0 (25.8)	526.5 (25.7)	549.6 (25.7)	574.1 (25.6)	597.1 (25.5)	621.5 (25.4)	645.8 (25.3)	670.7 (25.2)	4.2
	총지출 (GDP 대비 비율)	432.7 (24.1)	474.5 (25.3)	518.6 (26.5)	540.0 (26.4)	568.5 (26.5)	591.1 (26.4)	617.4 (26.4)	645.1 (26.4)	672.1 (26.3)	699.5 (26.3)	5.5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30.8 (1.7)	9.2 (0.5)	-13.7 (-0.7)	-13.5 (-0.7)	-19.0 (-0.9)	-17.0 (-0.8)	-20.3 (-0.9)	-23.6 (-1.0)	-26.3 (-1.0)	-28.8 (-1.1)	
NABO 기준선 (B)	총수입 (GDP 대비 비율)	463.5 (25.8)	484.9 (25.9)	505.3 (25.8)	526.9 (25.7)	549.1 (25.6)	572.5 (25.6)	596.0 (25.5)	620.1 (25.4)	644.1 (25.2)	668.7 (25.1)	4.2
	총지출 (GDP 대비 비율)	432.7 (24.1)	466.6 (24.9)	500.7 (25.6)	517.5 (25.3)	544.0 (25.4)	568.6 (25.4)	597.8 (25.5)	628.4 (25.7)	659.1 (25.8)	690.9 (26.0)	5.3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30.8 (1.7)	18.3 (1.0)	4.7 (0.2)	9.4 (0.5)	5.1 (0.2)	3.9 (0.2)	-1.8 (-0.1)	-8.3 (-0.3)	-15.0 (-0.6)	-22.2 (-0.8)	
차 이 (A-B)	총수입	0.0	-1.2	-0.4	-0.4	0.4	1.7	1.1	1.4	1.7	2.0	합계 6.3
	총지출	0.0	7.9	18.0	22.5	24.5	22.5	19.6	16.7	13.0	8.6	153.3
	통합재정수지	0.0	-9.1	-18.3	-23.0	-24.1	-20.9	-18.5	-15.3	-11.3	-6.7	-147.0

[그림 37]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통합재정수지

(단위: 조원)



다.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 -11.8조원에서 2027년 -57.4조원으로 5배 정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GDP 대비 비율도 2018년 -0.7%에서 2027년 -2.2%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적자 규모의 지속적 확대는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총수입의 증가(연평균 증가율 4.2%)보다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을 제외한 총지출 증가(연평균 증가율 5.0%)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표 52〕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관리재정수지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 전망 (A)	총수입 (GDP 대비 비율)	377.6 (21.0)	392.4 (21.0)	409.8 (20.9)	427.5 (20.9)	446.7 (20.9)	467.4 (20.9)	486.5 (20.8)	506.6 (20.7)	526.5 (20.6)	546.9 (20.6)	4.2
	총지출 (GDP 대비 비율)	389.4 (21.7)	425.7 (22.7)	463.9 (23.7)	478.9 (23.4)	501.6 (23.4)	521.7 (23.3)	542.0 (23.2)	562.9 (23.0)	583.5 (22.9)	604.3 (22.7)	5.0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1.8 (-0.7)	-33.3 (-1.8)	-54.0 (-2.8)	-51.5 (-2.5)	-54.9 (-2.6)	-54.3 (-2.4)	-55.6 (-2.4)	-56.3 (-2.3)	-57.0 (-2.2)	-57.4 (-2.2)	
NABO 기준선 (B)	총수입 (GDP 대비 비율)	377.6 (21.0)	395.2 (21.1)	411.9 (21.0)	429.8 (21.0)	448.3 (20.9)	467.9 (20.9)	487.6 (20.8)	507.5 (20.8)	527.2 (20.7)	547.5 (20.6)	4.2
	총지출 (GDP 대비 비율)	389.4 (21.7)	418.3 (22.3)	447.0 (22.8)	457.9 (22.3)	478.7 (22.3)	500.8 (22.4)	524.1 (22.4)	547.9 (22.4)	572.3 (22.4)	597.6 (22.5)	4.9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1.8 (-0.7)	-23.1 (-1.2)	-35.1 (-1.8)	-28.1 (-1.4)	-30.4 (-1.4)	-33.0 (-1.5)	-36.5 (-1.6)	-40.5 (-1.7)	-45.1 (-1.8)	-50.1 (-1.9)	
차 이 (A-B)	총수입	0.0	-2.8	-2.1	-2.3	-1.6	-0.4	-1.1	-0.9	-0.8	-0.6	합계 -12.6
	총지출	0.0	7.4	16.9	21.1	22.9	20.9	18.0	15.0	11.2	6.8	140.1
	관리재정수지	0.0	-10.2	-19.0	-23.4	-24.5	-21.4	-19.0	-15.9	-12.0	-7.4	-1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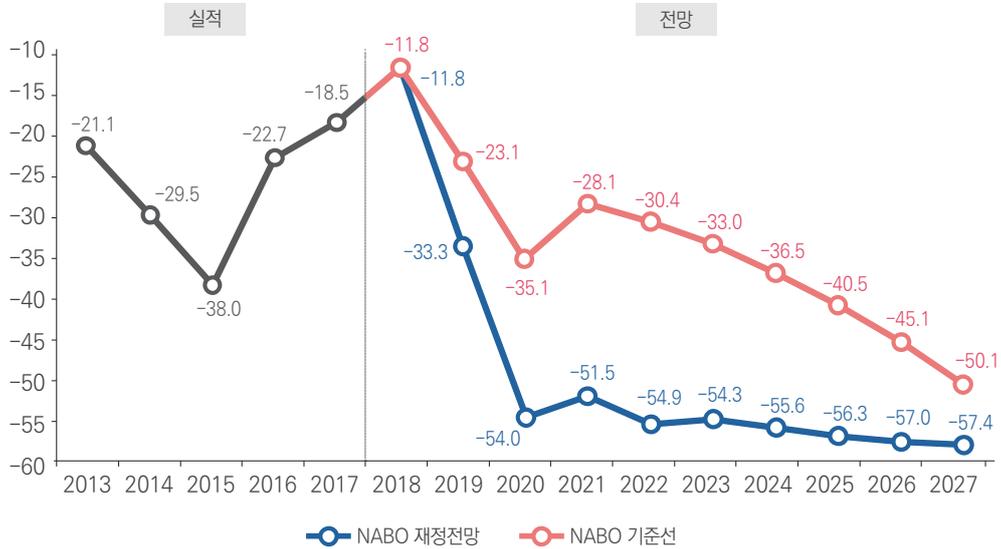
주: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사회보장성기금 수입과 지출을 제외한 금액임

NABO 재정전망과 기준선 간 관리재정수지의 차이는 2019년 -10.2조원에서 2022년 -24.5조원까지 확대되었다가 이후 2027년 -7.4조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그 격차가 2019년 -0.6%p에서 2022년 -1.2%p로 확대되었다가 2027년 -0.3%p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같이 기준선과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전망기간 동안 사회보장성기금 수입과 지출을 제외한 총수입은 기준선 대비 총 12.6조원 감소한데 반해 총지출은 기준선 대비 총 140.1조원 증가함에 따라 수입과 지출 간의 수지 차이가 커짐에 따른 결과이다.

[그림 38]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관리재정수지

(단위: 조원)



라.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는 2018년 42.7조원에서 2027년 28.6조원으로 점점 감소하고 GDP 대비 비율도 동 기간 2.4%에서 1.1%로 점점 감소할 전망이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은 동 기간 85.9조원(GDP 대비 4.8%)에서 123.8조원(GDP 대비 4.7%)으로 연평균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은 동 기간 43.2조원(GDP 대비 2.4%)에서 95.2조원(GDP 대비 3.6%)으로 연평균 9.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수입의 증가속도(연평균 증가율 4.1%)보다 지출의 증가속도(연평균 증가율 9.2%)가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재정전망은 기준선에 비해 10년(2018~2027년) 간 총 5.6조원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사회보장성기금 수입과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기준선보다 높게 전망된 것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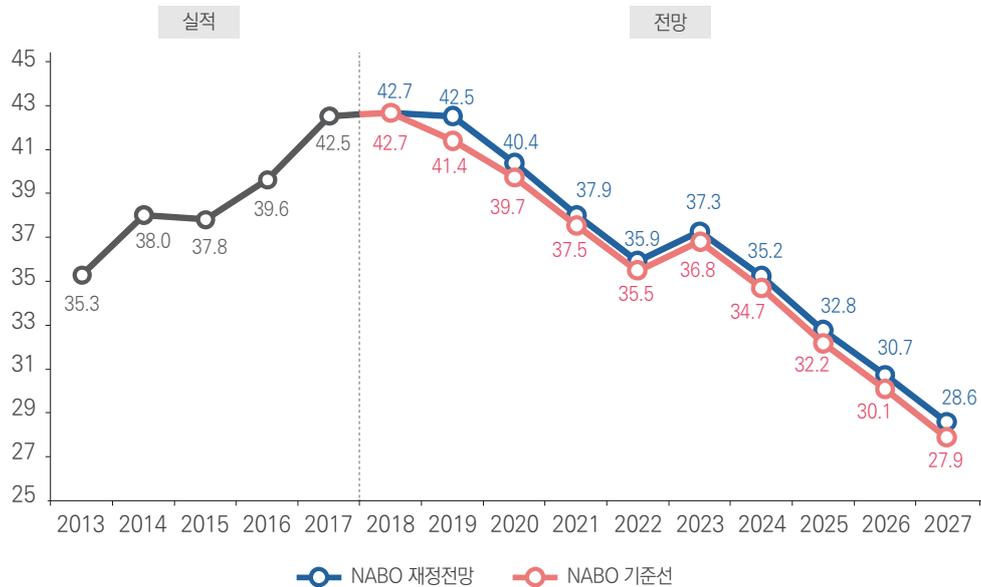
[표 53]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 전망 (A)	수 입 (GDP 대비 비율)	85.9 (4.8)	91.3 (4.9)	95.2 (4.9)	99.0 (4.8)	102.8 (4.8)	106.7 (4.8)	110.6 (4.7)	115.0 (4.7)	119.4 (4.7)	123.8 (4.7)	4.1
	지 출 (GDP 대비 비율)	43.2 (2.4)	48.8 (2.6)	54.8 (2.8)	61.1 (3.0)	66.9 (3.1)	69.4 (3.1)	75.4 (3.2)	82.2 (3.4)	88.6 (3.5)	95.2 (3.6)	9.2
	수 지 (GDP 대비 비율)	42.7 (2.4)	42.5 (2.3)	40.4 (2.1)	37.9 (1.9)	35.9 (1.7)	37.3 (1.7)	35.2 (1.5)	32.8 (1.3)	30.7 (1.2)	28.6 (1.1)	
NABO 기준선 (B)	수 입 (GDP 대비 비율)	85.9 (4.8)	89.7 (4.8)	93.4 (4.8)	97.1 (4.7)	100.9 (4.7)	104.6 (4.7)	108.4 (4.6)	112.6 (4.6)	116.9 (4.6)	121.2 (4.6)	3.9
	지 출 (GDP 대비 비율)	43.2 (2.4)	48.3 (2.6)	53.7 (2.7)	59.6 (2.9)	65.4 (3.1)	67.8 (3.0)	73.7 (3.1)	80.4 (3.3)	86.8 (3.4)	93.3 (3.5)	8.9
	수 지 (GDP 대비 비율)	42.7 (2.4)	41.4 (2.2)	39.7 (2.0)	37.5 (1.8)	35.5 (1.7)	36.8 (1.6)	34.7 (1.5)	32.2 (1.3)	30.1 (1.2)	27.9 (1.0)	
차 이 (A-B)	수 입	0.0	1.6	1.8	1.9	2.0	2.1	2.2	2.3	2.4	2.6	합계 18.9
	지 출	0.0	0.5	1.1	1.5	1.6	1.6	1.7	1.7	1.8	1.9	13.3
	수 지	0.0	1.2	0.7	0.4	0.4	0.5	0.6	0.6	0.6	0.7	5.6

[그림 39]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18.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사회보장성기금을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으로 나누어 살펴 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2018년 이후 2019년부터 적용될 정책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준선과 차이는 없다. 그에 비해 고용보험은 보험료를 상향조정으로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연금수지는 2018년 39.8조원(GDP 대비 2.2%)에서 2027년 27.8조원(GDP 대비 1.0%)으로 전망기간 동안 흑자가 지속되지만 흑자폭은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출은 연금수급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8년 21.9조원에서 2027년 58.2조원으로 연평균 1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입은 기준소득월액 상승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수 증가세가 둔화⁴²⁾되면서 2018년 61.6조원에서 2027년 86.1조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것에 기인한다.

[표 54] 「NABO 재정전망」: 국민연금수지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수입 (GDP 대비 비율)	61.6 (3.4)	64.6 (3.4)	66.9 (3.4)	69.4 (3.4)	72.0 (3.4)	74.5 (3.3)	77.0 (3.3)	80.0 (3.3)	83.1 (3.3)	86.1 (3.2)	3.8
지출 (GDP 대비 비율)	21.9 (1.2)	25.2 (1.3)	29.0 (1.5)	32.9 (1.6)	37.2 (1.7)	38.3 (1.7)	42.9 (1.8)	48.2 (2.0)	53.2 (2.1)	58.2 (2.2)	11.5
수지 (GDP 대비 비율)	39.8 (2.2)	39.4 (2.1)	37.9 (1.9)	36.5 (1.8)	34.8 (1.6)	36.2 (1.6)	34.1 (1.5)	31.9 (1.3)	29.9 (1.2)	27.8 (1.0)	-

사학연금수지는 2018년 1.2조원(GDP 대비 0.07%) 흑자에서 2027년 0.4조원(GDP 대비 -0.02%) 적자로 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수입은 가입자 수 증가 및 기준소득월액 상승으로 2018년 5.3조원에서 2027년 7.2조원으로 연평균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지출은 연금수급자 수 증가 등으로 동 기간 4.2조원에서 2027년 7.6조원으로 연평균 6.9%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42) 2016년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 인구(15~60세) 중 주요 가입연령인 20~60세의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2017년 이후 가입자 수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표 55] 「NABO 재정전망」: 사학연금수지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수입 (GDP 대비 비율)	5.3 (0.3)	5.4 (0.3)	5.7 (0.3)	5.9 (0.3)	6.1 (0.3)	6.3 (0.3)	6.6 (0.3)	6.8 (0.3)	7.0 (0.3)	7.2 (0.3)	3.4
지출 (GDP 대비 비율)	4.2 (0.2)	4.8 (0.3)	5.1 (0.3)	5.4 (0.3)	5.8 (0.3)	6.1 (0.3)	6.5 (0.3)	6.9 (0.3)	7.2 (0.3)	7.6 (0.3)	6.9
수지 (GDP 대비 비율)	1.17 (0.065)	0.60 (0.032)	0.62 (0.032)	0.56 (0.027)	0.36 (0.017)	0.21 (0.010)	0.04 (0.002)	-0.16 (-0.006)	-0.29 (-0.011)	-0.40 (-0.015)	-

고용보험수지는 2018년 -0.6조원(GDP 대비 -0.03%)에서 2027년 -1.7조원(GDP 대비 -0.07%)으로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수입의 경우, 정부는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와 저출산대책에 따른 모성보호육아지원 확대를 고려하여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인상할 계획인데, 이에 따라 기금 수입은 2018~2027년 동안 연평균 6.1%씩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기금 지출은 구직급여의 급여기간 연장,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확대, 재량지출의 확대 등으로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⁴³⁾

[표 56] 「NABO 재정전망」: 고용보험수지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수입 (GDP 대비 비율)	10.6 (0.6)	12.8 (0.7)	13.5 (0.7)	14.1 (0.7)	14.8 (0.7)	15.4 (0.7)	16.1 (0.7)	16.8 (0.7)	17.5 (0.7)	18.1 (0.7)	6.1
지출 (GDP 대비 비율)	11.3 (0.6)	12.8 (0.7)	14.5 (0.7)	15.7 (0.8)	16.4 (0.8)	17.0 (0.8)	17.6 (0.8)	18.4 (0.8)	19.1 (0.8)	19.9 (0.7)	6.5
수지 (GDP 대비 비율)	-0.6 (-0.034)	-0.1 (-0.003)	-1.0 (-0.051)	-1.6 (-0.077)	-1.6 (-0.077)	-1.6 (-0.072)	-1.5 (-0.065)	-1.6 (-0.065)	-1.7 (-0.065)	-1.7 (-0.065)	-

산재보험수지는 2018년 2.3조원(GDP 대비 0.1%)에서 2027년 2.9조원(GDP 대비 0.1%)으로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수입은 적용근로자 수의 증가와 임금상승에 따른 보수총액 증가로 2018년 8.3조원에서 2027년 12.3조원으로 연평균 4.5%씩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출은 보험급여의 최저보상기준 상향과 유족보상연금의 수급자 확대, 재량지출의 확대 등에 따라 2018년 5.9조원에서 2027년 9.5조원으로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⁴⁴⁾

43) 재량지출의 경우 정부는 2018~2022년 동안 연평균 8.4%의 증가율로 늘릴 계획이다.

[표 57] 「NABO 재정전망」: 산재보험수지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수입 (GDP 대비 비율)	8.3 (0.5)	8.6 (0.5)	9.1 (0.5)	9.5 (0.5)	10.0 (0.5)	10.4 (0.5)	10.9 (0.5)	11.3 (0.5)	11.8 (0.5)	12.3 (0.5)	4.5
지출 (GDP 대비 비율)	5.9 (0.3)	6.0 (0.3)	6.3 (0.3)	7.1 (0.3)	7.6 (0.4)	7.9 (0.4)	8.3 (0.4)	8.7 (0.4)	9.1 (0.4)	9.5 (0.4)	5.3
수지 (GDP 대비 비율)	2.3 (0.1)	2.6 (0.1)	2.8 (0.1)	2.5 (0.1)	2.4 (0.1)	2.5 (0.1)	2.6 (0.1)	2.7 (0.1)	2.8 (0.1)	2.9 (0.1)	-

5. 국가채무

가. 개 관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로 구성되고, 중앙정부 채무는 다시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성된다. 국가채무는 2018년 685.2조원(GDP 대비 38.2%)에서 1,233.7조원(GDP 대비 46.4%)으로 연평균 6.8%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에서 중앙정부 채무는 동 기간 656.3조원(GDP 대비 36.6%)에서 1,204.0조원(GDP 대비 45.3%)으로 연평균 7.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정부 순채무도 동 기간 28.9조원(GDP 대비 1.6%)에서 29.7조원(GDP 대비 1.1%)으로 연평균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58] 「NABO 재정전망」: 국가채무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18~'22	'13~'17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685.2 (38.2)	723.8 (38.7)	788.2 (40.2)	843.5 (41.2)	897.1 (41.9)	962.8 (43.0)	1,029.7 (44.0)	1,097.2 (44.9)	1,165.3 (45.7)	1,233.7 (46.4)	6.8	7.7
중앙정부 채무 (GDP 대비 비율)	656.3 (36.6)	694.1 (37.1)	758.5 (38.7)	813.8 (39.7)	867.4 (40.5)	933.1 (41.7)	1,000.0 (42.7)	1,067.5 (43.7)	1,135.6 (44.5)	1,204.0 (45.3)	7.0	7.8
지방정부 순채무 (GDP 대비 비율)	28.9 (1.6)	29.7 (1.6)	29.7 (1.5)	29.7 (1.4)	29.7 (1.4)	29.7 (1.3)	29.7 (1.3)	29.7 (1.2)	29.7 (1.2)	29.7 (1.1)	0.3	6.3

44) 재량지출의 경우 정부는 2018~2022년 동안 연평균 18.2%의 증가율로 늘릴 계획이다.

지난 5년(2013~2017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7.7%)과 지난 20년(1998~2017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11.7%)에 비해 향후 10년 간 국가채무 증가속도(연평균 증가율 6.8%)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그림 40]에서 보면, 국가채무 규모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는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1994년까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국가채무의 증가(연평균 증가율 18.4%)보다 GDP의 증가(연평균 증가율 22.1%)가 빨랐기 때문이다. 반면, 1994년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총생산의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국가채무 규모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림 40] 「NABO 재정전망」 국가채무 추이: 1973~2027년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2018.9. p.185.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59]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가채무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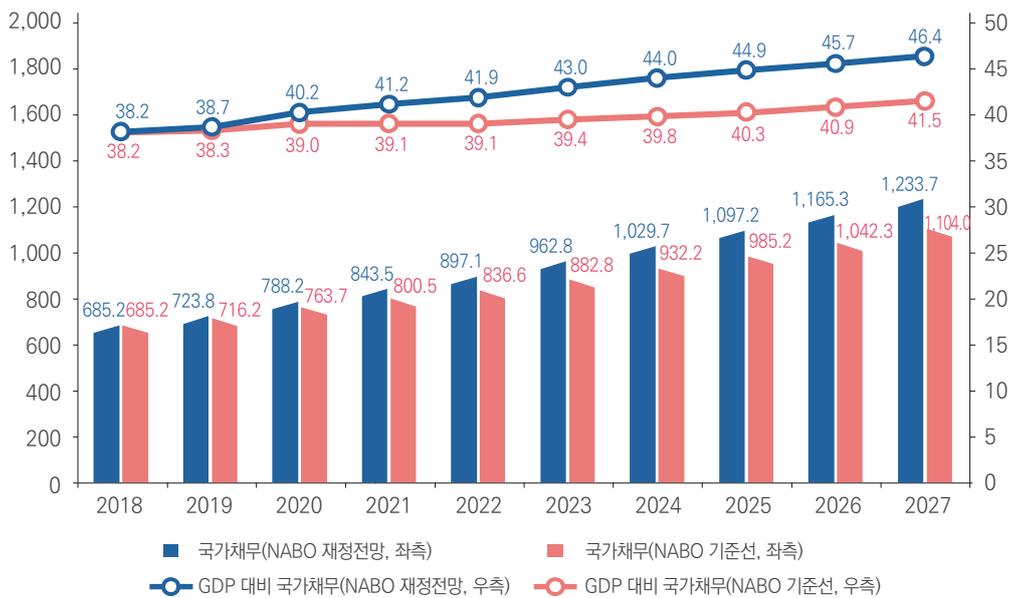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GDP 대비 비율)	685.2 (38.2)	723.8 (38.7)	788.2 (40.2)	843.5 (41.2)	897.1 (41.9)	962.8 (43.0)	1,029.7 (44.0)	1,097.2 (44.9)	1,165.3 (45.7)	1,233.7 (46.4)	6.8
NABO 기준선(B) (GDP 대비 비율)	685.2 (38.2)	716.2 (38.3)	763.7 (39.0)	800.5 (39.1)	836.6 (39.1)	882.8 (39.4)	932.2 (39.8)	985.2 (40.3)	1,042.3 (40.9)	1,104.0 (41.5)	5.4
차 이(A-B)	0.0	7.6	24.5	43.0	60.5	80.1	97.5	112.0	123.0	129.7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NABO 재정전망의 국가채무는 기준선에 비해 2019년 7.6조원에서 점점 누적되어 2027년 129.7조원까지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2019년부터 기준선과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2027년에는 기준선(41.5%)보다 4.9%p 높은 46.4%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의무지출 추가재정소요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재량지출 금액 확대가 NABO 재정전망에 반영됨에 따라 기준선과 총지출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이러한 차이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차이를 확대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림 41]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국가채무

(단위: 조원, %)



나. 중앙정부 채무

중앙정부 채무는 2018년 656.3조원(GDP 대비 36.6%)에서 2027년 1,204.0조원(GDP 대비 45.3%)으로 연평균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부 채무는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 구성되는데, 이 중 적자성 채무는 2018년 356.1조원(GDP 대비 19.8%)에서 2027년 761.1조원(GDP 대비 28.6%)으로 연평균 8.8%로 증가하는 반면, 금융성 채무는 2018년 300.2조원(GDP 대비 16.7%)에서 2027년 442.9조원(GDP 대비 16.7%)으로 연평균 4.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 적자성 채무의 연평균 증가율이 8.8%로 높게 나타난 것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확대에 따른 것으로 전망기간(2018~2027년) 동안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총지출 증가(연평균 증가율 5.0%)가 총수입 증가(연평균 증가율 4.2%)보다 빠른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 채무를 기준선과 비교하면, NABO 재정전망이 2019년 7.6조원에서 2027년 129.7조원까지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NABO 재정전망과 기준선 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차이로 인해 재정전망의 적자성 채무가 커졌기 때문이다.

[표 60] 「NABO 재정전망」과 「NABO 기준선」 비교: 중앙정부 채무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 전망 (A)	중앙정부 채무 (GDP 대비 비율)	656.3 (36.6)	694.1 (37.1)	758.5 (38.7)	813.8 (39.7)	867.4 (40.5)	933.1 (41.7)	1,000.0 (42.7)	1,067.5 (43.7)	1,135.6 (44.5)	1,204.0 (45.3)	7.0
	적자성 채무 (GDP 대비 비율)	356.1 (19.8)	378.0 (20.2)	428.2 (21.9)	477.2 (23.3)	532.8 (24.9)	557.8 (24.9)	607.7 (26.0)	658.3 (26.9)	709.5 (27.8)	761.1 (28.6)	8.8
	금융성 채무 (GDP 대비 비율)	300.2 (16.7)	316.1 (16.9)	330.4 (16.9)	336.6 (16.4)	334.6 (15.6)	375.3 (16.8)	392.4 (16.8)	409.3 (16.7)	426.1 (16.7)	442.9 (16.7)	4.4
NABO 기준선 (B)	중앙정부 채무 (GDP 대비 비율)	656.3 (36.6)	686.5 (36.7)	734.0 (37.5)	770.8 (37.6)	806.9 (37.7)	853.1 (38.1)	902.5 (38.6)	955.5 (39.1)	1,012.6 (39.7)	1,074.3 (40.4)	5.6
	적자성 채무 (GDP 대비 비율)	356.1 (19.8)	370.4 (19.8)	403.7 (20.6)	434.3 (21.2)	472.3 (22.0)	477.7 (21.3)	510.2 (21.8)	546.2 (22.3)	586.5 (23.0)	631.3 (23.7)	6.6
	금융성 채무 (GDP 대비 비율)	300.2 (16.7)	316.1 (16.9)	330.4 (16.9)	336.6 (16.4)	334.6 (15.6)	375.3 (16.8)	392.4 (16.8)	409.3 (16.7)	426.1 (16.7)	442.9 (16.7)	4.4
차 이 (A-B)	중앙정부 채무	0.0	7.6	24.5	43.0	60.5	80.1	97.5	112.0	123.0	129.7	677.9
	적자성 채무	0.0	7.6	24.5	43.0	60.5	80.1	97.5	112.0	123.0	129.7	677.9
	금융성 채무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다. 지방정부 순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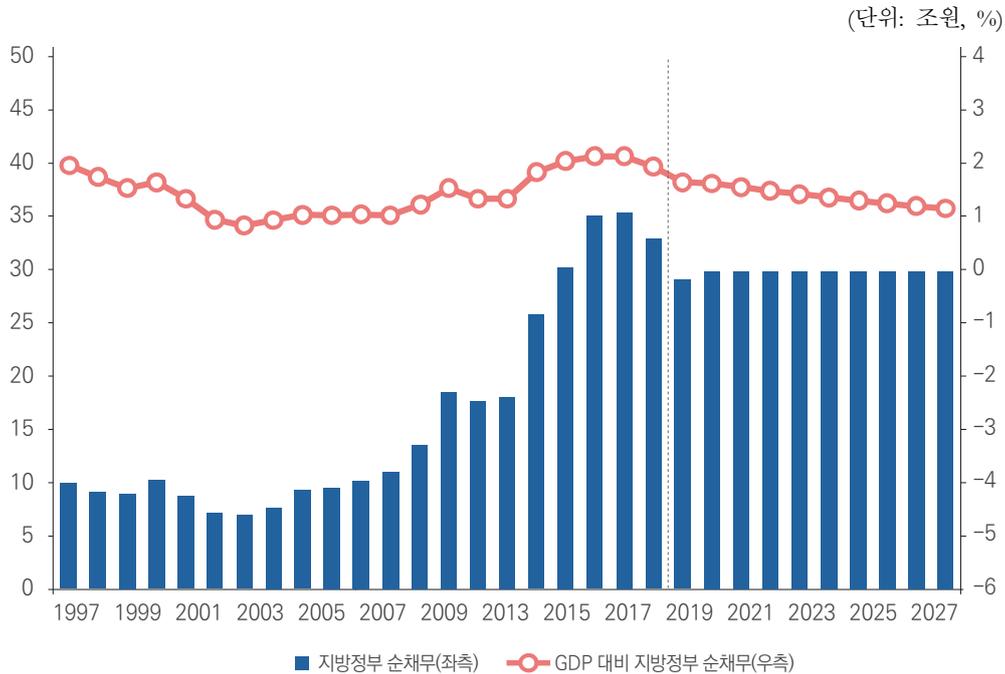
지방정부 순채무는 2018년과 2019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2020~2027년은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지방정부 순채무가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전망한다. 이에 지방정부 순채무는 2018년 28.9조원(GDP 대비 1.6%)에서 2027년 29.7조원(GDP 대비 1.1%)으로 연평균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1] 「NABO 재정전망」(기준선과 동일): 지방정부 순채무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연평균 증가율	
											'18-'27	'13-'17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685.2 (38.2)	723.8 (38.7)	788.2 (40.2)	843.5 (41.2)	897.1 (41.9)	962.8 (43.0)	1,029.7 (44.0)	1,097.2 (44.9)	1,165.3 (45.7)	1,233.7 (46.4)	6.8	7.7
지방정부 순채무 (GDP 대비 비율)	28.9 (1.6)	29.7 (1.6)	29.7 (1.5)	29.7 (1.4)	29.7 (1.4)	29.7 (1.3)	29.7 (1.3)	29.7 (1.2)	29.7 (1.2)	29.7 (1.1)	0.3	6.3

[그림 42] 「NABO 재정전망」 지방정부 순채무 추이: 1997~2027년



Ⅲ.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

1.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가 지난 9월 3일 2019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중기 재정계획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성 확보를 위해 당해 연도를 포함한 5년 간 정부의 재정운용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소득분배 개선 등을 위해 총지출을 전년(본예산) 대비 9.7% 증가한 470.5조원으로 편성하였다. 정부 전망, 2019년 경상 GDP성장률(4.4%)의 두 배 이상 되는 총지출 증가는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재정의 확장적 운용이라는 정부의 기조를 보여준다. 특히, 정부의 지출의지를 담은 재량지출은 전년 대비 8.0% 증가한 228.8조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8년도 예산안 제출 시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던 것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가 나타난다. 총지출 증가율은 5년 간 연평균 7.0%로, 이는 지난 계획(2017~2021년)에서의 총지출 증가율 5.8%를 1.2%p 초과하고, 특히 재량지출의 경우 5년 간 연평균 6.7% 증가할 것이라는 계획은 지난 계획의 4.3%를 2.4%p 초과하는 수준이다.

총수입은 2019년 법인 실적 개선 등에 따른 세수 호조로 2018년에 비해 33.6조원(7.5%)이 증가한 481.3조로 증가한 뒤, 2022년까지 연평균 5.2%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지출의 증가가 총수입에 비해 높음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점점 커지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은 2018년 -1.8%에서 2022년 -2.9%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2018년 GDP 대비 38.9%⁴⁵⁾에서 2022년 GDP 대비 41.6% 수준으로 40%대 초반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45) 2018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38.9%)은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2018.9.)상의 2018년 국가채무 전망치(697.3조원)의 GDP 대비 비율이다.

[표 62]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전년 대비 증가율)	447.7 (5.8)	481.3 (7.5)	504.1 (4.7)	525.4 (4.2)	547.8 (4.3)	5.2
총지출 (전년 대비 증가율)	432.7 (5.5)	470.5 (8.7)	504.6 (7.3)	535.9 (6.2)	567.6 (5.9)	7.0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5.1 (0.8)	10.8 (0.6)	-0.5 (0.0)	-10.5 (-0.5)	-19.8 (-0.9)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31.4 (-1.8)	-33.4 (-1.8)	-44.5 (-2.3)	-54.2 (-2.6)	-63.0 (-2.9)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697.3 (38.9)	741.0 (39.4)	790.8 (40.2)	843.0 (40.9)	897.8 (41.6)	6.5

주: 전년 대비 증가율은 추경 예산 대비 증가율임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9.)

2. NABO 재정전망과 비교

가. 개 관

전망의 기준이 되는 경상GDP성장률을 비교⁴⁶⁾하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경상GDP 성장률이 2018년 4.0%에서 2020년 4.7%로 증가한 후 2021~2022년 간 4.8%가 유지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와 비교하여 NABO는 2018년 3.7%에서 2021년 4.6%로 증가한 후 2022년 4.5%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63]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경상GDP성장률

(단위: %)

	2018	2019	2020	2021	2022	평 균
NABO 재정전망	3.7	4.3	4.6	4.6	4.5	4.3
국가재정운용계획	4.0	4.4	4.7	4.8	4.8	4.5

자료: 1.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9.)

2.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및 중기 경제전망」(2018.10.)

46)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의 비교는 전망기간이 겹치는 2018~2022년으로 한정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총수입은 2018년 447.7조원(GDP 대비 25.0%)에서 2022년 547.8조원(GDP 대비 25.4%)으로 연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NABO 재정전망은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4.4%로, 증가율 기준으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0.8%p 낮지만,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18년도 총수입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15.7조원 상회함에 따라 NABO 재정전망이 5년(2018~2022년) 간 총 21.8조원 더 높을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총지출은 2018년 432.7조원(GDP 대비 24.1%)에서 2022년 567.6조원(GDP 대비 26.3%)으로 연평균 7.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NABO 재정전망은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 7.1%로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0.1%p 높게 전망하고 있어, 2018~2022년 동안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총 23.0조원 상회할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 -31.4조원(GDP 대비 -1.8%)에서 2022년 -63.0조원(GDP 대비 -2.9%)으로 점점 적자폭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ABO 재정전망은 2018~2022년 동안 관리재정수지도 -11.8조원(GDP 대비 -0.7%)에서 -54.9조원(GDP 대비 -2.6%)으로 적자폭이 증가하지만,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2020년을 제외하고 적자폭이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는 2018년 697.3조원(GDP 대비 38.9%)에서 2022년 897.8조원(GDP 대비 41.6%)으로 연평균 6.5%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비교하여, NABO 재정전망은 2018년 685.2조원(GDP 대비 38.2%)에서 2022년 897.1조원(GDP 대비 41.9%)으로 연평균 7.0% 증가할 전망이다. 그 결과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국가채무의 차이는 2018년 -12.1조원에서 2022년 -0.7조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표 64]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재정총량표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 (A)	총수입 (GDP 대비 비율)	463.5 (25.8)	483.7 (25.8)	505.0 (25.8)	526.5 (25.7)	549.6 (25.7)	4.4
	총지출 (GDP 대비 비율)	432.7 (24.1)	474.5 (25.3)	518.6 (26.5)	540.0 (26.4)	568.5 (26.5)	7.1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30.8 (1.7)	9.2 (0.5)	-13.7 (-0.7)	-13.5 (-0.7)	-19.0 (-0.9)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1.8 (-0.7)	-33.3 (-1.8)	-54.0 (-2.8)	-51.5 (-2.5)	-54.9 (-2.6)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685.2 (38.2)	723.8 (38.7)	788.2 (40.2)	843.5 (41.2)	897.1 (41.9)	7.0
	국가재정 운용계획 (B)	총수입 (GDP 대비 비율)	447.7 (25.0)	481.3 (25.6)	504.1 (25.6)	525.4 (25.5)	547.8 (25.4)
총지출 (GDP 대비 비율)		432.7 (24.1)	470.5 (25.0)	504.6 (25.7)	535.9 (26.0)	567.6 (26.3)	7.0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5.1 (0.8)	10.8 (0.6)	-0.5 (0.0)	-10.5 (-0.5)	-19.8 (-0.9)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31.4 (-1.8)	-33.4 (-1.8)	-44.5 (-2.3)	-54.2 (-2.6)	-63.0 (-2.9)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697.3 (38.9)	741.0 (39.4)	790.8 (40.2)	843.0 (40.9)	897.8 (41.6)	6.5
차 이 (A-B)							
	총수입	15.7	2.3	0.9	1.1	1.8	21.8
	총지출	0.0	4.0	14.0	4.1	0.9	23.0
	통합재정수지	15.7	-1.6	-13.1	-3.0	0.8	-1.2
	관리재정수지	19.6	0.0	-9.5	2.7	8.1	20.9
	국가채무	-12.1	-17.2	-2.6	0.5	-0.7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총수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수입은 2018년 447.7조원에서 2022년 547.8조원으로 연평균 5.2% 증가할 전망이다고, NABO 재정전망은 2018년 463.5조원에서 2022년 549.6조원으로 연평균 4.4%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면 NABO의 총수입 전망치가 연도별로 0.9~15.7조원, 5년 합계 21.8조원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목별로 NABO의 국세수입이 5년 합계 43.5조원이 높지만, 국세외수입이 5년 합계 21.7조원 낮아 전체 총수입 차이 규모는 축소된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주된 원인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의 총수입 전망에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변수 전망 차이와 세수 전망모형 등의 차이에 기인한다. 또한, 2018~2022년 전망의 베이스가 되는 2018년도 총수입을 NABO 재정 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15.7조원 높을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전체 차이 규모가 커진 것으로 2018년을 제외한 2019~2022년 4년 간의 전망 차이 합계는 6.1조원 수준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세수입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2018년 268.1조원에서 2022년 340.3조원으로 연평균 6.1%씩 증가할 전망이고, NABO 재정전망은 2018년 289.9조원에서 2022년 348.3조원으로 연평균 4.7%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비교하면, NABO의 국세수입 전망치는 연도별로 3.3~21.8조원, 5년 합계 43.5조원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차이의 대부분은 2018년 전망 차이로 NABO 재정전망은 2018년 8월까지 세수실적⁴⁷⁾과 거시경제변수 실적치를 반영하여 전망한 것 등에 기인한다.

국세외수입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8년 179.6조원에서 2022년 207.4조원으로 연평균 3.7% 증가할 전망이고, NABO 재정전망은 2018년 173.5조원에서 2022년 201.3조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면, NABO의 국세외수입 전망치가 연도별로 0.9~6.2조원, 5년 합계 21.7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차이의 대부분은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의 가입자 수 전망 차이와 거시경제변수 전망 차이 등에 기인한다.

47) 2018년 국세수입 전망의 기초가 되는 국세수입 수납실적을 살펴보면, 1~8월까지 213.2조원이 수납되어 전년 동기 대비 23.7조원(12.5%) 증가하였다. 월별 전년 동월대비 세수증가율은 2월 이후 10%를 초과하는 호조세가 8월까지 지속되고 있다.

[표 65]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총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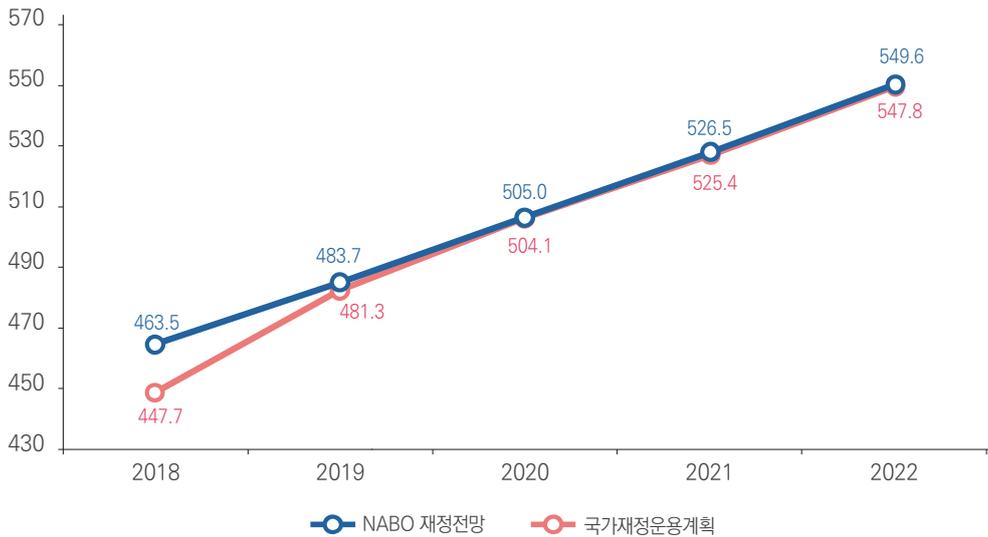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 (A)	총수입	463.5	483.7	505.0	526.5	549.6	4.4
	국세수입	289.9	302.6	317.0	331.9	348.3	4.7
	국세외수입	173.5	181.1	188.0	194.5	201.3	3.8
	기금수입	147.6	154.7	161.0	166.9	173.1	4.1
	국세탄성치	2.51	1.01	1.03	1.02	1.09	1.33
국가재정 운용계획 (B)	총수입	447.7	481.3	504.1	525.4	547.8	5.2
	국세수입	268.1	299.3	312.7	325.7	340.3	6.1
	국세외수입	179.6	182.0	191.4	199.6	207.4	3.7
	기금수입	152.4	155.4	164.0	171.3	178.5	4.0
	국세탄성치	0.26	2.64	0.95	0.87	0.93	1.13
차 이 (A-B)	총수입	15.7	2.3	0.9	1.1	1.8	합계 21.8
	국세수입	21.8	3.3	4.3	6.2	7.9	43.5
	국세외수입	-6.1	-0.9	-3.4	-5.1	-6.2	-21.7
	기금수입	-4.8	-0.7	-3.0	-4.4	-5.4	-18.3
	국세탄성치	-0.3	-0.1	-0.1	-0.2	-0.3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43]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총수입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66]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차이 원인: 총수입

대 상	주요 요인
총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망의 기초가 되는 경제 전망의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2022년 동안 NABO 재정전망은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매년 경상GDP 성장률을 0.1~0.3%p 낮게 전망(연평균 기준 0.1%p) ○ 세수 전망 모형 차이

다. 총지출

(1) 개 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총지출은 2018년 432.7조원에서 2022년 567.6조원으로 연평균 7.0% 증가할 전망이고, NABO 재정전망은 2018년 432.7조원에서 2022년 568.5조원으로 연평균 7.1%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면, NABO 재정전망은 연도별로 0.9~14.0조원, 5년(2018~2022년) 간 총 23.0조원 높을 전망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의무지출은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2018~2022년) 간 총 28.4조원 높고, 재량지출은 NABO 재정전망이 5년(2018~2022년) 간 총 5.4조원 낮을 전망이다. 의무지출에서 발생한 차이의 주요 원인은 NABO 재정전망의 지방이전재원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높은데 기인하는데, 지방이전재원 규모를 결정짓는 내국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NABO가 2018~2022년 간 재량지출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량지출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음에도 5년 간 총 5.4조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지방이전재원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종료(2019년) 된 이후 누리과정지원액에 대한 지출 분류 차이에 기인한다. 정부는 특별회계가 만료된 이후의 누리과정지원액을 일반회계 재량지출로 분류하였지만, NABO는 누리과정이 국가의 의무교육이므로 재원 혹은 회계의 종류와 무관하게 지출성격상 의무지출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의무지출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NABO의 재량지출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재량지출에서 2020~2022년 누리과정지원액을 차감하여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NABO 재량지출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2020년 이후 누리과정지원액 5.4조원 만큼 낮아진다.

[표 67]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총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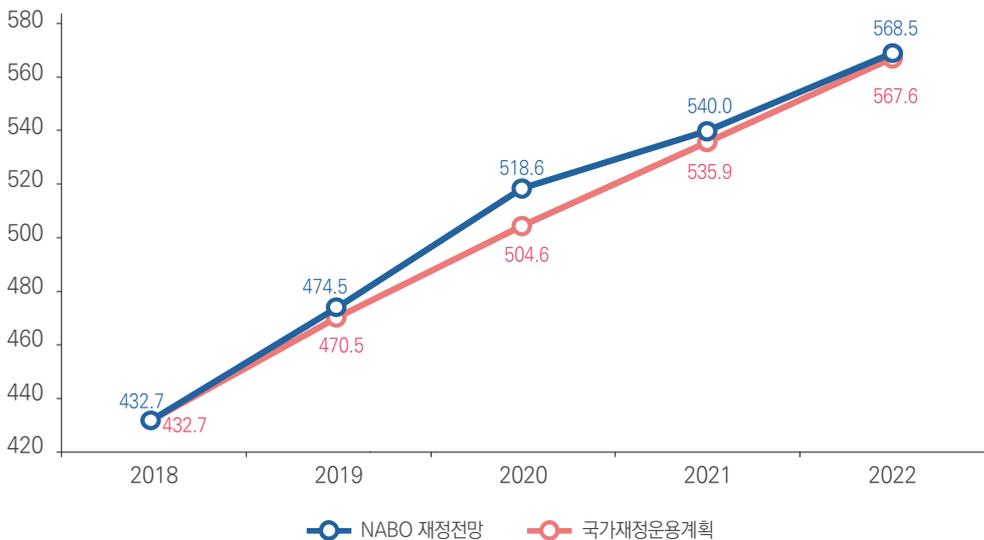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 (A)	총지출	432.7	474.5	518.6	540.0	568.5	7.1
	(GDP 대비 비율)	(24.1)	(25.3)	(26.5)	(26.4)	(26.5)	
	의무지출	217.0	245.7	272.3	279.5	295.5	8.0
	(총지출 대비 비율)	(50.2)	(51.8)	(52.5)	(51.8)	(52.0)	
	재량지출	215.7	228.8	246.4	260.5	273.0	6.1
(총지출 대비 비율)	(49.8)	(48.2)	(47.5)	(48.2)	(48.0)		
국가재정 운용계획 (B)	총지출	432.7	470.5	504.6	535.9	567.6	7.0
	(GDP 대비 비율)	(24.1)	(25.0)	(25.7)	(26.0)	(26.3)	
	의무지출	217.0	241.7	256.4	273.6	292.9	7.8
	(총지출 대비 비율)	(50.2)	(51.4)	(50.8)	(51.1)	(51.6)	
	재량지출	215.7	228.8	248.3	262.3	274.7	6.2
(총지출 대비 비율)	(49.8)	(48.6)	(49.2)	(48.9)	(48.4)		
차 이 (A-B)	총지출	0.0	4.0	14.0	4.1	0.9	23.0
	의무지출	0.0	4.0	15.9	5.9	2.7	28.4
	재량지출	0.0	0.0	-1.9	-1.8	-1.7	-5.4
합계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44]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총지출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8.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의무지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2018년 217.0조원에서 292.9조원으로 연평균 7.8%로 증가할 전망이고, NABO 재정전망은 2018년 217.0조원에서 2022년 295.5조원으로 연평균 8.0%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면, NABO 재정전망은 연도별로 2.7~15.9조원, 5년(2018~2022년) 간 총 28.4조원 높을 전망이다.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의무지출은 특히, 복지분야 의무지출(3.4조원)과 지방이전재원(26.2조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68]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 (A)	의무지출	217.0	245.7	272.3	279.5	295.5	8.0
	복지분야 의무지출	95.8	110.2	120.6	130.0	138.1	9.6
	지방이전재원	99.4	113.8	128.4	125.4	131.6	7.3
	이자지출	16.0	16.3	17.7	18.7	20.0	5.8
	기타 의무지출	5.8	5.4	5.6	5.5	5.7	-0.4
국가재정 운용계획 (B)	의무지출	217.0	241.7	256.4	273.6	292.9	7.8
	복지분야 의무지출	95.8	107.3	117.5	129.3	141.6	10.3
	지방이전재원	99.4	112.3	115.2	120.0	125.4	6.0
	이자지출	16.0	16.8	18.1	18.8	20.2	6.0
	기타 의무지출	5.8	5.4	5.6	5.5	5.7	-0.3
차이 (A-B)	의무지출	0.0	4.0	15.9	5.9	2.7	28.4
	복지분야 의무지출	0.0	3.0	3.2	0.7	-3.4	3.4
	지방이전재원	0.0	1.5	13.1	5.4	6.3	26.2
	이자지출	0.0	-0.5	-0.4	-0.2	-0.1	-1.2
	기타 의무지출	0.0	0.0	0.0	0.0	0.0	0.0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가) 복지분야 의무지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2018년 95.8조원에서 141.6조원으로 연평균 10.3%로 증가할 전망이고, NABO 재정전망은 2018년 95.8조원에서 2022년 138.1조원으로 연평균 9.6%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면, NABO 재정전망과의 차이는 연도별로 -3.4~3.2조원으로, 5년(2018~2022년) 간 총 3.4조원 높을 전망이다.

복지분야 의무지출 차이(5년 간 총 3.4조원)를 발생시키는 주요 세부내역 중 5년(2018~2022년) 간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상회하는 주요 항목은 국민연금(9.8조원), 공무원연금(2.7조원)이고, 하회하는 주요 항목은 국민기초생활보장(-4.7조원), 기초연금(-2.7조원), 고용보험(-2.4조원) 등이다. 이러한 차이의 주요 원인을 개별 항목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69]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복지분야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95.8	110.2	120.6	130.0	138.1	9.6
국가재정운용계획(B)		95.8	107.3	117.5	129.3	141.6	10.3
차 이(A-B)		0.0	3.0	3.2	0.7	-3.4	3.4
세부항목별 차이							
항 목	세부내역	2018	2019	2020	2021	2022	5년 합계
공적연금 (a)	국민연금	0.0	1.2	2.8	3.3	2.5	9.8
	사학연금	0.0	0.3	0.3	0.2	0.3	1.1
	공무원연금	0.0	1.2	1.2	0.7	-0.3	2.7
	군인연금	0.0	0.1	0.2	0.2	0.2	0.7
	소 계	0.0	2.7	4.4	4.4	2.8	14.4
사회보험 (b)	건강보험	0.0	0.0	0.5	0.2	0.1	0.7
	노인장기요양보험	0.0	0.2	0.2	0.1	0.1	0.6
	고용보험	0.0	-0.2	-0.8	-0.7	-0.8	-2.4
	산재보험	0.0	0.0	-0.1	-0.1	-0.2	-0.3
	소 계	0.0	0.0	-0.2	-0.5	-0.8	-1.5
공공부조 (c)	국민기초생활보장	0.0	0.5	-0.3	-1.5	-3.3	-4.7
	기초연금	0.0	0.1	-0.5	-1.1	-1.3	-2.7
	영유아보육	0.0	-0.3	0.0	0.0	0.0	-0.3
	아동수당	0.0	0.0	0.1	0.0	0.0	0.1
	장애수당(기초)	0.0	0.0	0.0	0.0	0.0	0.0
	장애인연금	0.0	0.0	0.0	0.0	0.0	0.0
	소 계	0.0	0.3	-0.7	-2.6	-4.6	-7.6
복지분야 기타 (d)	보 훈	0.0	-0.1	-0.3	-0.6	-0.8	-1.8
	기타 복지	0.0	0.0	0.0	0.0	0.0	0.0
	소 계	0.0	-0.1	-0.3	-0.6	-0.8	-1.8
차이 합계(a+b+c+d)		0.0	3.0	3.2	0.7	-3.4	3.4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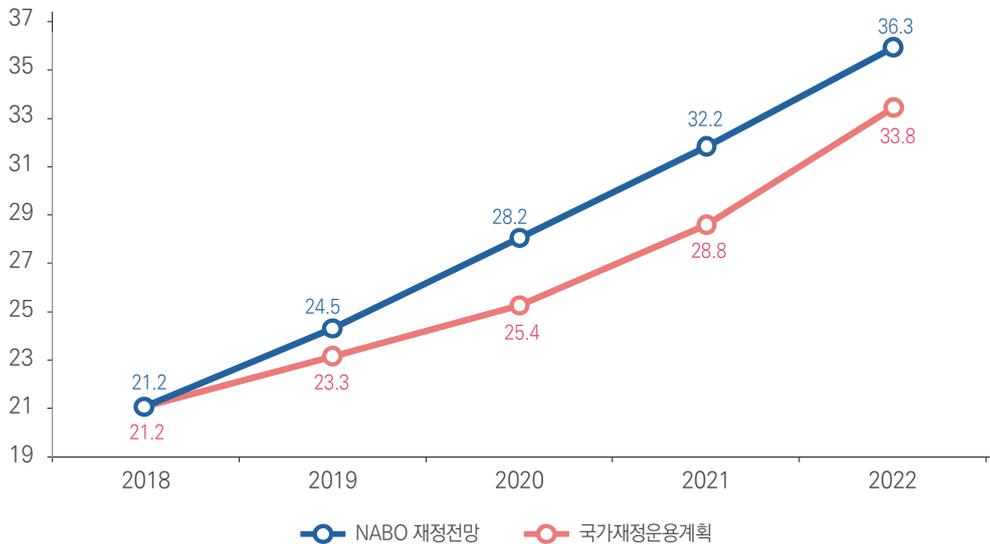
1)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상회하는 복지분야 의무지출 항목

□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8년 21.2조원에서 2022년 33.8조원으로 5년 간 132.5조원(연평균 12.4%)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NABO 재정전망은 2018년 21.2조원에서 2022년 36.3조원으로 5년 간 142.4조원(연평균 14.4%)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9.8조원(2.0%p)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명목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변수와 국민연금 급여 전망모형 차이에 기인한다.

[그림 45]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국민연금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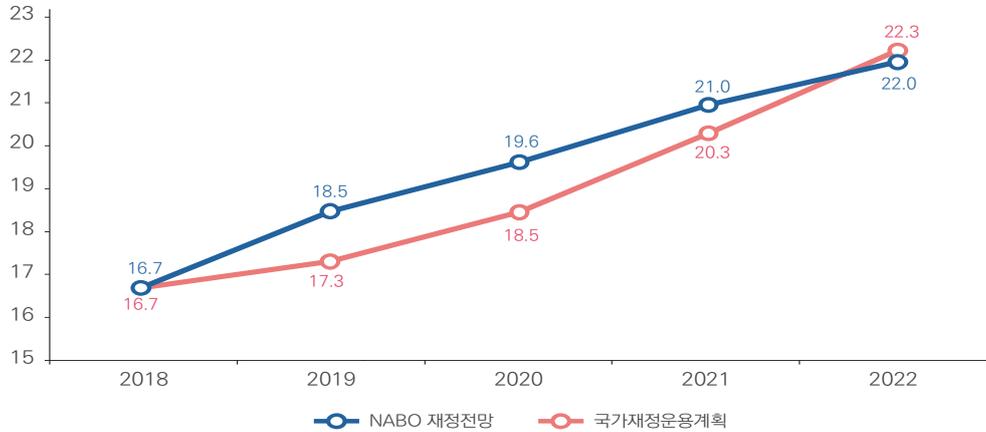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8년 16.7조원에서 2022년 22.3조원으로 5년 간 총 95.1조원(연평균 7.5%)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NABO 재정전망은 2018년 16.7조원에서 2022년 22.0조원으로 5년 간 총 97.8조원(연평균 7.1%)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7조원(0.4%p)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퇴직자 수 전망 방식 차이 등으로 인한 연금급여액 및 퇴직수당 전망액 차이에 기인한다.

[그림 46]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공무원연금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하회하는 복지분야 의무지출 항목

□ 국민기초생활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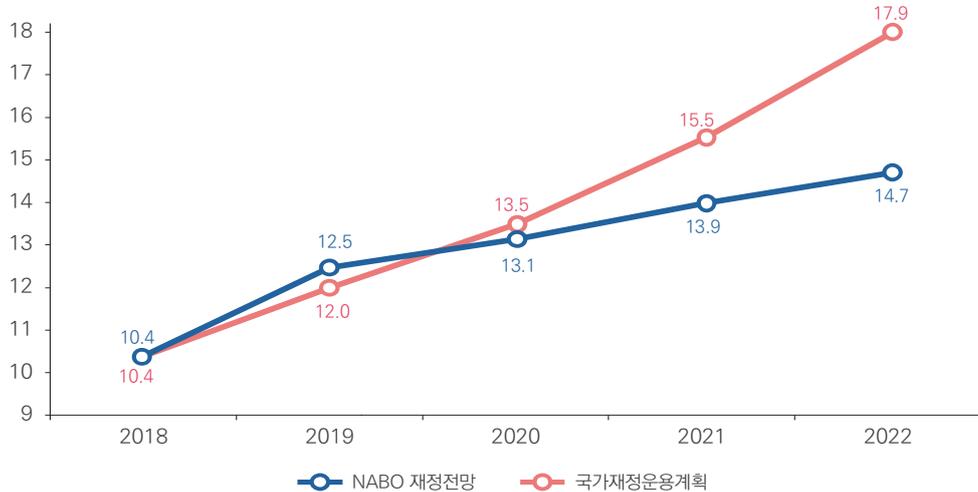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8년 10.4조원에서 2022년 17.9조원으로 5년 간 총 69.2조원(연평균 14.6%)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NABO 재정전망은 2018년 10.4조원에서 2022년 14.7조원으로 5년간 총 64.6조원(연평균 9.0%)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5년 간 총 4.7조원(5.6%p) 하회할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높은 증가율은 정부가 지난해 제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연평균 증가율(7.3%)의 두 배에 달하고, 과거 5년간(2013~2017년) 연평균 증가율(6.5%)의 두 배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처럼 급격한 증가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급기준 완화 등 급여별 지원대상자 확대를 적극 고려했다⁴⁸⁾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대상자 확대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대상자 확대 계획을 반영하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전망액이 과대 추계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NABO 재정전망은 급여지급기준 완화 등에 따른 대상자 수 전망시 보다 현실성 있는 가정을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실적 및 향후 인구전망 등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차이는 전망의 방법과 전제에서 주로 발생하게 되었다.

48)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9.), p29.

[그림 47]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국민기초생활보장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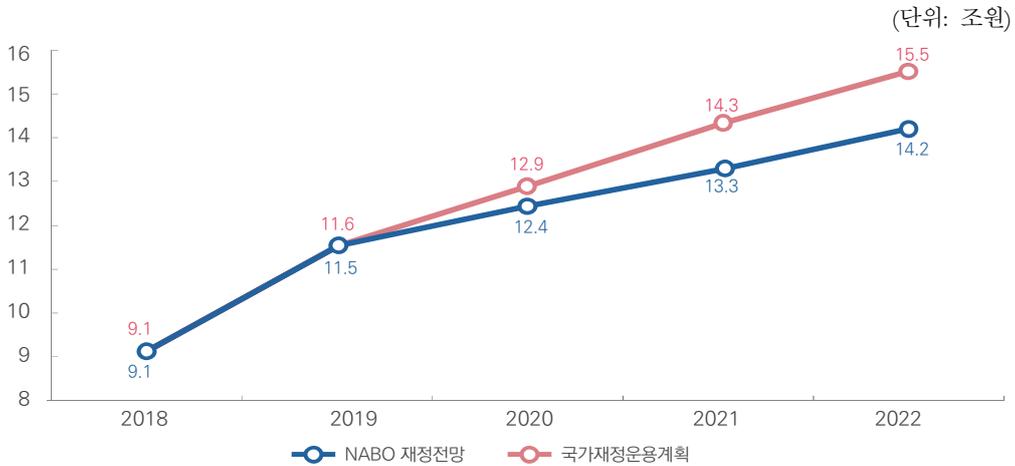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기초연금

기초연금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8년 9.1조원에서 2022년 15.5조원으로 5년 간 총 63.3조원(연평균 14.2%)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NABO 재정전망은 2018년 9.1조원에서 2022년 14.2조원으로 5년 간 총 60.6조원(연평균 11.7%)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5년 간 총 2.7조원(2.5%p) 하회할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의 차이는 기준연금액 30만원 인상 적용 대상자에 대한 가정에서 비롯되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9년, 2020년, 2021년에 각각 만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20%, 20~40%, 40~70%를 기준연금액 인상(월 25만원 → 월 30만원) 적용대상자로 가정하여 전망하였다. 그러나 NABO 재정전망은 정부 계획 중 2019년 인상 계획만 반영하고, 2020년과 2021년의 적용대상 확대 계획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2019년 인상 계획의 경우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고 관련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2020년과 2021년 인상 계획의 경우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계획이 수정될 여지가 있고 관련 개정법률안도 아직 발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시점에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림 48]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기초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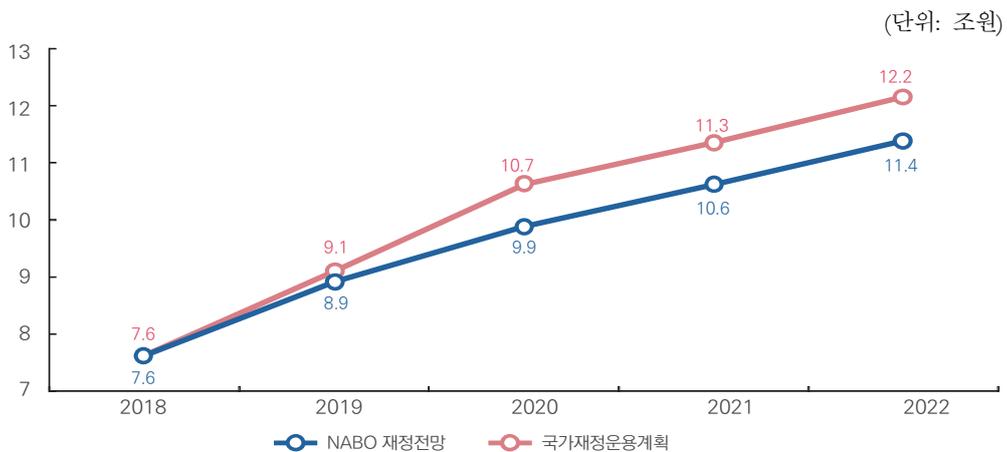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8년 7.6조원에서 2022년 12.2조원으로 5년 간 총 50.8조원(연평균 12.4%)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NABO 재정전망은 2018년 7.6조원에서 2022년 11.4조원으로 5년 간 총 48.4조원(연평균 10.6%)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5년 간 총 2.4조원(1.8%p) 하회할 전망이다. 이러한 차이는 재정정책 변화로 인한 육아휴직 수급자 수 및 고용보험 급여단가 등에 대한 전망 차이에서 발생하였다.

[그림 49]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고용보험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70]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차이 원인: 복지분야 의무지출

대 상	주요 요인
국민기초생활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경제 변수 전망 차이(명목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추계인구, 임대료 상승률 적용 등) ○ 수급대상자수에 대한 정부와 NABO의 전망 차이 ○ 급여지급 단가 등에 대한 전망방법 차이
건강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 예상수입액 전망방법 차이(납부자 수, 보수월액 증가율)
고용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경제 변수 전망 차이(명목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 재정정책 변화에 대한 수급대상자 수 전망 차이 ○ 급여지급 단가 상승률 전망 차이
산재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경제 변수 전망 차이(명목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 전망방법의 차이(수급자 수, 급여의 지원단가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보험료 예상수입액 전망 차이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은 건강보험료 수입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액⁴⁹⁾)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의 차이
국민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경제 변수 전망 차이(명목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 연금 수급자 수 및 급여지급 단가 등 전망방법 차이
사학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경제 변수 전망 차이(명목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등) ○ 퇴직자 수, 수급자 수 및 급여지급 단가 등 전망방법 차이
기초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경제 변수 전망 차이(물가상승률) ○ 정부의 기준연금액 반영계획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BO는 2019년 소득하위 20%에 대한 30만원 인상 반영 - 정부는 2021년까지 30만원 인상 대상자 점진적 확대 반영 ○ 전망방법의 차이
영유아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률 가정 등 연령별 대상자 수 전망 차이 ○ 보육료 인상 단가 전망 차이
보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대상자 수 전망 차이 ○ 보상금 등 단가 인상 전망 차이

49) 「노인장기요양법」 제58조에 따라 국가는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나) 지방이전재원

지방이전재원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8년 99.4조원에서 2022년 125.4조원으로 5년 간 총 572.3조원(연평균 6.0%)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NABO 재정전망은 2018년 99.4조원에서 2022년 131.6조원으로 5년 간 총 598.6조원(연평균 7.3%)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의 차이는 2019년 1.5조원, 2020년 13.1조원, 2021년 5.4조원, 2022년 6.3조원 등 5년(2018~2022년) 간 총 26.2조원 NABO 재정전망이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차이는 지방이전재원 추계의 기초가 되는 국세수입 중 일반회계인 내국세, 담뭏값 개별소비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이하, 내국세 등)의 전망 차이에서 발생한다.⁵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세수입이 5년간(2018~2022년) NABO 재정전망에 비해 43.5조원 낮게 전망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이전재원 규모를 결정하는 내국세 등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 외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 지방이전재원 정산이 있다. 지방이전재원의 경우 예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세입 결산이 확정되면 내국세 등의 예산과 결산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 차액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전망에서는 NABO의 내국세 등에 대한 2018년 세입전망과 2018년 세입예산액과의 차이(22.5조원)로 인해 지방이전재원 정산분 8.8조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방교부세법」과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2년 뒤인 2020년에 모두 정산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⁵¹⁾ 따라서 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의 차이 13.1조원 중 8.8조원은 정산으로 인한 차이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누리과정)가 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근거법에 따라 2019년까지 예산을 편성⁵²⁾하고 있지만, NABO 재정전망은 개정안 발의 등

50)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19.24%의 해당하는 금액(보통·특별교부세), 종합부동산액 총액(부동산교부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20%(소방안전교부세)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2016년까지는 내국세 총액의 20.27%와 교육세 전액으로 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안정적인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교육세 중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액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년 한시)로 전입한다.

51) 2018년은 정부의 세입예산에 따라 지방이전재원을 편성하므로 2018년 세입전망액과 예산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정산액이 발생한다. 그러나 2019년 이후의 지방이전재원은 각 연도의 세입전망액을 기준으로 지방이전재원을 산출하였으므로 정산액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일몰 연장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하였다. 따라서 NABO 재정전망에서 누리과정예산은 지방이전재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의무지출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정부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만료된 후, 2020년부터는 누리과정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교육부의 일반회계로 분류하면서 재량지출로 구분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20년 이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인식하지 않고, NABO 재정전망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인식함에 따라 양측의 지방이전재원 전망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표 71]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지방이전재원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99.4	113.8	128.4	125.4	131.6	7.3
국가재정운용계획(B)	99.4	112.3	115.2	120.0	125.4	6.0
차 이(A-B)	0.0	1.5	13.1	5.4	6.3	합계 26.2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이자지출

이자지출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8년 16.0조원에서 2022년 20.2조원으로 5년 간 총 89.9조원(연평균 6.0%)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NABO 재정전망은 2018년 16.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5년 간 총 88.8조원(연평균 5.8%)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의 차이는 2019년 0.5조원, 2020년 0.4조원, 2021년 0.2조원, 2022년 0.1조원으로 5년(2018~2022년) 간 총 1.2조원 NABO 재정전망이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차이의 주요한 원인은 이자율 전망 및 국가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국민주택기금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수신고의 전망 차이에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경우, 이번 전망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당해 연도 국가채무에 반영된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 재정전망의 관리

5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는 3년 한시(2019년까지) 특별회계이다.

재정수지 적자 규모 차이는 국가채무 발행 규모 차이로 이어져 이자지출 차이가 된다. 이자율의 경우 NABO의 금리전망과 정부의 금리전망에 차이가 있어 이자지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표 72]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이자지출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16.0	16.3	17.7	18.7	20.0	5.8
국가재정운용계획(B)	16.0	16.8	18.1	18.8	20.2	6.0
차 이(A-B)	0.0	-0.5	-0.4	-0.2	-0.1	합계 -1.2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기타 의무지출

기타 의무지출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8년 5.8조원에서 2022년 5.7조원으로 5년 간 총 28.0조원(연평균 -0.3%)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NABO 재정전망은 2018년 5.8조원에서 2022년 5.7조원으로 5년 간 총 28.0조원(연평균 -0.4%)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의 차이는 5년(2018~2022년) 간 총 0.03조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유엔PKO예산분담금 및 기타 의무지출에 대한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전망 방식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표 73]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기타 의무지출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B)	5.8	5.4	5.6	5.5	5.7	-0.4
국가재정운용계획(A)	5.8	5.4	5.6	5.5	5.7	-0.3
차 이(A-B)	0.00	0.01	-0.01	-0.01	-0.01	합계 -0.03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74]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차이 원인: 복지 외 의무지출

대 상	주요 요인
지방이전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수입 중 내국세와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담뭏값 개별소비세 전망 차이 ○ 정산분 인식 시점 차이
이자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항목별 적용 이자율 차이 ○ 이자지출 전망 방식 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BO 재정전망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관리재정수지 적자로 인한 국가 채무 증가액 및 국민주택채권 잔액,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수신고 등 전망 방식 및 동 채무에 적용하는 이자율 차이 등
기타 의무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 유엔PKO예산분담금 및 기타 의무지출 전망 방식의 차이

(3) 재량지출

재량지출의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8년 215.7조원에서 2022년 274.7조원으로 5년 간 총 1,229.7조원(연평균 6.2%)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NABO 재정전망은 2018년 215.7조원에서 2022년 273.0조원으로 5년 간 총 1,224.3조원(연평균 6.1%)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5년 간 총 5.4조원 하회할 전망이다.

NABO가 2018~2022년 간 재량지출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재량지출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음에도 5년 간 총 5.4조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지방이전재원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만료(2019년)가 된 이후 누리과정 지원액에 대한 지출 분류 차이에 기인한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교육세전입액과 일반회계전입액으로 구성되는데, 교육세전입액은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이며, 일반회계전입액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이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폐지될 경우, 교육세전입액은 교육세에서 계속 총당하게 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분류되지만, 일반회계전입액은 별도 사업을 신설해야한다. 따라서 정부는 일반회계전입액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은 교육부의 일반회계사업으로 편성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재량지출로 분류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누리과정은 국가의 의무교육으로서, 재원 혹은 회계의 종류와 무관하게

지출성격상 의무지출로 분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이유로 NABO는 누리과정예산을 의무지출로 분류하고 있다.⁵³⁾

따라서 NABO는 재량지출을 적용함에 있어서 2018~2019년은 국가재정운용계획 금액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2020~2022년은 이미 NABO가 의무지출로 분류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NABO 재정전망의 재량지출로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NABO의 재량지출은 2020년 이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만큼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표 75]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재량지출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215.7	228.8	246.4	260.5	273.0	6.1
국가재정운용계획(B)	215.7	228.8	248.3	262.3	274.7	6.2
차 이(A-B)	0.0	0.0	-1.9	-1.8	-1.7	합계 -5.4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재량지출을 성질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인건비와 기본 경비 등 경직성 재량지출은 2018년 45.9조원(재량지출 대비 21.3%)에서 55.2조원(재량지출 대비 20.2%)으로 연평균 4.7%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과거 5년(2013~2017년) 간 경직성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1.3%)과 비교하면 3.4%p로 높은 증가율이다.

경직성 재량지출 중 인건비는 공무원 수 증가 등으로 인해 2018년 22.5조원에서 2022년 29.0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방비와 함께 재량지출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방비의 경우 동 기간 39.0조원(재량지출 대비 18.1%)에서 50.6조원(재량지출 대비 18.5%)으로 연평균 6.7%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과거 5년(2013~2017년) 간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3.5%)과 비교하면 3.2%p 높은 증가율이다.

경직성 재량지출과 국방비를 제외한 비경직성 재량지출의 경우 동 기간 130.8조원(재량지출 대비 60.6%)에서 167.2조원(재량지출 대비 61.2%)으로 연평균 6.3%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과거 5년(2013~2017년) 간 비경직성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3.8%)과 비교하면 2.5%p 높은 증가율이다.

53) NABO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종료시점에 다시 연장된다고 가정하고, 누리과정 지원 예산을 지방이전재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76] 「국가재정운용계획」 재량지출 총량(성질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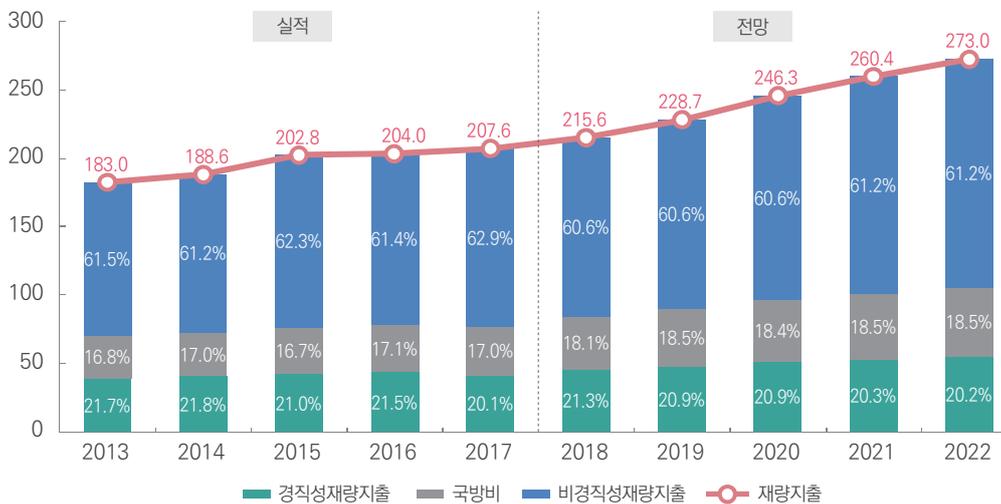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재량지출 ¹⁾ (GDP 대비 비율)	215.7 (12.0)	228.8 (12.2)	246.4 (12.5)	260.5 (12.6)	273.0 (12.7)	6.1
경직성 재량지출 (재량지출 대비 비율)	45.9 (21.3)	47.8 (20.9)	51.6 (20.9)	53.0 (20.3)	55.2 (20.2)	4.7
- 인건비 (경직성 재량지출 대비 비율)	22.5 (49.1)	23.7 (49.6)	25.4 (49.2)	27.1 (51.3)	29.0 (52.6)	6.6
- 기본경비 등 (경직성 재량지출 대비 비율)	23.4 (50.9)	24.1 (50.4)	26.2 (50.8)	25.8 (48.7)	26.2 (47.4)	2.9
국방비 (재량지출 대비 비율)	39.0 (18.1)	42.4 (18.5)	45.4 (18.4)	48.2 (18.5)	50.6 (18.5)	6.7
비경직성 재량지출 (재량지출 대비 비율)	130.8 (60.6)	138.6 (60.6)	149.4 (60.6)	159.4 (61.2)	167.2 (61.2)	6.3

주: 1) 2018~2022년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이고, 2020~2022년은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재량지출에 포함되었던 금액을 비경직성 경비에서 제외함
자료: 기획재정부

[그림 50] 「국가재정운용계획」 성질별 재량지출 추이: 2013~2022년

(단위: 조원, %)



주: 1. 2016년까지는 예산 기준이고 2017년은 결산 기준이며, 2018년은 예산 기준이고, 2019년부터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임
2. 경직성 경비와 국방비, 비경직성 경비의 각 값들은 재량지출 대비 비중임
3. 2018~2022년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이고, 2020~2022년은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으로 재량지출에 포함되었던 금액을 비경직성 경비에서 제외함
자료: 기획재정부

[표 77]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차이 원인: 재량지출

대 상	주요 요인
재량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종료(2019년)된 이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일반회계 전입분) 의무 및 재량지출 구분 차이 - 정부는 재량지출로 분류, NABO는 의무지출로 분류

라. 재정수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15.1조원 흑자(GDP 대비 0.8%)에서 2022년 19.8조원 적자(GDP 대비 -0.9%)로 전환될 전망이다. NABO 재정전망도 동 기간 30.8조원 흑자(GDP 대비 1.7%)에서 19.0조원 적자(GDP 대비 -0.9%)로 전환될 전망이다.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통합재정수지의 차이는 2018년 15.7조원, 2019년 -1.6조원, 2020년 -13.1조원, 2021년 -3.0조원, 2022년 0.8조원으로 나타난다. 2018년 통합재정수지 차이(15.7조원)는 NABO의 총수입 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을 15.7조원 상회함에 따라 발생한다. 반면 2020년의 차이(-13.1조원)는 2018년 세수전망 차이에 기인한 지방이전재원의 정산액 8.8조원이 2020년에 인식됨에 따라 NABO 재정전망의 지출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높게 전망된 것이 주요인이다.

[표 78]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통합재정수지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NABO 재정전망 (A) (GDP 대비 비율)	30.8 (1.7)	9.2 (0.5)	-13.7 (-0.7)	-13.5 (-0.7)	-19.0 (-0.9)	
국가재정운용계획 (B) (GDP 대비 비율)	15.1 (0.8)	10.8 (0.6)	-0.5 (0.0)	-10.5 (-0.5)	-19.8 (-0.9)	
차 이(A-B)	15.7	-1.6	-13.1	-3.0	0.8	합계 -1.2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 -31.4조원(GDP 대비 -1.8%)에서 2022년 -63.0조원(GDP 대비 -2.9%)으로 GDP 대비 -3% 이내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NABO 재정전망에서도 2018년 -11.8조원(GDP 대비 -0.7%)에서 2022년 -54.9조원(GDP 대비 -2.6%)으로 적자폭이 점점 증가하지만 GDP대비 -3% 이내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관리재정수지의 차이는 5년 간 총 20.9조원으로 NABO 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적자폭이 작은 것으로 전망된다. 각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9.6조원, 2019년 0.04조원, 2020년 -9.5조원, 2021년 2.7조원, 2022년 8.1조원으로, 2018년 지방이전재원 정산분이 반영된 2020년을 제외하면,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적다.

[표 79]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관리재정수지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NABO 재정전망 (A) (GDP 대비 비율)	-11.8 (-0.7)	-33.3 (-1.8)	-54.0 (-2.8)	-51.5 (-2.5)	-54.9 (-2.6)	
국가재정운용계획 (B) (GDP 대비 비율)	-31.4 (-1.8)	-33.4 (-1.8)	-44.5 (-2.3)	-54.2 (-2.6)	-63.0 (-2.9)	
차 이(A-B)	19.6	0.0	-9.5	2.7	8.1	합계 20.9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0년을 제외한 기간에서 NABO 재정전망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더 적은 이유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해 NABO 재정전망의 총지출(사회보장성기금 지출 제외)이 5년 간 총 14.6조원 많은데 반해, 총수입(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제외)은 5년 간 총 35.5조원 많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NABO 재정전망을 상회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무지출 항목인 국민기초생활보장(5년 합계 4.7조원), 기초연금(5년 합계 2.7조원)의 경우, 정부가 NABO 재정전망에서 적용한 가정을 준용한다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의무지출 수준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총지출(사회보장성기금 지출 제외) 금액이 낮아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낮아지고, NABO 재정전망 관리재정수지 적자폭과의 차이도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80]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관리재정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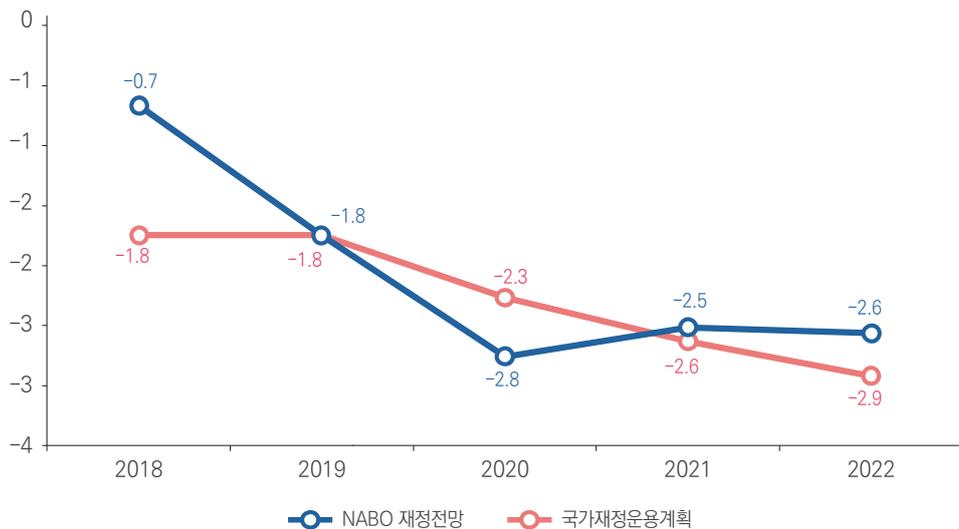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 (A)	총수입 (GDP 대비 비율)	377.6 (21.0)	392.4 (21.0)	409.8 (20.9)	427.5 (20.9)	446.7 (20.9)	4.3
	총지출 (GDP 대비 비율)	389.4 (21.7)	425.7 (22.7)	463.9 (23.7)	478.9 (23.4)	501.6 (23.4)	6.5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1.8 (-0.7)	-33.3 (-1.8)	-54.0 (-2.8)	-51.5 (-2.5)	-54.9 (-2.6)	
국가재정 운용계획 (B)	총수입 (GDP 대비 비율)	358.0 (20.0)	389.7 (20.7)	407.6 (20.7)	423.4 (20.5)	439.7 (20.4)	5.3
	총지출 (GDP 대비 비율)	389.4 (21.7)	423.1 (22.5)	452.1 (23.0)	477.6 (23.2)	502.7 (23.3)	6.6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31.4 (-1.8)	-33.4 (-1.8)	-44.5 (-2.3)	-54.2 (-2.6)	-63.0 (-2.9)	
차 이 (A-B)	총수입	19.6	2.7	2.2	4.0	7.0	35.5
	총지출	0.0	2.6	11.7	1.3	-1.1	14.6
	관리재정수지	19.6	0.0	-9.5	2.7	8.1	20.9
합계							

주: 총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금액이고, 총지출은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을 제외한 금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51]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관리재정수지(GDP 대비 비율)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참고로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살펴보면,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18년 46.5조원(GDP 대비 2.6%)에서 2022년 43.2조원(GDP 대비 2.0%)으로 3.3조원 감소할 전망이고, NABO 재정전망은 2018년 42.7조원(GDP 대비 2.4%)에서 2022년 35.9조원(GDP 대비 1.7%)으로 6.8조원 감소할 전망이다.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사회보장성기금 수지의 차이는 2018년 -3.9조원에서 2022년 -7.2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NABO 재정전망의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연평균 증가율 4.6%)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연평균 증가율 4.7%)보다 낮은 수준인 반면,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은 NABO 재정전망(연평균 증가율 11.5%)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연평균 증가율 10.7%)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이 NABO 재정전망보다 높은 주요인은 국민연금기여금 수입 증가율에 있어 정부(6.2%)가 NABO(3.9%)에 비해 높기 때문이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이 낮은 주요인은 국민연금급여 지출 증가율에 있어 정부(12.4%)가 NABO(14.4%)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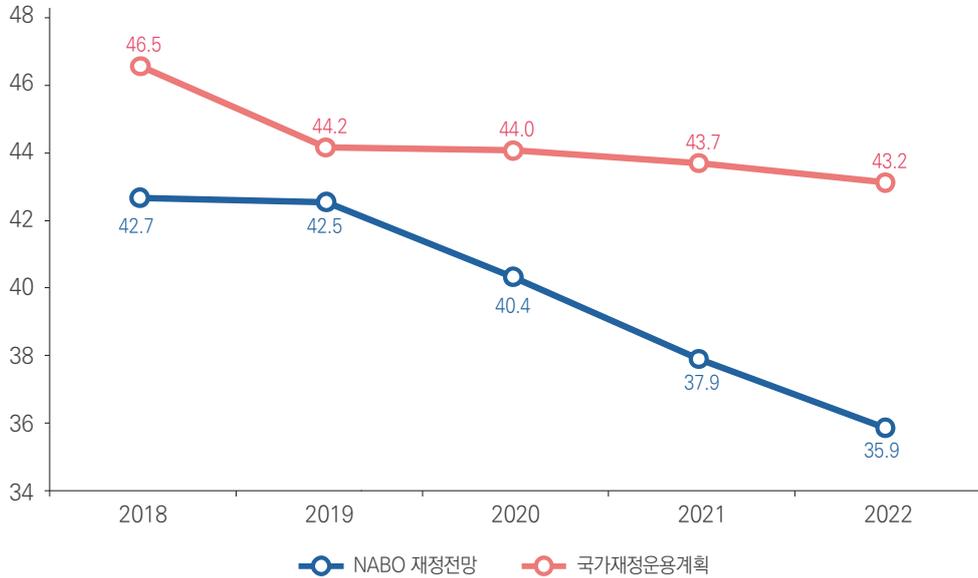
[표 81]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 (A)	수입 (GDP 대비 비율)	85.9 (4.8)	91.3 (4.9)	95.2 (4.9)	99.0 (4.8)	102.8 (4.8)	4.6
	지출 (GDP 대비 비율)	43.2 (2.4)	48.8 (2.6)	54.8 (2.8)	61.1 (3.0)	66.9 (3.1)	11.5
	수지 (GDP 대비 비율)	42.7 (2.4)	42.5 (2.3)	40.4 (2.1)	37.9 (1.9)	35.9 (1.7)	
국가재정 운용계획 (B)	수입 (GDP 대비 비율)	89.8 (5.0)	91.6 (4.9)	96.5 (4.9)	102.0 (4.9)	108.1 (5.0)	4.7
	지출 (GDP 대비 비율)	43.2 (2.4)	47.4 (2.5)	52.5 (2.7)	58.3 (2.8)	64.9 (3.0)	10.7
	수지 (GDP 대비 비율)	46.5 (2.6)	44.2 (2.4)	44.0 (2.2)	43.7 (2.1)	43.2 (2.0)	
차이 (A-B)							합계
	수입	-3.9	-0.4	-1.4	-3.0	-5.2	-13.8
	지출	0.0	1.3	2.3	2.8	2.0	8.4
	수지	-3.9	-1.7	-3.7	-5.7	-7.2	-22.1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52]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단위: 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 국가채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는 2018년 697.3조원(GDP 대비 38.9%)에서 2022년 897.8조원(GDP 대비 41.6%)으로 연평균 6.5%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비교하여 NABO 재정전망은 2018년 685.2조원(GDP 대비 38.2%)에서 2022년 897.1조원(GDP 대비 41.9%)으로 연평균 7.0%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면, NABO 재정전망은 국가채무가 2021년을 제외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국가채무 차이는 2018년 -12.1조원, 2019년 -17.2조원, 2020년 -2.6조원, 2022년 -0.7조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의 규모 측면에서는 NABO 재정전망이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5년(2018~2022년) 간 총 32.0조원 낮을 전망이다. 그러나 GDP 대비 비율 측면에서는 NABO 재정전망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8.2%, 2019년 38.7%로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각각 0.7%p 낮지만, 2020년은 40.2%로 같아졌다가, 2021년에 이르면 41.2%, 2022년에는 41.9%로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각각 0.3%p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및 2019년의 국가채무 규모 및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비해 낮은 것은 주로 정부보다 높은 세수 전망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감소에 기인한다. 2021년 이후 국가채무 규모는 정부와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정부보다 높아진 것은 주로 NABO의 관리재정수지적자가 2020년에 크게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NABO의 경상GDP전망액(경상GDP성장률)이 정부에 비해 낮은 것에 주로 기인한다.

[표 82]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국가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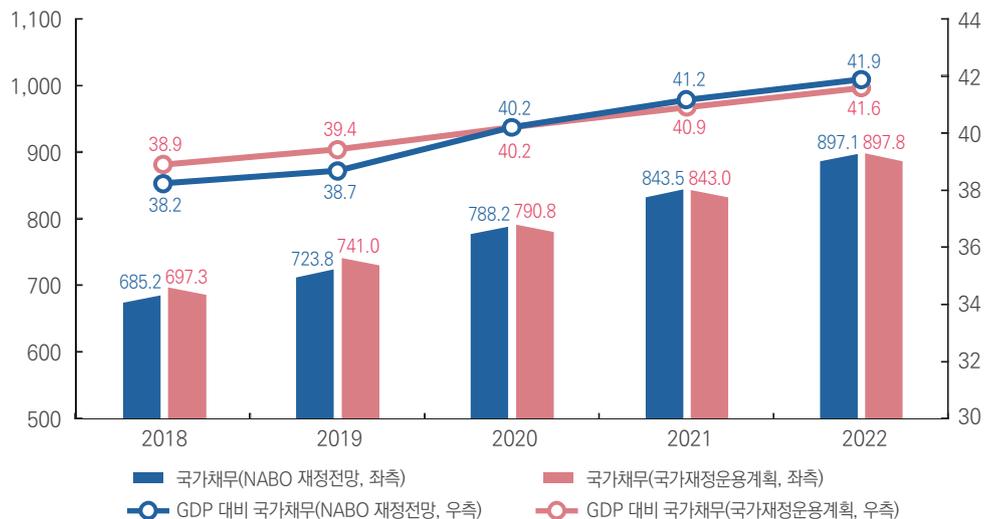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NABO 재정전망(A) (GDP 대비 비율)	685.2 (38.2)	723.8 (38.7)	788.2 (40.2)	843.5 (41.2)	897.1 (41.9)	7.0
국가재정운용계획(B) (GDP 대비 비율)	697.3 (38.9)	741.0 (39.4)	790.8 (40.2)	843.0 (40.9)	897.8 (41.6)	6.5
차 이(A-B)	-12.1	-17.2	-2.6	0.5	-0.7	합계 -32.0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그림 53] 「NABO 재정전망」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비교: 국가채무

(단위: 조원, %)



자료: 기획재정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18.9.)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부 록

NABO 재정전망의 주요 경제·인구변수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경제변수										
경상GDP성장률(%)	3.7	4.3	4.6	4.6	4.5	4.5	4.5	4.4	4.3	4.2
(정부) 경상GDP성장률(%)	4.0	4.4	4.7	4.8	4.8					
실질GDP성장률(%)	2.7	2.7	2.8	2.8	2.7	2.7	2.7	2.6	2.5	2.4
실업률(%)	3.8	3.8	3.7	3.7	3.8	3.8	3.8	3.8	3.8	3.8
소비자물가 상승률(%)	1.6	1.8	1.9	1.9	1.9	2.0	2.0	2.0	2.0	2.0
국고채금리(3년)(%)	2.2	2.4	2.6	2.6	2.6	2.5	2.5	2.4	2.4	2.4
GDP 디플레이터(%)	1.0	1.6	1.8	1.8	1.8	1.8	1.8	1.8	1.8	1.8
인구변수										
총인구 증가율(%)	0.2	0.3	0.2	0.2	0.2	0.1	0.1	0.1	0.1	0.0
합계출산율(명)	1.05	1.11	1.10	1.10	1.09	1.08	1.08	1.07	1.07	1.07
출생률(인구 천명당 %)	7.3	7.1	7.0	6.9	6.8	6.7	6.7	6.7	6.7	6.6
사망률(인구 천명당 %)	5.9	6.1	6.2	6.4	6.6	6.8	7.0	7.1	7.3	7.5
0~5세 인구 비중(%)	4.8	4.7	4.5	4.3	4.2	4.1	4.1	4.1	4.0	4.0
65세 이상 인구 비중(%)	14.3	14.9	15.7	16.5	17.3	18.1	19.1	20.1	21.3	22.2

NABO 재정전망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총수입	463.5	483.7	505.0	526.5	549.6	574.1	597.1	621.5	645.8	670.7
국세수입	289.9	302.6	317.0	331.9	348.3	366.1	382.0	398.8	415.5	432.6
국세외수입	173.5	181.1	188.0	194.5	201.3	208.0	215.1	222.7	230.3	238.1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85.9	91.3	95.2	99.0	102.8	106.7	110.6	115.0	119.4	123.8
총지출	432.7	474.5	518.6	540.0	568.5	591.1	617.4	645.1	672.1	699.5
의무지출	217.0	245.7	272.3	279.5	295.5	309.9	327.8	347.2	366.1	385.5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43.2	48.8	54.8	61.1	66.9	69.4	75.4	82.2	88.6	95.2
복지분야 의무지출	95.8	110.2	120.6	130.0	138.1	144.6	154.9	166.2	177.1	188.3
사회보험	21.3	23.7	26.4	28.3	30.2	31.7	33.4	35.4	37.0	38.7
건강보험	7.9	8.7	9.9	10.7	11.4	12.1	13.0	13.9	14.6	15.2
노인장기요양보험	0.7	1.0	1.3	1.4	1.6	1.8	1.9	2.1	2.3	2.5
고용보험	7.6	8.9	9.9	10.6	11.4	11.8	12.1	12.6	13.1	13.6
산재보험	5.0	5.1	5.3	5.6	5.8	6.1	6.4	6.7	7.0	7.4
공적연금	44.1	50.1	55.5	61.2	67.0	69.7	76.7	83.9	91.2	98.8
국민연금	21.2	24.5	28.2	32.2	36.3	37.4	42.0	47.2	52.2	57.2
사학연금	3.0	3.6	3.9	4.2	4.6	5.0	5.4	5.8	6.1	6.4
공무원연금	16.7	18.5	19.6	21.0	22.0	23.1	24.8	26.3	28.0	30.1
군인연금	3.2	3.5	3.7	3.8	4.0	4.2	4.4	4.6	4.9	5.1
공공부조	24.1	29.9	31.4	33.0	34.6	36.9	38.7	40.9	42.9	45.0
국민기초생활보장	10.4	12.5	13.1	13.9	14.7	15.9	16.6	17.3	18.0	18.8
기초연금	9.1	11.6	12.4	13.3	14.2	15.2	16.3	17.6	19.0	20.2
영유아보육	3.3	3.1	3.1	3.1	3.1	3.1	3.1	3.2	3.2	3.3
아동수당	0.7	2.0	1.9	1.9	1.8	1.8	1.8	1.8	1.7	1.7
장애수당(기초)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장애인 연금	0.6	0.7	0.8	0.8	0.8	0.8	0.8	0.9	0.9	0.9
기타 복지분야	6.2	6.5	7.3	7.5	6.3	6.2	6.1	6.0	5.9	5.9
보훈	4.6	4.5	4.4	4.2	4.0	3.9	3.7	3.6	3.5	3.4
기타 복지	1.6	2.0	3.0	3.3	2.3	2.3	2.4	2.4	2.5	2.5
지방이전재원	99.4	113.8	128.4	125.4	131.6	138.6	144.8	151.5	158.1	164.9
이자지출	16.0	16.3	17.7	18.7	20.0	21.1	22.4	23.8	25.2	26.6
기타 의무지출	5.8	5.4	5.6	5.5	5.7	5.7	5.7	5.7	5.6	5.6
재량지출	215.7	228.8	246.4	260.5	273.0	281.2	289.6	297.9	306.1	314.1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통합재정수지	30.8	9.2	-13.7	-13.5	-19.0	-17.0	-20.3	-23.6	-26.3	-28.8
(GDP 대비 비율)	(1.7)	(0.5)	(-0.7)	(-0.7)	(-0.9)	(-0.8)	(-0.9)	(-1.0)	(-1.0)	(-1.1)
관리재정수지	-11.8	-33.3	-54.0	-51.5	-54.9	-54.3	-55.6	-56.3	-57.0	-57.4
(GDP 대비 비율)	(-0.7)	(-1.8)	(-2.8)	(-2.5)	(-2.6)	(-2.4)	(-2.4)	(-2.3)	(-2.2)	(-2.2)
국가채무	685.2	723.8	788.2	843.5	897.1	962.8	1,029.7	1,097.2	1,165.3	1,233.7
(GDP 대비 비율)	(38.2)	(38.7)	(40.2)	(41.2)	(41.9)	(43.0)	(44.0)	(44.9)	(45.7)	(46.4)

주: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은 기여금과 기타를 모두 포함한 금액임

NABO 기준선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총수입	463.5	484.9	505.3	526.9	549.1	572.5	596.0	620.1	644.1	668.7
국세수입	289.9	305.4	319.1	334.2	349.8	366.4	383.0	399.6	416.1	433.0
국세외수입	173.5	179.4	186.3	192.7	199.4	206.0	213.0	220.5	228.0	235.7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85.9	89.7	93.4	97.1	100.9	104.6	108.4	112.6	116.9	121.2
총지출	432.7	466.6	500.7	517.5	544.0	568.6	597.8	628.4	659.1	690.9
의무지출	217.0	245.6	269.4	275.5	291.0	304.1	321.3	339.6	357.8	376.8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43.2	48.3	53.7	59.6	65.4	67.8	73.7	80.4	86.8	93.3
복지분야 의무지출	95.8	108.9	117.2	125.5	134.0	139.9	149.5	160.1	170.6	181.6
사회보험	21.3	23.3	24.9	26.0	27.3	28.3	29.4	30.7	32.0	33.5
건강보험	7.9	8.7	9.7	10.1	10.5	10.8	11.2	11.7	12.1	12.6
노인장기요양보험	0.7	1.0	1.1	1.2	1.2	1.3	1.4	1.4	1.5	1.8
고용보험	7.6	8.4	8.8	9.2	9.8	10.1	10.4	10.9	11.3	11.7
산재보험	5.0	5.1	5.3	5.6	5.8	6.1	6.4	6.7	7.0	7.4
공적연금	44.1	50.1	55.5	61.2	67.0	69.7	76.7	83.9	91.2	98.8
국민연금	21.2	24.5	28.2	32.2	36.3	37.4	42.0	47.2	52.2	57.2
사학연금	3.0	3.6	3.9	4.2	4.6	5.0	5.4	5.8	6.1	6.4
공무원연금	16.7	18.5	19.6	21.0	22.0	23.1	24.8	26.3	28.0	30.1
군인연금	3.2	3.5	3.7	3.8	4.0	4.2	4.4	4.6	4.9	5.1
공공부조	24.1	29.4	30.9	32.5	34.0	36.3	38.0	40.1	42.1	44.1
국민기초생활보장	10.4	12.5	13.1	13.9	14.7	15.9	16.6	17.3	18.0	18.8
기초연금	9.1	11.1	11.9	12.8	13.7	14.6	15.7	16.9	18.3	19.4
영유아보육	3.3	3.1	3.1	3.1	3.1	3.1	3.1	3.2	3.2	3.3
아동수당	0.7	2.0	1.9	1.9	1.8	1.8	1.8	1.8	1.7	1.7
장애수당(기초)	0.1	0.1	0.1	0.1	0.1	0.1	0.1	0.1	0.1	0.1
장애인 연금	0.6	0.7	0.7	0.7	0.7	0.7	0.7	0.8	0.8	0.8
기타 복지분야	6.2	6.1	5.9	5.8	5.7	5.5	5.4	5.3	5.2	5.2
보훈	4.6	4.5	4.3	4.1	4.0	3.8	3.7	3.5	3.4	3.3
기타 복지	1.6	1.6	1.6	1.7	1.7	1.7	1.8	1.8	1.8	1.9
지방이전재원	99.4	114.5	128.7	125.7	131.6	138.1	144.5	151.1	157.6	164.3
이자지출	16.0	16.3	17.5	18.2	19.1	19.8	20.8	21.8	22.9	24.0
기타 의무지출	5.8	5.9	6.0	6.1	6.2	6.4	6.5	6.6	6.8	6.9
재량지출	215.7	221.0	231.3	242.0	253.0	264.5	276.5	288.8	301.3	314.1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통합재정수지	30.8	18.3	4.7	9.4	5.1	3.9	-1.8	-8.3	-15.0	-22.2
(GDP 대비 비율)	(1.7)	(1.0)	(0.2)	(0.5)	(0.2)	(0.2)	(-0.1)	(-0.3)	(-0.6)	(-0.8)
관리재정수지	-11.8	-23.1	-35.1	-28.1	-30.4	-33.0	-36.5	-40.5	-45.1	-50.1
(GDP 대비 비율)	(-0.7)	(-1.2)	(-1.8)	(-1.4)	(-1.4)	(-1.5)	(-1.6)	(-1.7)	(-1.8)	(-1.9)
국가채무	685.2	716.2	763.7	800.5	836.6	882.8	932.2	985.2	1,042.3	1,104.0
(GDP 대비 비율)	(38.2)	(38.3)	(39.0)	(39.1)	(39.1)	(39.4)	(39.8)	(40.3)	(40.9)	(41.5)

주: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은 기여금과 기타를 모두 포함한 금액임

국가재정운용계획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수입	447.7	481.3	504.1	525.4	547.8
국세수입	268.1	299.3	312.7	325.7	340.3
국세외수입	179.6	182.0	191.4	199.6	207.4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89.8	91.6	96.5	102.0	108.1
총지출	432.7	470.5	504.6	535.9	567.6
의무지출	217.0	241.7	256.4	273.6	292.9
(사회보장성기금 지출)	43.2	47.4	52.5	58.3	64.9
복지분야 의무지출	95.8	107.3	117.5	129.3	141.6
사회보험	21.3	23.7	26.6	28.8	31.0
건강보험	7.9	8.7	9.5	10.5	11.3
노인장기요양보험	0.7	0.9	1.1	1.3	1.5
고용보험	7.6	9.1	10.7	11.3	12.2
산재보험	5.0	5.1	5.4	5.7	6.0
공적연금	44.1	47.3	51.1	56.8	64.2
국민연금	21.2	23.3	25.4	28.8	33.8
사학연금	3.0	3.4	3.7	4.0	4.3
공무원연금	16.7	17.3	18.5	20.3	22.3
군인연금	3.2	3.4	3.5	3.7	3.8
공공부조	24.1	29.6	32.1	35.6	39.3
국민기초생활보장	10.4	12.0	13.5	15.5	17.9
기초연금	9.1	11.5	12.9	14.3	15.5
영유아보육	3.3	3.4	3.1	3.1	3.1
아동수당	0.7	1.9	1.9	1.9	1.9
장애수당(기초)	0.1	0.1	0.1	0.1	0.1
장애인 연금	0.6	0.7	0.8	0.8	0.8
기타 복지분야	6.2	6.6	7.6	8.0	7.1
보훈	4.6	4.6	4.7	4.8	4.9
기타 복지	1.6	2.0	3.0	3.3	2.3
지방이전재원	99.4	112.3	115.2	120.0	125.4
이자지출	16.0	16.8	18.1	18.8	20.2
기타 의무지출	5.8	5.4	5.6	5.5	5.7
재량지출	215.7	228.8	248.3	262.3	274.7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통합재정수지	15.1	10.8	-0.5	-10.5	-19.8
(GDP 대비 비율)	(0.8)	(0.6)	(0.0)	(-0.5)	(-0.9)
관리재정수지	-31.4	-33.4	-44.5	-54.2	-63.0
(GDP 대비 비율)	(-1.8)	(-1.8)	(-2.3)	(-2.6)	(-2.9)
국가채무	697.3	741.0	790.8	843.0	897.8
(GDP 대비 비율)	(38.9)	(39.4)	(40.2)	(40.9)	(41.6)

주: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은 기여금과 기타를 모두 포함한 금액임

201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2018~2027

발간일 2018년 11월 1일
발행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유월애 (tel 02·859·2278)

1. 이 책의 무단 복제 및 전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총괄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88·3776)
-

ISBN 978-89-6073-150-9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8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

